第241回國會
(臨時會)

2010年平昌冬季올림픽 誘致特別委員會會議錄

第 4 號

國 會 事 務 處

日 時 2003年7月14日(月)

場 所 第3會議場(145號)

議事日程

1. 2010평창동계올림픽유치활동관련金雲龍IOC위원에관한건

審査된案件

1. 2010평창동계올림픽유치활동관련金雲龍IOC위원에관한건 ····· 2

(14시29분 개의)

○委員長 金學元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국회(임시회) 제4차 2010년평창동계올림픽유치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오늘 회의에 관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9일 회의를 통해서 金雲龍 IOC 위원의 평창 유치 실패의 책임문제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 사실관계가 밝혀짐에 따라서 지난 7월 11일 간사회의 합의를 통해서 崔萬立 유치위원회 부위원장, 文東厚 유치위원회 유치위원, 崔勝浩 유치위원회 사무총장, 尹康老 유치위원회 사무차장을 참고인으로 자진출석 방식으로 출석시켜서 조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다만 문동후 참고인은 일본 출장이 사전에 예정되어 있던 관계로 회의 참석이 어려워서 서면으로 부득이 출석할 수 없는 사유를 소명자료와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다만 문동후 참고인에게 물어볼 사안에 대해서 본인이 진술서를 작성해서 제출토록 본 위원장이 지시해서 본인이 위원회에 진술서를 제출했습니다. 진술서의 사본은 각 위원님들 테이블 위에 놓여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간사회의에서 두 명의 참고인을 추가로 참석시키기로 협의했습니다. 金雲龍 위원 측에서 본인을 해명하기에 적합한 참고인으로 네 명을 신청했습니다마는 간사들과 협의해서 그 중 두 명을 참석시켜서 질의·응답에 응하도록 합의를 보았습니다. 추가로 참석한 참고인은 李今烘 유치위원과 姜錫哉 씨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는 다섯 명의 참고인을 대상으로 평창동계올림픽 유치활동과 관련한 金雲龍 IOC 위원에 대한 조사를 계속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참고로 오늘 金雲龍 위원님께서 지난번 회의 때는 질의·응답 시에 참석하지 않으시고 말미에 나오셔서 본인에 관한 여러 가지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현재의 金雲龍 위원에 대해서는 엄격한 증인의 절차로서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회의 편의적인 절차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金雲龍 위원이 특위 위원의 자격을 상실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金雲龍 위원 본인이 자진해서 출석하지 않으면 몰라도 출석을 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출석을 금지할 수 없음을 여러분들이 양지해 주시고, 대신 金雲龍 위원님의 좌석 변경만을 통해서 하도록 간사끼리 합의를 보았습니다. 이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참고인들에 대한 질의·응답이 다 끝나고 본 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을 할 때에는 金雲龍 위원이 개인적인 이해관계 당사자이기 때문에 본인의 소견만 진술하도록 하고 본인이 퇴정한 후에 위원회의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평창동계올림픽유치활동관련金雲龍IOC위원에관한건

(14시34분)

○**委員長 金學元**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평창동계올림픽유치활동관련金雲龍IOC위원에관한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에 참석한 다섯 명의 참고인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응답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金敬天 委員**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말씀하세요.

○**金敬天 委員** 이번에 문제제기를 한 金龍學 위원이 지금 간사를 맡고 있는데, 공정성에 문제가 있으니까 간사를 교체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金映宣 委員** 제가 한 말씀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예.

○**金映宣 委員** 지금 여기 위원들이 많은데, 간사라는 것은 의견 조율을 하기 위해서 의사진행을 돕는 사람이지 의사결정이나 이 사안에 대한 특별한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金雲龍 위원 본인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맞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균형에 맞지 않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金敬天 委員** 金雲龍 위원님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아직 정확한 것이 판명되지 않은 이상 특위 위원 자격이 상실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으로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강력하게 제기한 그 당사자가 간사로 있을 때는, 물론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하고 정리하는 일을 한다고 하지만 아무래도 공정성이 상실될 수 있기 때문에 간사로 있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봅니다.

○**金映宣 委員** 국회의원은 기본적으로 사회에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인데 그것은 국회의원의 직무에 반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좀 어폐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金敬天 委員** 아니, 그것은 할 수 있지요. 그러나 위원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간사를 바꾸어 달라는 것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지금 金敬天 위원님의 의견도 충분히 듣고 金映宣 위원님의 의견도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동안에 金龍學 위원님이 이 문제를 제기한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까지 어떤 문제를 제기했다고 해서 간사를 교체한 전례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양당 간사 간에 협의하는 문제는 위원회의 진행 절차에 관해서만 제가 진행을 하고 간사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咸承熙 간사께서 진행에 관해서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이 문제에 관해서는 간사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어떤가 싶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십시오.

○**咸承熙 委員** 그 문제는 나중에 회의 도중이라도 위원장과 제가 상의해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그것은 위원장과 간사들 간에 맡겨주시지요.

金敬天 위원님 양해해 주시지요.

○**金敬天 委員** 예.

○**委員長 金學元** 감사합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시간은 양당 간사 간에 10분으로 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이 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일괄질의·일괄답변방식을 병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는 간사 간의 합의를 거쳐서 제정된 순서대로 하고 나중에 오시는 위원님들은 이 순서 뒤에 순서를 넣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먼저 민주당의 咸承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咸承熙 委員** 서울 노원 갑의 咸承熙 위원입니다.

2010년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강원도 평창이 선정되지를 못했고 그것도 3표 차라는 근소한 차로 탈락함으로써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또 국위를 선양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쳤다는 점에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난 특위에서 이 문제와 관련하여 金龍學 위원이 제기했던 金雲龍 위원의 유치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점, 그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좀 미흡한 점이 있다고 생각되어서 추가로 사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더 이상 이 문제를 확대하는 것은 국가 체면에 손상을 초래할 뿐 득이 없다는 말씀도 하시면서 대충 이 선에서 마무리를 짓는 것이 어떠냐 이런 얘기도 합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사인도 아닌 공인 그것도 국회의원이면서 스포츠계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큰 리더라고 할 수 있는 분이 "평창은 아직 준비가 안 되었으니까 찍지 마라, 2014년에 해도 된다." 이런 식의 반국가적인 언동을 하고 다녔다는 것은 그 조사과정에서 그로 인해서 다소의 국가 체면의 손상이나 스포츠계에 다소의 어떤 불이익을 감수한다 하더라도 사회 기강을 확립한다는 측면에서 반드시 진상이 규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반면에 金龍學 위원이 발언한 것들이 어떤 구체적인 사실에 기초하지 않고 개인적인 의도·동기 또는 당리당략적인 의도 이런 것들이 깃들여져서 과장된 사실을 유포해서 결국은 온 국민들을 분노케 했다면 이것 또한 혹세무민이라는 측면에서 단단히 규명되어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이런 양 측면에서 저는 지난번에도 철저한 조사에 임했고, 오늘도 그러한 입장에서 조사할 것이라는 것을 우선 기본입장으로 천명을 합니다.

우선 崔萬立 부위원장께 한번 묻겠습니다.

崔萬立 부위원장은 金雲龍 위원을 과거 언제부터 알고 지내는 사이입니까?

○參考人 崔萬立 30년 이상 되었을 것입니다.

○咸承熙 委員 과거는 그렇다 치고, 최근 몇 년 사이에 金雲龍 위원과 서로 나쁜 험담을 하고 다니고 이럴 정도로 나쁜 관계입니까?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參考人 崔萬立 없습니다.

○咸承熙 委員 그러면 본인이 괜히 없는 말을 꾸며대면서 모함할 사이는 아닙니까?

○參考人 崔萬立 절대 없습니다.

○咸承熙 委員 좋습니다.

그러면 묻겠습니다.

우리가 그날 결선투표를 하고 모두 허탈한 마음에 빠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 예정된 것이기는 하지만 마침 로게 위원장 주최로 저녁에 리셉션이 힐튼호텔 리셉션장에서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번에는 안 되어서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선전을 했고 또 2014년을 위해서 많은 IOC 위원들에게 고맙다는 인사도 전할 겸 또 가서 친분도 두터이 할 겸 가급적 여러 대표단이 참석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그때 공유되어서 崔萬立 부위원장은 6시부터 진행된 그 리셉션 현장에 갔었지요?

○參考人 崔萬立 예, 갔습니다.

○咸承熙 委員 본 위원도 거기 갔었습니다. 그렇지요?

○參考人 崔萬立 예.

○咸承熙 委員 저도 그 자리에서 崔萬立 부위원장을 본 기억이 나는데, 이것은 일단은 익명으로 하기로 하고, 북미에 있는 어떤 IOC 위원이 崔萬立 부위원장에게 "참 안됐다"고 하면서 "닥터 김이 'Don't vote for Pyeongchang.'이라고 한 서너 명의 다른 IOC 위원들에게 얘기하고 다니는 것을 내가 들었는데, 정말 안됐다." 이런 식의 위로의 말을 한 것을 듣고 '이럴 수가 있나!'하고 분한 나머지 그 내용을 그대로 孔魯明 위원장에게 보고한 적이 있나요?

○參考人 崔萬立 있습니다.

○咸承熙 委員 그때 북미의 어떤 IOC 위원이라는 분이 崔萬立 부위원장에게 한 얘기를 영어로 그대로 한번 옮겨보시지요. '안됐다' 이런 것은 본인이 한국말로 번역을 한 것이니까, 뭐라고 얘기합디까?

○參考人 崔萬立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아까 말씀한 대로 우리가 이번에는 확실히 될 줄 알았습니다.

○咸承熙 委員 너무 길게 하시면 제가 시간이 없어서 안 되니까 내가 묻는 말에만 우선 대답해 주세요. 북미의 IOC 위원으로부터 본인이 들은 말을 직접화법으로 영어로 딱 옮겨보라는 말입니다.

○參考人 崔萬立 "Don't vote for Pyeongchang." 그 얘기는 했습니다.

○咸承熙 委員 '안됐다'고 그러더라면서요?

○參考人 崔萬立 그렇게 얘기했지요. 그런데 저는 믿기지가 않아서……

○咸承熙 委員 미키 김이라고 했습니까, 닥터 김이라고 했습니까?

○參考人 崔萬立 그것은 그 상황에서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특별히 저한테……

○咸承熙 委員 제가 듣기로는 어떤 분은 닥터 김이라고 했다고 들었는데, 이전에 孔魯明 위원장이 두 번째 위원장 성명에서 답할 때는 미키 김이라고 얘기했다고 대답하던데……

○參考人 崔萬立 그것은 제가 들은 얘기이고 孔

魯明 위원장이 지난번에 국회에 나와서 얘기한 것은 조금 저와 다른 바가 있습니다.

○咸承熙 委員 어떤 점이 차이가 있습니까?

○參考人 崔萬立 예를 들어서 제가 7월 2일에 다 끝난 다음에 했기 때문에 저는 허탈한 감에서 될 것이 안 되어서 억울하고 분한 마당에 그런 얘기를 하길래 참 괘씸하기도 해서 한풀이 푸념으로 제가 孔 위원장에게 얘기를 했고, "이것은 절대 국가에 도움이 안 되니 대외비로 해 달라"고 해서 공개 안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咸承熙 委員 좋습니다. 그 충정은 제가 이해해야 하겠는데요.

金雲龍 위원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기 때문에 말의 진실성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닥터 김이라고 했는지, 미키 김이라고 했는지 이런 것들은 중요한 것이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북미의 IOC 위원으로 본인이 들을 때 닥터 김이라고 그럽디까, 미키 김이라고 그럽디까?

○參考人 崔萬立 제 기억에는 김이라고만 얘기들은 것 같아요.

○咸承熙 委員 앞에 호칭은 무엇이라고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參考人 崔萬立 잘 기억이 안 나요.

○咸承熙 委員 보통 金雲龍 위원을 미키 김이라고도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까?

○參考人 崔萬立 옛날에는 그랬던 것 같은데 최근에는 닥터 김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咸承熙 委員 왜 미키라는 별명이 붙었나요?

○參考人 崔萬立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咸承熙 委員 또 하나만 묻겠습니다.

6월 29일과 6월 30일 아침 7시에 유치위원 간부들끼리 대책회의를 한 적이 있지요?

○參考人 崔萬立 그렇습니다.

○咸承熙 委員 거기에 부위원장도 참석했습니까?

○參考人 崔萬立 했습니다.

○咸承熙 委員 거기에서 한 번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까? 소위 金雲龍 위원의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네 명의 IOC 위원들이 金雲龍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당선시키기 위해서 올림픽 유치는 오히려 밴쿠버 쪽을 위해서 뛰고 있다는 얘기를 본인이 孔魯明 위원장에게 보고를 하면서 "우리가 무엇인가 특별한 액션을 취해야 되겠다."라고 孔魯明 위원장에게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參考人 崔萬立 예, 그것은 사실입니다.

○咸承熙 委員 그때 상황을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參考人 崔萬立 영향력 있는 IOC 위원인데, 그 사람은 제가 밝힐 수가 없는데, 그 분은 金 위원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주일 전에 도착했기 때문에 활동하는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음해공작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것에 대처해야 된다고 해 가지고, 밴쿠버를 지지하는 어떤 IOC 위원이 4명이라고 기명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 사람 얘기가 "평창은 2014년, 그리고 IOC 부위원장에는 金雲龍"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닌다는 것이에요.

○咸承熙 委員 그 얘기는 어디서 들었습니까?

○參考人 崔萬立 그것은 29일 아침 8시에 그 사람이 제 방에 와서……

○咸承熙 委員 그 IOC 위원이?

○參考人 崔萬立 그렇습니다.

○咸承熙 委員 위원장 방에 찾아올 만큼 부위원장과도 평소에 가까운 사이입니까?

○參考人 崔萬立 가까웠습니다. 제가 81년에 OCA 개발위원장 할 때 사무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친한파로서 한국을 지지하는 사람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잠깐만요. 구체적으로 지적될 사항은 되도록 피해 가면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咸承熙 委員 누구라고 상상이 될 얘기는 국익을 위해서 좀 피해 주었으면 합니다.

○參考人 崔萬立 알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사람이 "빨리 닥터 김을 불러서, 사실 이것 아니다. 평창을 위해서 앞에서 뛰게 해 달라." 그래서 저는 와서 보고를 했습니다. "닥터 김을 빨리 모셔다가 그 양반이 영향력을 행사하게 해 달라. 전면에 나서서 평창, 평창만 해 달라, 그러면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긴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유치위원회에 보고를 했고 孔魯明 위원장, 지사, 장관에게까지 "빨리 김 박사를 불러라.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咸承熙 委員 부위원장에게 그 말을 전해준 IOC 위원이라는 분 말에 의하면 金雲龍 위원이 "평창은 2014년이다. 개최지는 밴쿠버다." 이렇게 하고 돌아다니라고 시키더랍디까, 아니면 자기

생각이랍디까?

○**參考人 崔萬立** 그것은 자기 생각으로 자기 정보를 전부 다 총망라해서 저하고 의논했습니다. 그 사람이 전략을 짰거든요.

○**咸承熙 委員** 그 IOC 위원이요?

○**參考人 崔萬立** 예, 아주 고마운 분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는 틀림없이 된다, 저도 그 느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빨리 닥터 김을 모셔다가 해라." 그래서 제가 물었더니 닥터 김이 7월 1일에 오신다고 해서, 그래서 6월 30일에 오시는 것으로 압니다.

○**咸承熙 委員** 알겠습니다.

尹康老 사무차장님, 2010년 평창 유치라는 큰 과제와 그 다음 날에 있을 선거에서 金雲龍 위원이 IOC 부위원장이 되는 것 이 두 가지가, 어쨌든 우리나라로서는 둘 다 다 자랑스럽고 바람직한 일인데 이 두 가지 페이버(favor)가 우리에게 동시에 주어지지 않을 것은 틀림없나요?

○**參考人 尹康老** 그것은 IOC 위원들의 성향에 따라 다릅니다마는 일반적으로 "IOC는 두 개의 꽃을 한 나라에 주지 않는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咸承熙 委員** 부위원장 자리도 꽃 중의 하나입니까?

○**參考人 尹康老**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咸承熙 委員** 두 개의 꽃을 한 나라에 동시에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평창이 되면 부위원장은 나가나 마나 당연히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본인은 부위원장 자리에 집착을 한 나머지 평창 유치에 소극적이었다고 볼 수 있고 더 나아가서 문제될 만큼 적극적으로 방해했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 아닙니까?

○**參考人 尹康老** 저는 사실 사무국 직원이기 때문에 그런 정책적인 데까지는 말씀……

○**咸承熙 委員** 그래도 본인이 현지에서 관찰해 보기로는 IOC 위원을 가장 많이 접촉한 실무위원 중의 한 사람이었던 것은 틀림없지 않습니까?

○**參考人 尹康老** 예, 맞습니다.

○**咸承熙 委員** 그러니까 본인이 겪어본 바에 의하면 지금 최만립 부위원장이 말하듯 "Don't vote for Pyeongchang" 이런 식으로 말하고 다니는 IOC 위원은 있었습니까?

○**參考人 尹康老** 저는 그 얘기는 직접 듣지 못했습니다.

○**咸承熙 委員** 간접적으로 누구한테 전해 들은 적은 있습니까?

○**參考人 尹康老** 간접적으로는 최만립 부위원장님이라든지 孔魯明 위원장님이 걱정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咸承熙 委員** 그것은 간접적이고, 본인이 더 IOC부분에 대해서는 발이 넓고 활동범위가 넓었잖아요, 본인도 들은 소리가 있을 것 아닙니까?

○**參考人 尹康老** "Don't vote for Pyeongchang"이라는 말은 저는 그 이후로서는 제가 사실 金雲龍 위원님께서 KOC 위원장을 9년 혹은 10년을 하실 적에 제가 국제관계를 보좌해 드렸기 때문에 아마 말씀하시는 분들이 저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안 했지 않았나 그런 추측은 갑니다.

○**咸承熙 委員** 가까운 줄 알고 일부러 안 했다는 것이지요?

○**參考人 尹康老** 그랬을 소지가 있습니다.

○**咸承熙 委員** 그러면 본인이 어쨌든 부위원장 자리에 대한 사욕이 앞선 나머지 평창 유치에 대해서 비교적 소극적이었다고 하는 것은 느낌상으로 윤강로 차장도 받은 것이지요?

○**參考人 尹康老** 저도 그런 것은 받았습니다.

○**咸承熙 委員** 나도 받았으니까…… 구체적으로 이런 점에서 대단히 소극적인 것 같다, 그 양반 능력과 성격으로 봐서 평소 같았으면 이렇게 했을 텐데 그렇게 안 하는 것으로 봐서 사욕이 앞선 것 같다 이런 것을 한번 예를 들어보세요.

○**參考人 尹康老** 제가 볼 때는 金雲龍 위원님은 IOC 사정에 누구보다도 정통했기 때문에 IOC 위원회 내부의 정보로 보면 사실 그 당시에 평창이 3위입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에 굉장히 영향을 받으신 것 같고 5월 중순에 우리가 마드리드에서 IOC 집행위원회와 동계종목연합회에서 프리젠테이션한 이후로 평창의 인지도와 신인도가 상당히 올라가고 있는 중이었는데 그때도 전부 반신반의하고 투표 전날도 외신기자들은 밴쿠버에 기울고 있다 그래서 金 위원님께서 한국인이 아니고 국제인의 입장으로 아마 그런 생각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咸承熙 委員** 최 사무총장님 나오셨으니까 한마디 하시지요.

소극적이었다는 데 대한 공감은 대체로 우리가 느끼는 것 같은데 문제는 "Don't vote for Pyeongchang"이라고 하고 다녔는지?

金龍學 위원이 제기한 문제는 그것입니다. 두 가지 꽃이 주어지지 않으니까 먼저 투표하는 평

창이 유치되면 그 다음날 투표하는 부위원장은 안 될 것 같으니까 부위원장 자리에 욕심이 난 나머지 이것은 찍지 마라, 다음에 해도 된다 이러고 다녔다는 것이지요? 그러한 金龍學 위원의 주장과 내가 소극적이었다는 것까지 모르지만 어떻게 내가 한국인의 탈을 쓰고 한국을 찍지 마라 하고 다녔겠나라고 하는 金雲龍 위원의 주장에 어느 것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봅니까? 그 당시에 가장 실무적이고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지 않습니까?

○參考人 崔勝浩 위원께서 소극적이었다는 데 대해서는 유치위에서는 확실한 공감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사무국 사무총장이고 물론 윤강로 사무차장이 국제적으로 체육분야에 많이 종사했지만 어디까지나 사무국 직원입니다. 국회로 말하자면 의원 여러분들과 사무처의 차이로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IOC 위원들이 과연 사무국 사람들한테 그러한 말을 하겠느냐 하는 것은 의문이 듭니다. 그러므로 저도 그러한 얘기를 들은 일은 없습니다.

○咸承熙 委員 결론만 내겠습니다. 직접 들은 것은 없다하더라도 金龍學 위원의 주장과 부인하는 金雲龍 위원의 주장, 어느 것에 더 신빙성이 간다고 보십니까?

○參考人 崔勝浩 저로서는 최만립 부위원장께서 대단히 화가 나시고 보고하시고 하는 것을 옆에서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믿습니다.

○咸承熙 委員 거기에 더 무게가 주어진다?

○參考人 崔勝浩 그렇습니다.

○咸承熙 委員 좋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나중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다음 위원님들 질의하시기에 앞서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위원님들이 모두 참석하시지 않은데다가 충분히 질의·응답에 응하는 것이 좋겠다고 그래서 양당 간사들과 협의를 해서 질의시간을 15분으로 5분을 연장을 했습니다. 먼저번 질의시간과 같게 정한 것입니다. 그 점 양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한나라당의 崔燉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燉雄 委員 강원도 강릉 출신 崔燉雄 위원입니다.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위원들한테 우리 강원도민들은 맨 처음 뉴스가 들렸을 때 선전을 했다, 51표나 땄다 그리고 재투표에서 2표를 더 따서 아쉽게 밴쿠버에 뺐겼지만 그동안에 유치추진위원들한테 고마운 마음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2014년 평창 유치를 위해서 다시 한번 결의를 다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후에 신문지상에 金 위원장이 현지에서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지금 경제불황으로 침체되어 있는 강원도민의 정서를 완전히 자극을 해서 지금 분개해 마지않고 있습니다. 아마 모르기는 합니다마는 金雲龍 위원께서 강원도에 잘못 가시면 돌팔매질까지 당하지 않을까 하는 분위기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체코의 프라하에 갔다가 돌아온 지 이틀만에 다시 미국에 갔습니다. 미국에 가서 많은 교포들, 친지들을 만났습니다. 거기서 한국의 신문들을 보고 모두 金雲龍 위원이 매국노가 아니냐, 이런 사람을 IOC 위원으로 모시고 있느냐 이렇게 분개하는 얘기를 만나는 사람한테마다 들었습니다. 특히 제가 강원도 출신이라고 그래서 위로겸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평소에 존경하던 金雲龍 IOC 위원께서 이러한 일련의 일들에서 정말로 이런 말씀을 하고 다니셨는지 의아하게 생각되고 다시 한번 金 위원을 보게 되었습니다.

몇 가지만 최만립 부위원장께 묻겠습니다.

咸承熙 위원께서 대부분 주요한 사항은 다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중복된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지금 최 부위원장님은 연령이 金雲龍 위원하고 세 살 차이시지요?

○參考人 崔萬立 예.

○崔燉雄 委員 그래서 30년 동안 체육계에서 자주 만나시고 계셨겠습니다.

○參考人 崔萬立 예.

○崔燉雄 委員 그리고 최 부위원장님의 가훈은 '국가와 민족을 위한 봉사' 그리고 생활신조가 '적극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이런 가훈을 가지고 계시지요?

○參考人 崔萬立 예.

○崔燉雄 委員 그러면 IOC의 생리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

○參考人 崔萬立 좀 알고 있습니다.

○崔燉雄 委員 그러면 아까도 여러 번 말씀 나왔습니다마는 유치와 부위원장 선출 두 가지를 다 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지요?

○參考人 崔萬立 제 생각으로 30년을 IOC나 국제관계를 보니 그들의 생리를 좀 압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매터도어 작전도 있고 밴쿠버가 2014년을 많이 흘렸습니다. 한국은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2014년에 하는 것이다 그래서 밴쿠버의 위원들이 회의할 때마다 그런 얘기를 흘려서 제가 아주 상당히 곤욕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이 맨 처음에 제 분석에 50표가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생겨 가지고 金雲龍 총재께서 조금만 앞장서 주시면 56표로 1차에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회에 보고하고 '빨리 적극적으로 金雲龍 총재를 모셔오라, 끌어들이라, 별도로 노는 것은 좋지 않다, 우리가 하나의 입으로 나가야 되지 않느냐' 제가 충정어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안 되었기 때문에 너무 가슴이 아프고 섭섭하고 사실 지금 이 자리에 제가 이렇게 나온 자체가 상당히 부끄럽고 슬프기 짝이 없습니다. 빨리 이것을 끝내 가지고 새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崔燉雄 委員 지금 제가 질의한 것은 올림픽 개최와 IOC 부위원장 피선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느냐, 그러한 상례가 있었느냐는 얘기입니다.

○參考人 崔萬立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선 맨 처음에 그것만 되면 부위원장 관계는 끝난 다음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때도 할 수 있으리라 저는 믿었습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프라이어리티(priority), 우선순위가 국가사업 평창이기 때문에 평창에 앞장서 주고 그다음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崔燉雄 委員 金雲龍 IOC 위원께서 현지에 가시기 전에 평소에 한국에서도 '2014년에 평창은 가져올 수 있다.' 이러는 얘기를 수차 저도 들었는데 거기 가셔서 IOC 위원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들은 적이 있지요?

○參考人 崔萬立 저는 직접·간접적으로는 못 듣고 친한파 IOC 위원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전해 왔습니다. 그 사람 얘기는 밴쿠버를 작전하는 사람이, 누구라고 얘기하면 안 되겠습니다마는 어떤 TV 관계하는 분인데 그 사람은 밴쿠버에 유치되어야 여러 가지 스폰서쉽 머니(sponsorship money)든가 경제적으로 혜택을 많이 보기 때문에 그쪽을 편들면서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 사람이 金 위원과 어떠한 관계를 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崔燉雄 委員 국내에서 무주하고 경합했을 때 2010년에는 평창에서 유치해 보고 만일 그것이 안 되면 2014년에는 무주에서 유치한다는 합의각서를 교환했다고 그럽니다. 그때 金雲龍 IOC 위원께서 그것을 중재한 것 아닙니까? 그것 잘 아시지요?

○參考人 崔萬立 저는 그때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내용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崔燉雄 委員 잘 몰라요?

○參考人 崔萬立 예.

○崔燉雄 委員 그런데 저희들이 듣기에 틀림없이 金雲龍 IOC 위원께서 중재하셔 가지고 그렇게 타협을 봤다고 그러는데 본인이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으면서 2014년에 평창을 유치하면 된다는 말씀을 또 하시는 것은 도저히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라는 말입니다. 청와대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崔 부위원장께서는 그것이 이해가 안 가시지요? 단답식으로 말씀해 주세요.

○參考人 崔萬立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崔燉雄 委員 盧武鉉 대통령께서 유치 추진하시는 분들을 청와대에 초대하셔서 식사하시는 자리에서 金雲龍 위원께서 '어느 나라나 단번에 되는 법이 없다. 그래서 2014년에 되도록 지금부터 정지해 나가야 된다.' 이런 것을 말씀드려 가지고 거기서 孔魯明 유치추진위원장께서 깜짝 놀라 가지고 그것이 무슨 말씀이냐 이렇게 얘기한 기사가 신문에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金雲龍 위원께서 중재를 그렇게 해 놓으시고 2014년 평창 얘기를 한다는 것은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올림픽 개최하고 부위원장 피선 관계는 어느 나라나 전통적으로 두 가지 다를 같은 해, 같은 장소에서 딸 수 없다는 것이 불문율로 되어 있다는데 그 얘기는 들은 적이 있으시지요?

○參考人 崔萬立 예, 있습니다.

○崔燉雄 委員 부위원장은 평창이 탈락된 다음에 한 것이니까 유치하고는 아무 상관없다고 말

씀하고 계세요. 그러나 벌써 그 전에 사마란치 전 IOC 위원장께서는 金雲龍 IOC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해야 된다는 얘기를 사방에 대고 하셨답니다. 그 얘기는 공지의 사실이지요. 그런데 어떻게 되어서 본인은 '절대 그것은 내가 얘기한 것이 아니고 나는 몰랐다. 그리고 밴쿠버가 결정된 다음에 내가 부위원장에 나갔다. 그러니까 아무 상관없다.' 이러는데 그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부위원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參考人 崔萬立 저는 사마란치가 얘기한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崔燉雄 委員 알겠습니다.

崔勝浩 사무총장님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외무고시에 합격하셔 가지고 30여 년 동안 외무부에서 종사하셨지요?

○參考人 崔勝浩 그렇습니다.

○崔燉雄 委員 그래서 IOC의 기질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요?

○參考人 崔勝浩 잘 안다고까지는 할 수 없겠습니다.

○崔燉雄 委員 그럼 잘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 왜 사무총장은 맡으셨어요?

○參考人 崔勝浩 다만 제가 사무총장으로 일하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崔燉雄 委員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부위원장하고 유치하고 동시에 따올 수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까, 그런 선례는 없었다고 들었습니까?

○參考人 崔勝浩 그 점에 관해서는 제가 사실은 자료를 취합했기 때문에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두 개는 별도의 사안이고 상관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절대다수는 두 개 유치 기대는 하지 말라는 의견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것은 다 공개된 사실이기 때문에 말씀드려도 좋겠습니다마는 일본이 나가노 동계올림픽을 유치할 당시 일본의 IOC 위원이 부위원장 출마를 하려고 했었는데 나가노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서 부위원장 출마를 포기시켰다는 얘기를 저희들이 보고받은 바 있습니다.

○崔燉雄 委員 현장에서 高建 총리가 부위원장 출마를 사퇴하라고 종용했다는데 얘기를 들으셨지요?

○參考人 崔勝浩 들었습니다.

○崔燉雄 委員 그런데 총리한테는 묵묵부답하셨습니까, 나간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안 나간다고 말씀하셨습니까?

○參考人 崔勝浩 저는 마지막 7월 1일 李滄東 문광부장관, 金雲龍 위원님, 총리 세 분이 조찬을 하시면서 하신다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그 내용은 즉시 바로는 듣지 못했습니다.

○崔燉雄 委員 신문지상에는 高建 총리께서 사퇴를 종용했는데 불응하셨다고 나와 있거든요.

○參考人 崔勝浩 조찬 후에 저도 그렇게 전해 들었습니다.

○崔燉雄 委員 알겠습니다.

지금 金雲龍 IOC 위원께서 17년간을 IOC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參考人 崔勝浩 예.

○崔燉雄 委員 그런데 지금 후계자 양성은 전혀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아니면 IOC의 모든 일은 할 수가 없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는 것이 비판적인 스포츠지에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參考人 崔勝浩 언론에 상당히 그렇게 보도되는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崔燉雄 委員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李昌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昌馥 委員 강원도 원주 출신 李昌馥 위원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동계올림픽 유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것도 겨우 3표 차이로 애석하게 실패함으로 인해서 강원도민은 물론 유치위원회에 관련했던 모든 분들이 낙담하고 안타깝게 생각하는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흘러오고 있는데 그것은 있을 수 있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원주 출신으로서 유치가 성공하기를 퍽 바랬고 능력은 없었지만 개인적으로 활동을 하느라 했었습니다. 그러나 유치위원회와 직접적인 연관 속에서 이루어진 것은 없기 때문에 제가 자랑 삼아서 얘기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든 강원도민은 또 유치위원회에 관계하신 분들은 어떻게 해서 실패하게 되었는지 실패원인을 분명하게 규명하기를 바라고 있고 또 그 실패원인을 강원도민은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崔勝浩 사무총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무총장께서는 실무를 총괄하시고 또 총장이라는 직위가 모든 일을 공정하게 처리하는 자리여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패하고 돌아온 후에 유치위원회에서는 어느 단위에서든 평가분석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參考人 崔勝浩 실패원인에 관해서 광범위하고 본격적인 평가는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李昌馥 委員 유치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실패원인에 대해서 결론을 내린 적이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參考人 崔勝浩 아직은 공식적인 토의와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李昌馥 委員 바로 그런 점이 제가 보기에는 유치위원회가 조금 무책임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사람에게 충격을 주었고 도민들이 분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인데 공식기구인 유치위원회에서 거기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없었다고 하는 것은 그 기능으로 미루어볼 때 방심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參考人 崔勝浩 사실 저희들이 유치활동이 끝나는 대로 바로 종합적인, 총체적인 활동결과를 만들자 그런 토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런 상황 때문에 지연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李昌馥 委員 그래서 제 판단으로는 유치위원회의 공식적인 평가가 있기 전에 예를 들면 우리 존경하는 金龍學 위원이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먼저 문제제기한 것은 제기하는 순서로 볼 때 정확했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參考人 崔勝浩 저희들로서는 대체로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유치위원회는 이구동성으로 모두가 상당히 분괴한 상태였습니다.

○李昌馥 委員 두 번째로 묻고 싶은 것은 유치위원회에서 동계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한 모든 프로그램과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적절하게 사람에 따라 역할을 분담하는 역할도 해 오셨지요?

○參考人 崔勝浩 최대한 노력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李昌馥 委員 제가 그 점에 대해서 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金雲龍 위원님은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같은 상임위원회에 있으시고 또 지난 2월에 북핵문제로 구라파로 출장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불란서, 불가리아, 이태리를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이때 제가 옆에서 보기에는 그때도 올림픽 위원들을 만나면서 유치활동을 열심히 하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불란서에서도 불란서 IOC 위원뿐만 아니라 튀니지에서 온 IOC 위원도 일부러 불러서 만나고 열심히 하시는 것을 보고 그런데 또 한편으로 金 위원님께서는 불만스러운 말씀도 있고 해서 제가 돌아온 후에 전화를 드렸습니다. 지사님이 출장 중이어서 안 계시더군요. 그래서 기획관리실장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서 金雲龍 위원님께서 상당히 활동을 열심히 하셨는데 동시에 이런 어려운 점도 있고 하니까 金雲龍 위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계했으면 좋겠다 이런 전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후 강원지사님이 돌아오신 다음에 지사님을 직접 뵙고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때 강원지사님의 반응은 제가 만족할 만큼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하기를 기대했는데 그렇지 않은 인상은 아니었습니다.

어떻든 저는 金雲龍 위원께서 동계올림픽을 유치하는 데 부정적이었다고 하면, 소극적이었다고 하면 더 적극적으로 金雲龍 위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침을 세웠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것에 대한 질의를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參考人 崔勝浩 저로서는 孔魯明 위원장을 비롯하여 강원지사, 그리고 정부 李滄東 장관께서도 그러한 방향으로 대단히 큰 노력을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李昌馥 委員 고맙습니다.

지금 외신보도를 보면 IOC 한 개인에게 최종적인 책임을 묻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기사가 나오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參考人 崔勝浩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李昌馥 委員 제가 몇 가지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7월 4일자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남북화합을 호소한 프리젠테이션의 감동이 10표차 정도의 동정표를 더 얻은 것으로 유치단은 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1차 회의에서 51표, 10표 차가 났는데 이 10표 차 행방은 프리젠테이션을 잘 해서 감동을 얻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金 위원에게 전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겠느냐 하는 의구심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參考人 崔勝浩 사실 언론의 그러한 분석은 근

거가 정확치 않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李昌馥 委員 물론 정확도에 있어서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겠지요. 그러나 그런 흐름도 있다는 것은 이해가 되시겠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參考人 崔勝浩 그 점에 관해서는 저로서도 아직 명확한 인식을 갖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李昌馥 委員 또 하나 제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코리아타임스에 보도된 것입니다. 사마란치 올림픽 전 위원장이 올림픽 유치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金雲龍 위원의 IOC 부위원장 출마가 평창의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았으리라 믿는다고 말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보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參考人 崔勝浩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두 개는 서로 별개일 것이라고 말하는 분도 일부 계셨습니다마는 절대적으로 많은 다수는 두 개를 한 나라에 주는 것은 곤란하다, 특히 金 위원께서 부위원장 출마를 포기하는 것이 유치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를 한 사람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李昌馥 委員 고맙습니다. 제가 프라하에 가지 못해서 구체적인 상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측의 프리젠테이션에서 金雲龍 IOC 위원께서 부위원장 불출마선언을 했으면 참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선언이 그렇게 표를 움직이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參考人 崔勝浩 결정적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정의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마는 최소한 상당한 표의 이동을 불러왔을 것이라고는 생각합니다.

○李昌馥 委員 저로서는 참으로 불행한 사태가 되고 말았다고 생각되는데, 이제 앞으로 강원도는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실 생각이시지요?

○參考人 崔勝浩 기회가 어떻게 될지 현재 저로서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李昌馥 委員 그렇다고 하면 의지가 있으시다는 겁니까, 없으시다는 겁니까?

○參考人 崔勝浩 불러서 같이 하자는 제의가 있으면 저는 힘껏 최선의 노력을 할 용의가 있습니다.

○李昌馥 委員 그런데 이 문제가 평창이 되었든 무주가 되었든 분쟁의 소지는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시지요?

○參考人 崔勝浩 예, 그렇습니다.

○李昌馥 委員 결국은 우리 한국으로 유치하는 문제라는 측면에서 볼 때 앞으로 우리가 미래지향적인 판단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현재 우리 金雲龍 위원이 IOC에서 사퇴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계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參考人 崔勝浩 현 시점에서 저로서는 판단하기 대단히 어려운 질의라고 생각합니다.

○李昌馥 委員 아직 판단이 안 서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제가 사무총장님께 여쭤보는 것은 가장 공정한 판단을 하실 것이라고 판단되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앞으로 동계올림픽을 한국에, 특히 가능하면 평창에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이번에 애석하게 실패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성공적으로 이끌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더 농후해졌다고 판단해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문제를 비화시켜서 정치적 문제로까지 또 국제체육계의 문제로까지 비화되는 것을 원하십니까?

○參考人 崔勝浩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주냐 평창이냐라는 국내적인 문제, 이것은 빨리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특히 저로서는 IOC 평가위원단을 맞아들이고 평창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받는 과정에서 특히 다운힐(down hill), 활강경기장은 마라톤 경기처럼 동계올림픽의 가장 찬란한 꽃입니다. 그 경기장은 진실로 환경훼손이 최소화되는 방향에서 대응하지 않으면 유치가능성이 대단히 떨어진다는 점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李昌馥 委員 고맙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제가 나머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창유치 실패는 참으로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 못한 그러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잘 되면 다 내 탓이고 잘못 되면 네 탓'이라고 하는 이러한 속성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성찰해 가면서 부족했던 점을 더 보완하고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바로 고쳐서 앞으로 2014년에는 동계올림픽이 우리 한국에, 가능하면 평창에 유치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방향에서 우리 특위의 논의와 사회여론이 조성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李昌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한나라당의 金映宣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金映宣 委員 尹康老 참고인에게 묻겠습니다.

통역하신 지는 얼마나 되시고 체육회나 국제사무를 담당하신 지는 얼마나 되십니까?

○參考人 尹康老 저는 1982년 9월 1일부로 대한체육회 대한올림픽위원회에 입사해서 21년간 국제업무만 맡아 왔습니다. 그리고 통역은 제가 통역대학원을 다녔습니다마는 처음에 입사해서 고 정주영 회장 시절에 영어, 불어로 IOC 위원들이라든지 각국 스포츠 장관 여러 분이 오셨을 때 몇 년간 통역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통역을 별로 안 했습니다.

○金映宣 委員 그러면 세계적인 규모의 국제회의 경우에 큰 세계적인 행사와 부위원장 자리는 통상적으로 한꺼번에 한 나라에 주지 않는다는 것은 일반적인 관례지요?

○參考人 尹康老 그것이 IOC 규정이나 그런 데에 명시된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말들을 하는 IOC 위원들이 많은 편입니다.

○金映宣 委員 그 많은 것이 이번에만 그런가요, 수십 년 동안 그런 관례가 있어 왔나요?

○參考人 尹康老 제가 올림픽 유치활동에 직접 뛰어들어 보기는 처음이기 때문에……

○金映宣 委員 그러니까 체육회에서 일을 하시니까 전반적으로 국제대회의 경우에 행사와 위원장을 동시에 주지 않는 것이 이번 동계올림픽만 그렇습니까, 아니면 일반적인 국제대회의 관례가 그렇습니까?

○參考人 尹康老 국제관례가 그렇다고들 IOC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金映宣 委員 그러면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에 있어서 金雲龍 위원께서 부위원장에 출마 의사가 있다더라 또는 그런 기사가 났다더라 이런 얘기를 종종 들었습니까, 아니면 한 번 정도 들었습니까, 전혀 듣지 못 했습니까?

○參考人 尹康老 종종 들었습니다.

○金映宣 委員 그 종종 들은 말을 회의장에서만 들었습니까, 아니면 한국에서 출발하기 전부터 그런 얘기가 있는 것을 알았습니까?

○參考人 尹康老 이것은 저 혼자 소유하고 있는 첩보도 아니고 공공연하게 유치위원회가 여러 가지 각종 경로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접해 온 바 있습니다.

○金映宣 委員 한국에서 떠날 즈음에 한국에서도 그런 얘기를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參考人 尹康老 그렇습니다. 저도 유치위원회에 몸을 담고 있기 때문에 같이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金映宣 委員 그리고 尹康老 참고인께서 아까 말씀하시기를 金雲龍 위원께서 IOC 사정에 능통하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金雲龍 위원께서도 일반적인 국제대회가 그러하다는 것, 특히 IOC가 그러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봐야 되겠지요?

○參考人 尹康老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金雲龍 위원님의 마음 속까지 읽을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통례적으로 그런 얘기가 도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金映宣 委員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 5월 중순쯤 마드리드 프리젠테이션 이후에 인지도가 올라가고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참고인 혼자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까? 아니면 한국 유치인단 전체가 '이것 조금만 잘 하면 되겠다.' 이런 느낌을 가졌습니까?

○參考人 尹康老 그 얘기는 마드리드에서 끝나고, 저희는 마드리드회의 끝날 때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남아 있을 때 저희가 프리젠테이션을 경쟁도시인 밴쿠버, 잘츠부르크, 평창이 다 공히 한 가운데 저와 친분이 있는 IOC 집행위원 몇 분으로부터 그날 유치설명회가 끝난 후에 저녁모임에서 삼삼오오로 평창에 대한 얘기만 나왔다, 잘츠부르크나 밴쿠버 얘기는 별로 안 나오고 평창의 프리젠테이션이 아주 훌륭했기 때문에 인지도와 신인도가 높고 지금부터 조금만 열심히 하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부 격려의 말을 하더라는 말을 여러 차례 전해 들었습니다.

○金映宣 委員 그러면 참고인이 생각하기에 그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한 51% 정도입니까, 한 80% 이상이라고 생각했습니까?

○參考人 尹康老 제가 볼 때 가능성이라는 것은 어디든지…… 1988년 서울올림픽을 유치했던 바

덴바덴부터 이번 2010년 동계올림픽 때까지 가능성 가지고 된 도시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성을 여기서 점치긴 뭐하고, 우리가 상당히 상승약진하고 있고 가장 알려진 도시가 지금은 최소한 IOC 집행위원들 입에 회자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상당히 희망이 있다는 얘기를 많이 전해 들었습니다.

○金映宣 委員 그러니까 '조금만 더 하면 된다'라는 것이 '거의 되겠다'라고 예상을 하신 것이겠지요?

○參考人 尹康老 그렇습니다.

저희도 운동시합과 투표는 변수가 많기 때문에 뚜껑 열어 볼 때까지 모른다는 金雲龍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부지런히 유치활동도 하지만 겸해서 한국이 자랑하고 있는 최고의 시설, 최고의 조직력 그다음에 한국인의 손님접대 그다음에 정부의 강한 지원, 국민들의 환호성, 역대 FIFA월드컵이라든지 서울올림픽의 그 평판이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흐름으로 간다면 윤리위원회 규정상 로비를 전부 잘 못하기 때문에 마지막 단계 프리젠테이션만 잘 하면 저희들이 워낙 친한 IOC 위원들도 많고 金雲龍 위원의 표도 많기 때문에 그대로 나가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공산이 많다고 희망차 해 왔습니다.

○金映宣 委員 金雲龍 위원의 표가 있기 때문에 희망찼다고 하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실패한 것에 있어서 金雲龍 위원이 움직일 수 있는 표가 그 결과에 플러스 쪽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까, 마이너스 쪽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까?

○參考人 尹康老 저는 사실 IOC 위원들도 많이 알고 접촉을 했지만 제가 신분이 사무국의 사무차장입니다. 따라서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왈가왈부 어떤 판단을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조금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金映宣 委員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부적절하면…… 아까 말씀이 조금만 더 하면 거의 다 되었다라고 했는데 어쨌든 金雲龍 위원님이 행사할 수 있는 표가 되는 쪽으로는 작용이 안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고비를 넘기지 못한 것 아닙니까?

○參考人 尹康老 그것에 대해서는 지난 7일에 여기 증인으로 참석하신 李滄東 문화관광부장관님 그리고 孔魯明 위원장님, 金振兢 집행위원장 겸 도지사 그리고 이현택 KOC 위원장께서 말씀을 다 하셨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다시 반복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金映宣 委員 그분들의 견해에 동의하십니까?

○參考人 尹康老 유치위원회 일원으로서 동의합니다.

○金映宣 委員 아까 말씀이 마지막 회의에서 밴쿠버로 가는 데 있어서 金雲龍 위원께서 한국인의 입장보다 국제인의 입장을 취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입장이 어떻게 다릅니까?

○參考人 尹康老 잘 아시다시피 평창의 장점은…… 사실 우리 평창 프리젠테이션에 내세운 모토는 "try something different"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discover hidden treasure" 숨겨진 보물을 찾아라, 입니다.

다시 말해서 저희는 외신언론이라든지 IOC 위원들한테도 절대 과신하지 않고 겸손하게 착실하게 내실을 다져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확신을 어디에 공개한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프라하에서의 큰 기적을 기대한 것이 사실입니다.

○金映宣 委員 그러니까 국제인의 입장이라고 하는 것은 평창이 프리젠테이션 하는 그 입장을 金雲龍 위원께서는 적극 지지한 것이 아니라 이미 알려져 있는 국제적인 지명도에 무게를 더 주었기 때문에 金雲龍 위원의 태도라는 것은 결국에 평창의 프리젠테이션에 도움이 되지 않는 쪽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해석해도 됩니까?

○參考人 尹康老 저희가 아는 것은 프리젠테이션은…… 다시 말해서 제가 IOC 선수 요원들을 현장에서 많이 접촉을 했습니다.

그분들은 동계올림픽의 올림피안, 또 하계올림픽의 올림피안으로서 올림픽운동의 기본적인 가치라든지 올림픽운동의 나아갈 바, IOC의 미래에 대해 상당히 관심을 가진 그런 IOC위원들 부류이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 제가 그랬습니다. "평창을 찍지 마라." 그러면 놀랍니다. "잘츠부르크도 찍지 마라, 밴쿠버도 찍지 마라, 올림픽운동을 찍어라." 그래서 IOC 선수 요원들이 상당히 공감대를 많이 형성했습니다.

그래서 프리젠테이션을 듣고 가장 적절한 올림픽운동이 나아갈 바를 제시하는 유치 도시를 찍는 것이 IOC 위원으로서의 포부와 본분이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프리젠테이션에 상당한 비중을 두었습

니다. 왜냐하면 윤리규정에 의해서 로비라든지 어떤 활동들이 세 도시에 크게 먹히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프리젠테이션, 5월 2일에 발표한 IOC평가위원회의 보고서 그다음에 간간이 마드리드라든지 부에노스아이레스, 오뽀르토에서 개최된 공식적으로 주어진, 또 쿠웨이트에서 개최된 OCA 총회에서 세 도시 간 프리젠테이션이 기본 방향이 되었고, 이어서 프라하에서의 프리젠테이션이 감동을 주었을 경우 저희는 이길 수 있다는 성향 분석을 네 갈래, 다섯 갈래로 다 해서 나름대로 1차에서도 이길 수 있다 그러나 잘못하면 모르는 데는 평창이 좀 과욕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전제하에 우리는 상당히 조심스럽게 그러나 희망을 가지고 임했습니다.

○金映宣 委員 그것에 있어서 金雲龍 위원께서는 그런 입장을 도와주셨습니까, 방해하셨습니까?

○參考人 尹康老 저는 金雲龍 위원을 거기서 직접 접촉한 바가 없기 때문에 프리젠테이션에는 프리젠터로도 참가했고 또……

○金映宣 委員 아까 金雲龍 위원께서 한국인의 입장보다는 국제인의 입장을 취했다라고 하셨는데 그 의미가 이 대회와 관련해서 도움을 주었다는 얘기입니까, 방해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명쾌하게 얘기하셔야지……

○參考人 尹康老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한국에서 IOC에 대해서 金雲龍 위원만큼 아시는 분이 없습니다.

내부사정에 대해서 더더욱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한국인으로서…… IOC 위원이라는 것은 한국인이 IOC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 내에서 IOC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가 생각할 적에 IOC 위원의 입장으로, 국제인의 입장으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제가 직접 金雲龍 위원님과 같이 이런 대화를 깊이 나눠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판단한다는 것은 조금 주제넘지 않을까 해서 참고말씀만 드립니다.

○金映宣 委員 그러니까 그 얘기는 金雲龍 위원께서 유치위원으로서의 활동보다는 IOC 구성원, 그리고 IOC 부위원장에 목표를 두고 활동을 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얘기입니까?

○參考人 尹康老 저로서는 유치위원회와 고명하신 국회의원님들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金映宣 委員 본인 생각에 국제인의 입장과 한국인의 입장 속에서 한국인의 입장보다는 국제인의 입장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는 말이에요. 유치위원회 역할은 제대로 못하고 IOC 위원으로서의 부위원장만 노린 것이라는 판단을 그 안에 포함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參考人 尹康老 제가 말씀드린 것은 金雲龍 위원님께서 유치활동과 아주 밀접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공개적으로, 장기적으로 한 바가 없다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金映宣 委員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유치위원으로서 유치위원회 자체와의 협조 자체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다는 말씀이시군요.

○參考人 尹康老 거기에 대해서는 김진선 도지사와 金雲龍 위원장 그리고 또 수뇌부들이 문화관광부장관하고 수뇌부 회의를 많이 했습니다.

○金映宣 委員 그분들과 견해를 같이 하십니까?

○參考人 尹康老 같이 합니다.

○金映宣 委員 알겠습니다.

崔勝浩 참고인에게 묻겠습니다.

옛날 일본 나가노 동계올림픽 때 동계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서 일본 부위원장을 포기시켰다라는 보고를 받았다면 그것은 유치위원회에도 보고가 되고 高建 총리나 李滄東 문광부장관도 그런 얘기를 알고 있었다고 봐야 됩니까?

○參考人 崔勝浩 문광부에도 보고는 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金映宣 委員 그러면 高建 총리나 李滄東 문광부장관도 결국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서 그곳에 갔던 것이지요?

○參考人 崔勝浩 그렇습니다.

○金映宣 委員 그러면 金雲龍 위원과 이런 얘기를 했다면 총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장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봐야 하지 않습니까?

○參考人 崔勝浩 그렇습니다.

○金映宣 委員 그러니까 지금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런 유치위원회 활동을 여러 가지 하는 데 있어서 결국 그날 최종적으로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그리고 高建 총리나 장관이 나설 만한 결정이기 때문에 부위원장 불출마 요구를 했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參考人 崔勝浩 그렇습니다.

○金映宣 委員 그러나 결국 金雲龍 위원께서는

이것을 명시적으로 거부하신 것이지요?

○參考人 崔勝浩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金映宣 委員 사무총장으로서 위원을 모시고 있으니 말씀하시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실 텐데, 그러면 만약 사무총장의 직무관할에 행정적으로 판단해서 책임자들이 "이것을 하지 말자"라고 했을 때 그것을 부하가 어기게 되면 징계사유에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參考人 崔勝浩 金雲龍 위원님과 총리와의 관계……

○金映宣 委員 그 관계 말고 부하 직원에게 "이것이 우리 조직의 판단상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했을 때 그것을 어기면 징계사유가 됩니까, 안 됩니까?

○參考人 崔勝浩 특별관계가 있으면 물론 징계사유가 된다고 봅니다.

○金映宣 委員 그러면 결국에는 이것이 국제관계에 관련된 문제이고 또 총리나 장관이 포괄적인 책임을 지는 관계이기 때문에 결국 金雲龍 위원을 징계하지 못할 뿐이지 징계사유에는 해당되는 그런 류의 행위 아닙니까?

○參考人 崔勝浩 저로서는 법적인 어떤 연계는 없다고 봅니다.

○金映宣 委員 없지만 직무상 마땅히 명예직의 책임을 질 만한 사유가 된다고 봅니까?

○參考人 崔勝浩 도덕적·윤리적인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金映宣 委員 조금만 더 질의하면 안 되겠습니까?

○委員長 金學元 추가질의를 하시지요. 왜냐하면 다른 위원님들과의 형평성 관계가 있으니까 이따가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金映宣 委員 예.

○委員長 金學元 다음은 金敬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敬天 委員 민주당의 金敬天 위원입니다.

막연한 설만 가지고 金龍學 위원께서 문제제기를 했는데, 정말 참으로 막연한 것 가지고 이렇게 문제제기를 해서 국내외를 떠들썩하게 하는 데 대해서 정말 유감의 마음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金雲龍 위원님과는 같은 당이지만 별로 이야기를 자주 할 기회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분의 인격을 저는 믿고 싶습니다. 참으로 치열한 경쟁 속에서 IOC 부위원장으로 되시기까지 얼마나 많은 본인의 신임도와 또 국제적인 인정과 또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였는가 하는 데 대해서 평소 존경의 마음을 가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金雲龍 위원께서 쓰신 한 토막의 글을 읽었습니다. "나는 한국 사람입니다. 나는 나의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며 지금까지의 삶 역시 국가와 민족이 그 어느 것보다도 최우선이었음을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하는 내용을 저는 전폭적으로 믿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으로서 자신의 부위원장 자리와 국가적인 일을 바꿀 수 있는 분은 아니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만약 그 구분이 되지 않았다면 철저히 규명해서 정말 진실을 밝히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오늘 코리아타임즈가 보낸 질의서에서 사마란치 IOC 명예위원장은 부위원장과 2010년 평창동계올림픽은 별개라는 이야기를 했고 또 金雲龍 부위원장께서 소극적으로 움직이지 않았다, 평창 유치활동에 부정적이었다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분의 말도 전적으로 믿고 싶습니다.

제 지역구는 광주 동구지만 저는 출생지가 전라북도 무주입니다. 그래서 사실 무주에 유치되는 것을 참 기원했지만 그러나 평창이 결정된 후에 적극적으로 활동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한미동맹 50주년 기념행사에 또 한민족 미주 이민 100주년 기념행사에 가서 저는 영어도 잘 하지 못합니다마는 제가 만난 모든 사람에게 코리아 평창에 유치해 달라는 이야기를 얼마나 간절하고 진실하게 했는지 모릅니다. 물론 밴쿠버나 잘츠부르크보다는 우리가 시설이 약간 미비할는지 모르지만 이 지구상에 유일하게 남아 있는 분단국이고 한반도의 평화는 세계 평화에 직결되는 문제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많은 공감대를 얻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崔勝浩 선생님께서 무주냐, 평창이냐 하는 것이 좀 빨리 결정되었으면 좋겠다고 한 이야기는 대단히 부적절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2014년에 평창에다 유치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아깝게 뺏겼다는 여론을 조성하는 것에 金雲龍 위원을 희생양으로 만든다는 여론도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參考人 崔勝浩 저는 사실 강원도 출신도 아니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평창이냐, 무주냐 이 문제는 단기에……

○金敬天 委員 아니, 그런 이야기를 들으셨습니까? 또 들었다면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만 말씀해 주세요.

○參考人 崔勝浩 그 점에 대해서는 결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金敬天 委員 그러니까 어떤 것을 동의할 수가 없습니까?

○參考人 崔勝浩 金雲龍 위원님을 희생으로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 하는 그런 설은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金敬天 委員 예, 누구나가 다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지금 최만립 선생님께서는 사마란치 IOC 명예위원장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參考人 崔萬立 그 분이 충분히 말씀하실 수는 있을 것입니다.

○金敬天 委員 그러면 그 분의 말씀을 믿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參考人 崔萬立 예, 믿고 싶습니다.

○金敬天 委員 예, 믿고 싶지요, 저도 믿고 싶습니다.

오늘 어느 분이 인터넷에 올린 글인데 참으로 마음에 감동이 왔습니다. "국익을 생각하는 지혜"라는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이 분은 충청도에 계시는 분입니다.

"2010년 동계올림픽 개최 도시를 결정하기 위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총회에서 우리나라 평창은 결선투표에서 3표 차로 캐나다의 밴쿠버에 역전패, 온 국민에게 아쉬움과 함께 우리를 놀라게 했다. 비록 유치에는 실패했지만 월드컵 4강의 신화를 창조하고 88서울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국민답게 짧은 유치 홍보기간에 선전하여 국제적인 이미지를 높이며 선전한 것에 감동을 받았다."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확실한 근거도 없이 여론재판을 통해서 이북의 인민재판처럼 金雲龍 씨를 비판하고 나서는 것은 국익의 차원에서나 그분의 명예에 있어서나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윤강로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參考人 尹康老 저는 말씀드렸지만 일선에서 IOC 위원들과 접촉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저는 평창유치에 전념을 다 했고 그러한 어떤 소문이라든지 판단의 기준은 유치위원회 집행부의 소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나온 것은 일선에서 제가 보고 듣고 느낀 점을……

○金敬天 委員 왜 제가 그것을 묻느냐 하면 꽃은 2개의 꽃인데 둘이 공존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고 했는데 전해 들은 이야기를 가지고 그렇게 확실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參考人 尹康老 그것은 제가 IOC 위원장이 아니고 IOC 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전달해 들을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저는 일선에서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것이지 제가 판단의 기준이나 그런 것을 제정한 사람이 아닙니다.

○金敬天 委員 여기에 또 "IOC는 매우 보수적으로 국제스포츠를 이끌고 있다는 자존심과 명예심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이라는 사실을 이해하여야 한다." IOC에서 만약 국제적인 제소를 해 오면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감당할지 참으로 걱정입니다. 이번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에 대해서 만약 IOC에서 제소한다고 하면 국가적인 망신과 신인도를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하는 내용이 이 글에 적혀 있기 때문에 저도 공감하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며칠 전 이런 글을 연합뉴스에 띄웠습니다. "金 위원장이 유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했을 것이라고 사료된다, 근거 없이 떠돌아다니는 얘기를 갖고 국제스포츠계의 지도자를 여론재판 식으로 몰아세우는 것은 개인에게는 명예훼손일 것이고 국제적 불행이라고 생각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姜錫哉 선생님께 묻겠습니다.

유치위 지원팀의 외신담당자로 활동한 사람으로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金雲龍 위원의 평창유치방해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參考人 姜錫哉 존경하는 위원님들 앞에서 평창유치와 관련되는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을, 우선 진실을 밝히는 차원에서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유치위 지원팀 외신담당자라고 했습니다마는 실지로는 유치위원회의 외신을 도와주기 위한 어떤 다른 업체에서 지원된 것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어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단지 외신보도자료를 도와주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주 임무보다는 보조적인 어떤 임무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신분에서 나왔다기보다는 저는 90년 이후……

○金敬天 委員 아니, 평창유치 방해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단답형으로 해 주세요.

○參考人 姜錫哉 알겠습니다. 90년 이후 세계태

권도연맹의 PR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있었기 때문에 태권도에 대한 사랑과 金雲龍 위원에 대한 존경심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그 사실을 밝히고자 하는 것이 저의 나온 변입니다. 우선 그 답에 대해서는, 평창유치 방해설에 대해서는 전혀 그것은 그런 근거는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金敬天 委員 됐습니다.

그리고 국내기자나 외신기자들로부터 金雲龍 위원 때문에 평창이 불리할 것이라는 얘기를 전해들은 적이 있습니까?

○參考人 姜錫哉 그런 적은 없고 외신보도를 본 적도 없습니다.

○金敬天 委員 그리고 金 위원이 평창을 찍지 말라고 말한 것은 더더군다나 듣지도 보지도 못했겠군요?

○參考人 姜錫哉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金敬天 委員 사실 그때 선거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습니다마는 북한의 핵문제가 평창 유치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였던 만큼은 사실이지요?

자크 로게 위원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할 정도로 매우 민감한 부분이었는데, 프라하 현지에서의 분위기나 외신들의 관심도 상당히 그 점에 논란이 있었나요?

○參考人 姜錫哉 예, 제가 우선 판단하기에는 평창유치위원회가 뒤늦게 시작함으로써 가장 어려웠던 것은 두 가지라고 봅니다.

첫째는 낮은 인지도를 높이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북한 핵문제가 가장 민감하게 대두되었기 때문에 안전문제를 제기하는 것 때문에 유치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봅니다.

첫 번째 인지도 문제에 대해서는, 유치위원회가 밤낮없이 김진선 지사를 비롯해서 했던 것을 옆에서 보아왔기 때문에 정말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그 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북한 핵문제에 대해서는 金雲龍 위원께서 프리젠테이션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강조한 것이 우리의 안전문제에 대해서도 그렇고 평화올림픽을 얘기했기 때문에 그것이 많은 어필을 주었다는 것과 개인적으로는 저도 위원으로서 세계연맹의 일을 했기 때문에, 나오시면서 옆에 측근들하고 이야기할 때 "어때, 프리젠테이션 내가 잘 했지? 특히 나오니까 로게 위원장도 잘 했다고 칭찬했어."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엄청나게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발언과 이런 것을 하셨지……

○金敬天 委員 알겠습니다.

○參考人 姜錫哉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이면, 장웅 북측 IOC위원하고의 관계에 있어서도 전에 스페인에서도 그랬습니다마는 만나서 대외적으로 알림으로 인해서 안전문제는 전혀 지장이 없다는 것을 밝히려고 무단히 노력을 하셨다는 것을 밝혀 드립니다.

○金敬天 委員 바로 그 점을 저도 지적하고 싶은데, 북한의 핵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장웅 위원과 함께 포즈를 취한다든지 해서 그런 문제를 굉장히 해소시킨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자크로케 위원장도 이 점에 대해서 인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金雲龍 위원과 함께 또 민주당의 특위 위원으로서 활동을 하는데, "金 위원, 어쨌든 간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차지해야 될 것 아니겠는가?" 하는 이야기를 몇 번 말씀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저한테 또 우리 위원회에서 한 이야기와 거기에 가서 한 이야기가 다를 수 없다는 것을 저는 확증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7월 2일 평창이 유치에 실패한 후 프라하 현지의 분위기는 어떠했나요?

○參考人 姜錫哉 7월 2일 평창 유치 결과가 나오고 난 다음에, 일단은 1차 투표가 끝나고 나서, 표수가 나오기 전입니다. 나중에 표수가 나왔습니다마는 잘츠부르크하고 밴쿠버가 2파전이 될 줄 알았는데 평창이 되었기 때문에 전부 다, 우리도 반신반의 했습니다. 그 전만 하더라도 외신보도나 전해들은 이야기로서는 평창의 열세를 이야기했거든요.

그렇지만 아까 윤강로 차장님이나 다른 분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프리젠테이션하고 외부에서의, 스페인 마드리드 이런 데서의 유치활동에, 특히 PR 쪽을 잘 했기 때문에 우리 평창의 이미지가 올라갔다는 것은 주지하고, 저희들도 당연히 희망을 걸고 낙관적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현실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IOC 내에서의 역학관계 특히 올해에는 2012년 하계대회 때문에 밴쿠버로 몰아줄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어렵지 않느냐 하는 것은 저 뿐만 아니라 모든 외신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1차 투표에서는 잘 하면 이길 수도 있

다, 그러나 2차에 가서는 밴쿠버로 몰표가 갈 것이라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표를 보면 1차 투표에서 우리가 51표, 밴쿠버가 40표, 잘츠부르크가 16표였는데, 2차에 가서 잘츠부르크가 탈락되고 나서 밴쿠버에 16표가 더 많은 숫자가 그대로 가서 56표가 되었고 우리 쪽은 53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외신들의 반응부터 이야기하면, 결과에 대해서는 이것은 기적에 거의 가깝다, 평창이 기적에 가까운 일을 했다고 이야기하고 또 끝나고 난 다음 리셉션에서 로케 위원장도, 바로 옆에서 들은 사람도 있습니다마는 한국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평창이 이번에 나왔으니까 다음에 할 경우에는 거의 가능성이 높다는 것하고 너무나 이번에 잘 했다는 이야기를 IOC 위원들뿐만 아니라 모든 기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특히 7월 3일자 조간신문을 여러분이 보시면, 이번 평창의 유치는 절반 이상의 성공이다, 아쉽다, 하지만 다 잘했다는 박수를 보냈고 이렇게 해서 유치위원회가 해산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 2014년도 유치준비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고 지금보다 확대해야 되지 않느냐는 건설적인 방안이 나왔지 결코 거기에서는 어느 사람이 책임론의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金敬天 委員 본 위원도 사실 밴쿠버나 잘츠부르크만큼 평창이 인지도도 높지 않았고 시설면에서도 인정을 받지 못 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선전하리라고 생각하지 못 했거든요. 그런데 짧은 기간 동안 모두 힘을 합했기 때문에 이만한 인지도와 선전을 했다는 생각을 정말 긍정적으로 하고 싶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나머지는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學元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한나라당의 金龍學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야 되겠습니다마는 본인들의 양해에 의해서 한나라당의 李源炯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李源炯 委員 李源炯 위원입니다.

먼저 崔萬立 부위원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평창 유치가 실패로 끝나고 나서 저녁에 IOC 리셉션장에서 북미의 어느 IOC위원으로부터 정말 안 되었다, 닥터 김이 “Don't vote for Pyeongchang” 이런 이야기를 서너 명의 IOC위원에게 하고 다녔다는 이야기를 孔魯明 위원장한테 보고했다는데 사실입니까?

○參考人 崔萬立 예, 사실입니다.

○李源炯 委員 여기에서 닥터 김이라는 분은 金雲龍 위원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參考人 崔萬立 그렇겠지요.

○李源炯 委員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IOC위원이 崔萬立 부위원장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말이지요?

○參考人 崔萬立 예.

○李源炯 委員 그러면 그 사람들이 실제 원래 평창에 지지를 하려고 했다가 닥터 김의 이야기 때문에 표가 바뀌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參考人 崔萬立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李源炯 委員 그렇게 찍지 말라고 했는데 그분들이 만약……

세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셨다고 그랬지요?

○參考人 崔萬立 예.

○李源炯 委員 서너 명이니까 세 명입니까, 네 명입니까?

○參考人 崔萬立 서너 명이라고 했습니다.

○李源炯 委員 지금 그때 당시 3표 차이로 졌지요?

○參考人 崔萬立 2차 투표에서는 3표 차이로 졌습니다.

1차에서는 11표 차로 앞서 있었고요.

○李源炯 委員 1차에서는 앞서 있다가 2차에서는 세 표 차로 졌는데 그 세 명이 평창을 지지해 주었다면 이길 수 있었던 것 아닌가요?

○參考人 崔萬立 그럴 수도 있겠지요.

○李源炯 委員 그러면 이렇게 평창을 찍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우리 부위원장에게 이야기한 것은 본인이 그래서 안 찍었다는 의사표시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분위기가 결정하는 표결을 하기 전에……

1차 투표, 2차 투표를 하기 전에 이런 분위기를 사전에 인지를 하고 있었습니까?

IOC 위원들이 끝난 뒤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사전에도 이런 것을 감지를 했습니까?

○參考人 崔萬立 사실 이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1차 투표의 결과가, 너무 다다 된 것을 놓쳤기 때문에 상당히 애석해서 한 얘기인데 그 분뿐만 아니라 다른 친한파 IOC 위원이…… 닥터 김을 빨리 끌어들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밴쿠버를 운동하는 IOC 위원들이 나쁘게 이야기하면 金雲龍 위원을 팔고 다닐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가능한 한 빨리 나와서 한번 이야기를 해다오…… 상당히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유치위의 7시 회의에서 보고하고 빨리 金 위원을 모셔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과 결부해서 제가 한 말씀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李源炯 委員 예, 하십시오.

○參考人 崔萬立 아까 가운데 李昌馥 위원 말씀하신 얘기가 있는데,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유치위가 구성되어서 맨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달았다고 봅니다. 왜냐고 할 것 같으면 아까도 잠깐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이런 국가적인 행사를 할 때에는 국론이 통일되어야 합니다. 한 말에 가까워야지 두 말 세 말 해서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저는 金雲龍 위원의 성격을…… 우리 잘 아십니다. 훌륭한 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분을 빨리 끌어들여라, 공동위원장을 주든가 명예위원장을 주든가 해서 빨리 끌어들여서 한 배를 타고 가야 된다, 이렇게 저는 강조한 사람입니다.

○李源炯 委員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국론을 통일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우리 유치위원들은 2010년 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우리 金雲龍 위원장은 2014년 유치를 위해서 이야기가 있었다는 이야기의 차원에서 국론통일 이야기입니까?

○參考人 崔萬立 뭐 그것도 일리 있겠습니다마는 Sport Intern을 좀 보니까 자꾸 그 해석에서 그런 얘기가 나와요. 평창은 2010년 찬스가 없다, 뭐 20표 미만이다,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로서는 당황하고 불쾌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빨리 극복하기 위해서는 金雲龍 위원을 갖다 빨리 우리 품 안으로 끌어들여서 같이 행동해야 한다, 저의 주장은 그랬습니다.

○李源炯 委員 지금 金雲龍 위원을 우리 품 안으로 끌어들여라 하는 이야기는 金雲龍 위원은 전혀 도움이 안 됐다는 말씀하고……

○參考人 崔萬立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소극적으로, 뭐 그 분 나름대로의 전략이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현지에서 IOC 위원을 한 65명을 아는데 상당히 좋은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자꾸 그걸 격려를 합니다. 빨리 金雲龍을 갖다가 한 목소리가 되게 해 달라, 그러니까 유치위와의 관계가 두 말을 하고 다니지 않느냐, 그런 게 참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李源炯 委員 예, 좋습니다. 그러면 출국을 하기 전에 지난 6월 24일 청와대에서 유치위원하고 같이 오찬이 있었는데 그때 참석하셨습니까?

○參考人 崔萬立 예, 제가 갔었습니다.

○李源炯 委員 그러면 그 오찬과정에서 金雲龍 위원이 재수론, 다시 말씀드리면 언제 한 번에 됐느냐, 재수·삼수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2014년도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參考人 崔萬立 저는 그 얘기 못 들었습니다.

○李源炯 委員 못 들었습니까?

○參考人 崔萬立 예.

○李源炯 委員 孔魯明 위원장은 분명히 청와대 오찬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데……

○參考人 崔萬立 저는 못 들었어요.

○李源炯 委員 그러면 이런 내용이, 청와대 오찬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 Sport Intern, 어라운드 더 링스 또는 외국 언론들이 받아서 보도를 했는데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까?

○參考人 崔萬立 20표, 아주 불리하다, 평창이 어렵다 하는 건 들었고, 나아가서는 이제 金雲龍 위원이 IOC 부위원장을 출마한다, 그리고 노르웨이의 하이베리가 코피가 나올 정도로 이번에 당할 거다 뭐 이런 내용은 제가 Sport Intern을 통해서 접했습니다.

○李源炯 委員 우리 崔勝浩 사무총장도 청와대 오찬에 참석했습니까?

○參考人 崔勝浩 참석했습니다.

○李源炯 委員 참석했는데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參考人 崔勝浩 오찬석상에서 金雲龍 위원께서 2014년에도 대비해야 한다 하는 취지는 말씀하셨습니다.

○李源炯 委員 그 이야기가 앞에 한 이야기 그대로입니다. 孔魯明 위원장이 언제 한 번에 됐느냐, 재수·삼수해야 된다, 한 번에 되기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2014년도 생각해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하셨을 때 대통령은 무슨 말씀하셨나요? 아무 말씀도 없었어요? 기억이 안 납니까?

○**參考人 崔勝浩**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李源炯 委員** 그러면 문화부장관은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參考人 崔勝浩** 그날 사실 상당히 많은 인원이 오찬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사실은 이쪽 끝의 말석에 앉았기 때문에 서로 마주보고 하시는 그런 말씀 대화는 들리지는 않습니다.

○**李源炯 委員** 이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재수·삼수해서 해야 되지 첫 번에 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했다면 그건 유치를 적극적으로 안 한다는 거예요. 되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사전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청와대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면 대통령께서도 또 문화부장관도 당연히 그 이야기를 듣고 아, 이것 문제가 있다고 느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부위원장이 金雲龍 위원을 빨리 끌어들여야 된다는 이야기를 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전에 이미 6월 24일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유치를 위해서 전 국민의 86.4%가 지지를 했습니다. 강원도민의 96.5%입니다. 평창군민은 말할 필요도 없지요. 이렇게 전 국민들이 유치하기를 바라고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결정적으로 문제점을 사전에 이야기가 나왔고 인지했는데도 왜 대통령과 또 문화부장관도 또 여기 계시는 위원장도 부위원장도 사무총장도 이것 큰 문제다 말이야, 제가 생각할 때 지난번하고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우리 金雲龍 위원께서 적극적으로 유치활동에 나섰다면 1차에 무조건 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재수론, 삼수론 이야기하면서 2014년쯤 생각해 보는 게 맞지 않느냐고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아, 이것 잘 되겠지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지낼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여기에 있는 부위원장도 사무총장도 다 같이 책임을 느껴야 됩니다.

○**參考人 崔萬立** 책임을 느낍니다. 그리고 저는 그 점심에 초청을 받아서 갔었는데 처음 청와대에 갔습니다. 그 전에는 여러 분들 장들은 전부 다 초청이 돼서 얘기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나가면서 대통령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감이 좋다, 제가 바덴바덴부터 죽 23년을 참여했는데 그 당시보다는 여건이 좋아졌고 감이 좋기 때문에 틀림없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李源炯 委員** 다시 계속해서 우리 崔萬立 부위원장께, IOC 부위원장은 국가원수급 대우를 하고 또 인정을 한다는데 맞습니까?

○**參考人 崔萬立** 그건 제가 알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李源炯 委員** 그러면 어떻습니까?

○**參考人 崔萬立** 지금 IOC가 사마란치가 위원장이 된 다음에는 여러 가지 위상이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OC 위원장 정도는 뭐 국가원수 정도 되겠습니다마는 부위원장은 그 밑의……

○**李源炯 委員** 총리급……

○**參考人 崔萬立** 예, 총리급으로 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면서 여러 가지 변화가 IOC 내에도 많습니다.

○**李源炯 委員** 그러면 부위원장도 지금 선출직 아닙니까?

○**參考人 崔萬立** 그렇지요.

○**李源炯 委員** 선출직이면 본인이 사퇴를 하지 않는 다음에는 선출직이기 때문에 그만두게 할 수는 없지요?

○**參考人 崔萬立** 그렇지요.

○**李源炯 委員** 그러면 현역 국회의원이신데 국회의원에 대한 어떤 징계여부가 IOC 부위원장 직무수행에 어떤 영향을 줍니까?

○**參考人 崔萬立** 저는 그걸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李源炯 委員** IOC 오래 계셨으니까 활동을 오래 하셨잖아요?

○**參考人 崔萬立** 오래 했는데 제가 제도권 밖에서 일했기 때문에, 93년 이후에는 제가 86·88 유치에 일조를 한 사람이고 또 월드컵 유치하는데도 제가 일조했습니다. 해서 鄭夢準 의원 같은 분도 FIFA 부회장 당선하는 데 제가 전략을 짜고 제가 60개국을 다닌 사람입니다. 제가 볼 적에는 이런 문제는 스포츠와 정치 관계는 좀 분리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李源炯 委員** 예, 우리 사무총장은 현직에 얼마 계셨지요?

○**參考人 崔勝浩** 작년 11월……

○**李源炯 委員** 그 전에는 뭘 하셨습니까?

○**參考人 崔勝浩** 그 전에는 해외 대사로 있다가 작년 8월에 귀국했습니다.

○**李源炯 委員** 그러면 우리 부위원장이 더 잘 아시겠는데 사실 올림픽에 태권도 종목이 정식종목으로 채택되는 데는 우리 金雲龍 위원이 결정

적인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까, 어떻습니까?

○參考人 崔萬立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 태권도를 좋아하고 내 자식이 전부 다 유단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86아시안게임과 올림픽 유치로 다닐 적에 많은 나라를 제가 순회했습니다. 그 동안에 우리 태권도 사범들이 국가관을 갖고서 엄청난 공헌을 했습니다. 그리고 金 위원께서도 동의하겠습니다마는 1993년도 나고야 OCA 총회 때 제가 1시간 동안 나가서 태권도가 아시안게임의 정식종목으로 채택되어야 된다, 그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을 한 사람입니다.

○李源炯 委員 같이 노력을 하시고 그랬습니까?

○參考人 崔萬立 예.

○李源炯 委員 지금 평창 유치 실패에 따른 국내에서 책임론이 제기되는 일련의 사태가 앞으로의 올림픽에서 태권도 정식종목 채택을 하는 데 영향을 줄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參考人 崔萬立 제가 볼 적에는 특별히 영향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李源炯 委員 태권도협회에서는 우리 태권도의 발전 그리고 우리나라 스포츠의 발전 또 올림픽 태권도 종목 유치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우리 金雲龍 위원을, 공직사퇴 얘기까지 나오는데 그 협회에서는 왜 그렇게 주장을 하지요? 큰 공신이신데…… 태권도협회에서 왜 우리 金雲龍 위원의 이번의 일련의 사태에 대해 가지고 공직을 사퇴하라 하면서 이런……

○參考人 崔萬立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金雲龍 위원님이 여기 계시지만 지금 한 분이 너무 많은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국내 스포츠, 국외 스포츠뿐만 아니라 전부 다를 맡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빨리 후배도 양성하고 국제 스포츠 분야의 좋은 인재를 많이 길러내야 한다, 그리고 모두 분담해야 한다, 한 사람이 많이 맡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인간 능력에 한계도 있고 시간적인 한계가 있다, 저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빨리 인재를 육성해야 되는데 인재 육성에 실패한 것은 金雲龍 위원이나 저나 다 책임이 있습니다. 제가 86년에 바로 여기 앉아 있는 尹康老 사무차장을 특채로 했습니다. 들어와서 외국어를 배우기 위해서 10만 원씩 우리가 보조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체육회 내의 여러 가지 형평성 등등 때문에 1년 하고 그만이에요. 많은 제2의 金雲龍 씨를 우리가 육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李源炯 委員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는데 인재 육성이 제대로 안 되었다, 혼자 너무 많은 직책을 차지했다는 말씀 같습니다.

우리 평창동계올림픽 유치가 실패로 끝난 뒤에 오늘과 같은 이런 자리가 있는 것을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2014년을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때는 우리 모두 다가 힘을 합쳐서 총력을 기울여서 다시는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李源炯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全甲吉 위원님 질의하시기에 앞서서 잠깐 시청자들이나 여기 계신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참고인으로 나와 계신 분들에 대해서 잠깐 현재 경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위원장으로 나와 계시는 참고인 崔萬立 씨는 서울 출신으로 서울대를 졸업하고 KOC 부회장을 거쳐서 현재 국제국가체육단체연합회회장 그리고 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의 부위원장을 맡았었습니다.

그리고 崔勝浩 유치위원회 사무총장은 대구출신으로 서울대를 거쳐서 주 영국공사, 주 카자흐스탄 대사를 거쳐서 현재 사무총장으로 일해 왔습니다.

다음에 尹康老 유치위원회 국제담당사무차장은 서울 출신으로 외대동시통역대학원을 나와서 대한체육회 국제담당사무차장을 거쳐서 IOC올림픽평가위원으로 있으면서 이번에 유치사무차장으로 역할을 했습니다.

또 한 분 李今烘 총장은 서울 출신으로 연대를 나오셔서 낙원운수주식회사 사장을 거쳐서 택시조합연합회회장 그리고 현재는 주식회사 경인미술관 대표이사이고 세계태권도연맹 사무총장을 하고 계십니다.

다음 姜錫哉 씨는 자세한 학력 경력을 제가 입수 못 했습니다마는 전 코리아헤럴드 기자 출신 맞습니까?

○參考人 姜錫哉 예, 맞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그리고 현재는 이벤트홍보회사를 경영하고 있고 이번에 동계올림픽유치위의 용역을 맡았었다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參考人 姜錫哉 그것은 사실이 좀 틀립니다.

○委員長 金學元 본인이 말씀해 주십시오.

○參考人 姜錫哉 일단 저는 올 연초에 코리아헤럴드에 18년 근무하다가 작년 월드컵하고 아시안게임 팀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86, 88, 90년 아시안게임까지 체육부에 있었고 그때 태권도하고 인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제부하고 정치·사회부를 거쳐서 올해 2월부터 국방대학교에 입교되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면서 회사는 그만두고 통역대학원을 졸업하고 지금 통역대학원 겸임 교수로 있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예, 됐습니다.

다음에는 全甲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全甲吉 委員 민주당의 全甲吉 위원입니다.

우리 崔萬立 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께 이번 유치활동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하신 노고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겠습니다.

지금 두 번째 저희들이 이런 참고인들을 모시고 여러 가지 사태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를 갖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창피합니다. 이것은 국제적으로 망신입니다. 그리고 방금 제가 노고를 아주 치하했는데 정말 열심히 했지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다시피 표를 많이 얻어서 깜짝 놀랐고 그러다 보니까 아쉬움이 있어서 이런 일들이 안 있겠습니까? 조금만 더 있으면 가능한데 하고 그러는데 이것이 특정인 한 사람이 잘못해서 떨어졌다고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사실 열심히 했지만 우리 모두가 반성해야지요.

제가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이 너무나 많습니다마는 시간이 없어서 다 못 드리겠고 거두절미하고 단도직입적으로 몇 가지씩 묻겠습니다.

첫째, 소위 말해서 '방해공작을 들었다, Don't vote for Pyeongchang이라고 했다.' 이것이 지금 핵심이거든요. 그다음에 '부위원장으로 출마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아쉬운 패배를 했다.', 세 번째는 프리젠테이션에서 어떤 분들은 '성의가 없이 했다.', 또 '프리젠테이션은 성공적이었다.'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다음에 金雲龍 위원의 여러 가지 발언내용이 모두의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방해공작…… 제가 묻겠습니다.

崔萬立 부위원장님, 방해공작과 소극적인 것하고는 전적으로 개념이 다르겠지요?

○參考人 崔萬立 예, 다르지요.

○全甲吉 委員 崔萬立 부위원장께서는 IOC 위원에게 들었다고 그러셨는데 崔萬立 부위원장님 생각에는 金雲龍 위원이 방해했다고 생각합니까?

○參考人 崔萬立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全甲吉 委員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군요.

알았습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갑시다.

崔勝浩 사무총장님께서는 방해했다고 봅니까, 소극적이었다고 봅니까? 단도직입적으로 완전히 한국에서 해서는 안 된다고 방해했습니까, 그렇다고 봅니까? 여기에서 멈칫거릴 것이 뭐 있습니까? 나왔으니까 확실하게 얘기합시다. 방해했으면 방해했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얘기는 들었지만 방해근거는 아직 없지요, 어떻습니까?

○參考人 崔勝浩 얘기를 들었습니다.

○全甲吉 委員 얘기는 우리 崔萬立 부위원장을 통해서 들었지요?

○參考人 崔勝浩 그렇습니다.

○全甲吉 委員 그다음에 尹康老 사무차장, 방해했다고 생각하십니까?

○參考人 尹康老 저도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全甲吉 委員 그러면 尹 차장이 생각할 때 방해했다고 생각하십니까?

○參考人 尹康老 저는 그렇게 믿고 싶지 않습니다.

○全甲吉 委員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한번 다섯 분 다 물어봅시다.

姜錫哉 유치위원회지원팀, 방해했다고 생각하십니까?

○參考人 姜錫哉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全甲吉 委員 李今烘 유치위원님도 간단히 말씀해 주시지요.

○參考人 李今烘 종합적으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방해했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全甲吉 委員 알았습니다.

하실 말씀들이 더 많을 거예요. 지금 방해했다라는 것은 崔萬立 부위원장님께서 IOC 위원에게 들었다는 것이거든요. 어떤 누구도 방해했다라는 말은 들은 바는 없고 崔萬立 부위원장께 들었는데 崔萬立 부위원장께서는 IOC 위원으로부터 들었다, 방해할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

러나 소극적인 문제도 따져야 되겠지만 그 방해냐 아니냐가 팩트입니다.

崔 부위원장님,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IOC 위원이 126명이지요?

○參考人 崔萬立 예, 맞습니다.

○全甲吉 委員 金雲龍 위원을 지지하는 세력은 얼마라고 봅니까? 이 앞에 부위원장 표 얻은 것 보니까 55표 얻었대요. 그러면 논리상으로 71명은 안 찍었으니까 싫어한다라고도 봐야 되겠지요?

○參考人 崔萬立 예, 그렇습니다.

○全甲吉 委員 우리 崔 부위원장께서는 126명을 다 만났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 분 만났겠지요. 그러면 71명의 金雲龍 위원을 싫어하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는 반대의견도 낼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요?

○參考人 崔萬立 물론 그렇지요.

○全甲吉 委員 그런데 더 많은 숫자가 반대의견을 내는 것을 사실인 양 우리가 전적으로 판단하기는 이르지요, 그럴 수도 있지요?

○參考人 崔萬立 그렇지요.

○全甲吉 委員 우리 정확하게 얘기합시다.

그다음에 우리 尹康老 국제담당도 잘 아시고 우리 崔萬立 부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마는 IOC 위원들 내에는 계파가 상당히 있지요?

○參考人 崔萬立 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全甲吉 委員 거기에는 사마란치 계파도 있고 로케 계파도 있고 여러 계파가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그 계파 간에 타도작전도 있고 상당히 심각한가 봅디다. 그런 데에서 흔히 전술상 작전상 또 그렇지 않은 감정상 발언할 수 있는 내용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전체의 방해공작을 하는 양 말씀하시는 것은 지나친 표현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있었으면 큰일 나지요, 안 되지요. 그러니까 한두 사람 만나서 거의 모든 것을 전적으로 생각하시지 말고 그런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제 생각은 그렇다 이 말이에요. 참고가 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부위원장 출마를 함으로써 두 개의 타이틀은 주지 않는다 그랬지요? 부위원장님, IOC에서는 지역의 유치를 안 주든지 부위원장을 안 주든지, 역대로 보았을 때 관례적으로 두 개는 안 준다고 그러셨지요?

○參考人 崔萬立 그것은 저 뿐만 아니라……

○全甲吉 委員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가 그렇지요?

○參考人 崔萬立 분위기가 그랬고 특별히 몇 아시아 IOC 위원들은 둘 중의 하나를 택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全甲吉 委員 분위기가 그럴 것 같아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한 군데에 두 개를 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金雲龍 부위원장이 부위원장에 출마함으로써 우리 평창이 어렵다, 그 어려운 것은 부위원장 경쟁자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표를 안 줄 것이다 그것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그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參考人 崔萬立 그렇겠지요.

○全甲吉 委員 그렇다면 우리가 얘기를 해봅시다.

金雲龍 부위원장이 먼저 선거를 했다면 그것이 성립이 돼요. 먼저 선거를 해서 부위원장이 됐다면 당연히 안 주지요. 그러나 먼저 평창을 투표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를 지칭해 봅시다. 全甲吉이가 부위원장 후보로 나서고 金雲龍 위원하고 경합자예요. 그러면 1차 평창이 되면 金雲龍 위원한테 또 표를 안 줄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위원장에 당선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평창이 되게 표를 찍어야 되겠죠. 그래야 평창 선거가 끝나고 나서 다음에 내가 부위원장 출마하면 저한테 오겠지요. 그 논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參考人 崔萬立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한파 IOC 위원들 얘기가 '빨리 金雲龍 IOC 위원을 끌어들여서 앞장서게 해 달라.'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랬었습니다. 맨 처음에 부위원장에 의지하지 않고 나와서 조금만 활동을 더 해 줬으면 그것도 되고 또 후에 그것도 가능성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全甲吉 委員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위원장에 출마했다라는 것이 결코 표에 큰 작용이 없었다라고 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제가 방금 전자에 말씀드린 논거에 의하면 그럴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도 제가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이 있는데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프리젠테이션을 하는데 성의가 없었다라는 논의가 있습니다. 프리젠테이션은 각국이 감

동을 받았다고 하고 칭찬했어요. 그런데 우리 崔萬立 부위원장님은 프리젠테이션을 잘못해서 표가 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좀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만 한번 여쭤봅시다.

○參考人 崔萬立 프리젠테이션 잘 했어요.

○全甲吉 委員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개인의 의견차이는 있겠지만 크게 문제를 안 삼겠습니다.

그다음에 발언내용을 봅시다.

金雲龍 위원의 발언내용에 문제가 많았어요. 내가 봐도 적절치 못한 발언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재수론 삼수론, 사실상 재수론 삼수론이 있습니다. 그러나 유치위원회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되겠지요.

그런데 金雲龍 위원께서 평창을 과소평가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것을 역으로 생각했을 때 '내가 판단할 때는 상당히 어려운데 가뜩이나 국민들에게 된다라고 기대감을 충족시켜 가지고 만에 하나 안 됐을 때 국민들에게 가는 실망감이나 충격을 어떻게 감당할까' 이런 생각을 책임있는 사람이 안 해도 될까, 가능 여부를 보고 그런 국민상실감이나 실망감도 약간은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려운 여건에서 워낙 된다 된다고 해 놓고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차원에서도 말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긍정과 부정의 양면성으로 한번 봅시다.

아까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래도 우리 한국에서는 국제적으로 유일한 스포츠 거목이고 IOC 부위원장까지 됐고요, 개인이 아닙니다. 이런 분에 대한 한쪽 면만 가지고 밀어붙이는 것은 그야말로 마녀사냥 식으로 희생양을 강요하는 입장이 될 수도 있다, 또 항간에 스포츠가 정치적으로 이용되어서야 되겠느냐 하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번에 평창이 안 되면 2014년에 도전할 때는 무주로 하기로 하자고 이면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평창이 아쉬웠으니까 다음에 무주로 가면 안 된다고 해서 이 기회에 무주 이면계약을 깨버리자 해서 나오는 경우도 있다라는 설도 있고 그래요. 저는 크게 믿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종합적으로 우리가 평가를 해보는 의미에서 제가 여러분께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다음에 '안 될 텐데 왜 왔느냐' 이것도 부정적으로 보면 문제 있는 발언이 될 수도 있지요. 그런데 문동후 사무총장도 오늘 못 나오시는 변에 있어서는 옛날 상사이기 때문에 그때 그렇게 고생하는데 어려움을 얘기하다 보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참고하라는 말씀으로 했다는 것 같고 또 '쓸데없이 엉뚱한 짓을 왜 하느냐' 이런 것은 앞에서 金雲龍 위원님께 물어보니까 그것은 그 자체가 쓸데없는 것이 아니라 IOC 위원과 접촉하는 방법이 국제관례상이나 金雲龍 위원께서 몇십 년 동안 겪어 봤을 때 조용하게 물밑에서 하는 것이 효과적인데 음악회를 열고 해서, 저는 그것도 효과를 봤다고 보고 있는데 그런 입장에서 그랬는가 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아마 적절치 못한 발언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우리가 정말 객관적이고 균형감각을 갖고 무엇을 평가하자 이 말이에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잘못은 명명백백하게 가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정인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장을 벌여 가지고 상처를 내서 과연 우리 국익에 무슨 도움이 되고, 제가 볼 때 IOC가 외신들 받고 지금 굉장히 서운해 있을 거예요. 이분들이 격분했을 때 다음에 우리한테 돌아오는 결과가 어떨 것이고, 그 순간 후련할지는 모르겠지요.

몇 분 안 남았는데, 결과적으로 제 말씀은 충정입니다. 잘 들어 보십시오. 평창 주민들이 저한테 몰매를 때릴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번에 우리가 안 된 것이 대단히 애석하고 안 좋고 가슴이 아프지만 이번에 평창이 안 되고 金雲龍 부위원장이 부위원장이 되어서 부위원장을 몇 년 하실지 모르겠지만, 다음에 올림픽에서 태권도가 혹시 메달박스에서 빠지고 우리 한국 스포츠가 계속 뒤로 밀리고 어려움에 처하는 것보다는 부위원장이 되어서 그런 것들이 완벽하게 갖추어지고 2014년에 평창이 되면 더 좋겠어요. 그러면 모든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넓게 봅시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드릴 말씀이 많은데 시간이 없지만 나오신 분들의 편향을 보니까 세 분은 부정적이고 두 분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긍정적인 것 같아요.

세 분의 인적사항도 다 보았어요. 그랬더니 죄송하지만 崔萬立 부위원장님은 金雲龍 위원님과 라이벌관계를 상당히 오랫동안 가지셨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많이 제기를 해 주셨는데 저는 그것을 체육발전을 위해서 해 주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나 그러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잘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全甲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한나라당의 李海鳳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海鳳 委員 李海鳳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들께서 몇날 며칠 많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중복이 될 것입니다. 가능한 한 중복을 피하고 몇 가지 물어보고자 합니다.

우선 崔萬立 참고인한테 묻고자 합니다.

평창유치위원회 공동위원장을 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법상으로는 IOC 위원은 공동유치위원장이 되지 못한다고 듣고 있습니다마는 법상으로 되든 안 되든 간에 사실상으로는 공동책임을 지고 추진했으면 성공하지 않았겠느냐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지요?

○參考人 崔萬立 예, 그렇습니다.

○李海鳳 委員 金雲龍 위원이 몇십년 동안 체육계에서 동지적 관계로 우리 체육을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격은 너무나 잘 아실 것 같은데 金雲龍 IOC 위원의 성격이 어떤 면에서 보면, 특히 체육계에서 동지나 대립관계에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면 독선적이고 배타적인 측면에서도 다소 문제가 있었지 않겠느냐고 생각하는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參考人 崔萬立 잘 평가하셨습니다.

○李海鳳 委員 아까 말씀 중에 金雲龍 위원에게만 말씀을 잘 드려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면 된다고 IOC의 여러 위원들이 이야기를 했다는데 앞의 세 가지 증거를 보더라도 金雲龍 위원이 IOC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은 확실합니까?

○參考人 崔萬立 예.

○李海鳳 委員 특히 崔萬立 부위원장께서도 IOC에서 65명을 알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金雲龍 위원님이 이번에 본인의 부위원장 출마를 제쳐놓고라도 적극적으로 유치에 나섰다고 가정하면 IOC에서 65명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평창유치가 충분히 가능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參考人 崔萬立 그렇게 생각합니다.

○李海鳳 委員 그렇다면 종합적으로 봐서 崔萬立 부위원장께서 아시는 것은 IOC에서의 金雲龍 위원의 영향력이 현재로서는 우리나라 출신으로서는 최강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이번 유치에도 국익 차원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나섰다면 분명히 몇 표 차는 극복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신 것입니다.

○參考人 崔萬立 예, 아쉽게 생각합니다.

○李海鳳 委員 그다음에 尹康老 참고인한테 묻겠습니다.

일전의 신문을 보더라도 金雲龍 IOC 위원의 국제적 위상이 체육계에서 대단히 높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평창 이전까지는 金雲龍 IOC 위원이 우리나라의 스포츠를 세계화시키고 국제화시키고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드높이는 데는 결정적인 공을 세웠다고 늘 생각하고 있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국제적 위상을 끝까지 확보하는 차원에서 막강한 영향력 행사에는, 국제적 스포츠계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만한 사람이 대한민국에는 나 말고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參考人 尹康老 현재까지는 전부 다 그것을 인정할 것입니다.

○李海鳳 委員 후계자 양성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신문보도에 尹康老 참고인 이름까지 거론되고 전이경 선수 등등 소위 차세대지도자들의 이름이 거론되는 것을 보면서 金雲龍 위원 이후에도 이렇게 국제 스포츠계에서 위상을 차지할 훌륭한 인재들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대단히 반갑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는 최소한도 IOC 사회에서 金雲龍 위원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는 尹康老 참고인도 인정을 합니까?

○參考人 尹康老 예, 인정합니다.

○李海鳳 委員 그렇다면 金雲龍 IOC 위원의 말 한 마디 한 마디가 바로 국제체육계에서는 대통령이 하는 말 한마디보다 더 중대한 이야기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도 생각이 됩니까? 스포츠계의 이야기입니다.

○參考人 尹康老 스포츠계에서도 IOC 위원 각자의 지위와 인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사람의 말을 듣고 좌지우지한다는 것은 믿지 않습니다. 다만 그만큼 영향력과 그동안 해 놓은 공적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에 대해 상당한 영향력이 있다고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李海鳳 委員 그다음에 崔勝浩 참고인한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상세한 자료를 못 보고 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언뜻 보니까 이번 평창유치에 계상된 예산은 국고도 있을 것이고 강원도 예산도 있을 것이고 체육회 예산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예산이 섞여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소위 유치활동과 관련된 사업예산, 특히 판공비적인 예산 1억 8000만 원을 金雲龍 IOC 위원에게 유치활동을 하라고 우선 지원했다는 자료들이 나왔었는데 그 말이 맞습니까? 강원도 예산인지 어디 예산인지 1억 8000만 원을 지원했다는 그런 자료가 분명히 나왔습니다.

○參考人 崔勝浩 제가 지금 확신은 가지지 못하겠습니다. KOC에서 나간……

○李海鳳 委員 그것은 지난번에 金雲龍 위원님이 직접 여기 나와서 해명할 때도 들은 것 같고 강원도에서도 그것은 확인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마는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이유는 그 예산이 얼마였는지는 모르지만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金雲龍 IOC 위원인데 IOC 위원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돈을 준다는 차원이 아니고 어떻든 간에 그런 활동을 하자면 1억 8000만 원 정도가 아니고 십수억의 돈이 필요하다고도 볼 수 있는데 그 지원을, 특히 유치위원회사무총장 입장에서는 강원도에만 맡겨 놓을 것이 아니고 유치위원회에서 유치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돈을 듬뿍 더 지원했어야 된다고 보지 않습니까?

○參考人 崔勝浩 현재 이 시점에서는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판단할 수 없습니다.

○李海鳳 委員 판단이 잘 안 섭니까?

○參考人 崔勝浩 예.

○李海鳳 委員 여러분들이 많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중복될 것 같아서 간단간단하게 묻겠습니다.

崔勝浩 참고인께 묻겠습니다.

金振兢 도지사 진술을 보면 각종 회의 등에서 金雲龍 위원이 자주 했던 말 중의 하나가 특히 "평창이 대단히 어려울 것이고 안 되면 2014년을 준비해야 된다", 아마 이것은 질의를 많이 받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각종 회의에 사무총장께서도 거의 참석을 했을 것입니다. 이런 말을 자주 들었습니까?

○參考人 崔勝浩 고위급 회의에는 사무총장이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李海鳳 委員 그러면 崔萬立 참고인……

○參考人 崔萬立 저도 참가하지 못했습니다.

○李海鳳 委員 崔萬立 참고인도 이런 각종 회의에서 IOC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들었다고 여기에 나와 있고 청와대 건은 아까 다 못 들었다고 했고 각종 회의에서 이런 말을 자주 하셨다는 金振兢 강원도지사의 진술이 나와 있는데……

○參考人 崔萬立 장급 회의에는 제가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李海鳳 委員 그리고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崔萬立 참고인께서는 그것이 별 의미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제가 봐서는 우리가 조사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팩트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북미의 모 IOC위원,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북미의 모 IOC위원이 崔萬立 참고인에게 'Don't vote for Pyeongchang' 이런 식의 이야기를 죽 하면서 나온 여러 가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사람이 아벨란제입니까?

○委員長 金學元 잠깐만요. 되도록 IOC의 특정 위원을 거명하지 않고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海鳳 委員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 서류에 나와 있길래 본 위원이 잠깐 인용을 했습니다마는 IOC위원 개인의 명예와 관련해서 하고자 한 소리가 아닙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어쨌든 崔萬立 참고인께서 북미의 모 IOC위원이 한 이 이야기를 들었고, 孔魯明 유치위원장한테 전달이 되고, 또 이것이 언론에 보도가 되고, 오늘까지 핵심적인 팩트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분명히 들었기 때문에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그 느낌이 어땠습니까?

○參考人 崔萬立 제가 참 울분에 차있었습니다. 될 것이 안 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마음이 아파있는 상황인데…… 그 얘기를 듣고는 제가 푸념으로 옆의 孔魯明 위원장한테 잠깐 얘기를 했고, 孔魯明 위원장도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조기성 대사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孔 위원장에게 '대외비로 해 달라. 어디까지나 그 사람의 명예도 있고 또 사실이 아니면 金雲龍 위원 명예에 관한 것이 있기 때문에 대외비로 하고 보도를 하지 말아 달라.' 그런 조건하에 제가 얘기를 했고 보고서를 썼습니다.

저는 그저께 부위원장 사표를 냈습니다. 더 이상 참여 안 하려고 합니다. 끝나면서 제가 계속 다니면서 대외비로 보고서를 썼습니다. 그것

이 수십 장, 근 백 장이 됩니다. 평창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대외비로 해서 물의를 일으키지 말아 달라 그런 조건하에 했는데, 지난번에 저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孔 위원장께서 제 이름을 댄 것은 상당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李海鳳 委員 崔萬立 참고인한테 간단한 것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金雲龍 IOC위원께서 해명한 내용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그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부위원장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나를 따르는 IOC위원들의 표를 결집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출마를 해야지, 또 출마를 했고요. 출마를 해야지 평창유치에 기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金 위원은 해명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金雲龍 IOC위원이 늘 하시는 말씀 중의 하나가, 특히 해명할 때 하신 말씀 중의 하나가 '내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겨우 20표에 불과하다.' 이런 말씀이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金雲龍 위원께서는 출마를 해야지 나를 따르는 IOC위원들이 평창을 지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내가 출마를 했다……

○參考人 崔萬立 본인의 논리는 성립되겠지요. 그러나 저 개인적으로는 좀 달리 생각했습니다.

○李海鳳 委員 다른 견해를 갖고 계신다……

○參考人 崔萬立 예, 먼저 평창이 넘버원 플라이트에 나갔으면 1차에 되지 않았겠는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제가 분석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5월 1일 인포메이션 커미션 결과를 발표한 다음에 우리의 위상이 엄청 떴습니다. 그리고 여러 회의에 제가 다 가 보았습니다마는 평창이 잘 될 것이라는 신념을 갖고,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분석으로는 50표를 보았습니다. 우리가 돈 얘기까지 했습니다. 6월 3일 보고서에 50표입니다. 합해서 51표에요. 그래서 2차 투표에 가서 둘만 도왔으면 우리가 됐습니다. IOC위원이 세 분이 계신데 한 사람이 한 표씩만 했어도 좋은 결과가 나왔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제가 매일 3시간밖에 잠을 못 잤는데, 마지막을 보니까 너무 아쉽고 너무 아깝고 너무 억울하고 그런 심정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을 계기로 해서 은퇴합니다. 스포츠계에서 완전히 은퇴합니다.

감사합니다.

○李海鳳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여러 위원님께 세 가지만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여기에 참고인들을 불러서 우리가 질의응답을 하는 이유는 참고인들이 그동안 보고 들은 사실을 묻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인들의 평가나 어떤 판단을 우리가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참고인들에게 어떻게 평가하느냐,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 하는 문제는 되도록 묻지 마시고 사실문제만 정확하게 질의를 해 주십시오. 평가의 문제는 나중에 질의·응답이 끝나고 난 뒤에 위원 여러분들이 모이셔서 회의를 할 때 위원님들이 할 문제다 이렇게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IOC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IOC위원 개인에게 누를 끼치거나 흠을 주는 질의응답은 가능한 한 피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IOC에 대한 우리의 예의이기도 하거니와 또한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는 우리가 실패했지만 2014년 동계올림픽은 우리가 유치해야 된다는 국가적인 중대사가 있기 때문에 되도록 지켜 주십사 하는 것이고, 세 번째로 이 문제는 金雲龍 위원 개인의 문제입니다. 여기에서 소속 정당의 정파적인 생각을 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객관적이고 진실을 캐내는 위원으로서의 본래적인 모습으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 참고인도 그런 방향으로 진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민주당의 趙在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在煥 委員 민주당의 趙在煥 위원입니다.

우리는 늘 스포츠 정신 그 자체를 존중해 주고 스포츠맨들에 대해서 인격도 존중해 줍니다. 그 이유는 페어플레이 정신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실을 깨끗하게 규명해야 됩니다. 또 이 자리가 굉장히 역사적인 자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전 세계의 스포츠맨들과 지도자들이 아마 여기를 주시하고 있을 것입니다. 만일 여기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IOC에 대한 어떤 부당한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에는 전 세계가 상당히 곤욕을 치러야 할 그런 입장이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사실을 규명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델리케이트한 부분에 대해 질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위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국제적인 룰 때문에, 또 도의적으로 그 부분을 존중해달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회적으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崔萬立 부위원장님께서는 조금 전에 모든 스포츠계에서 떠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특별하게 굳은 결심을 왜 하게 되었습니까?

○參考人 崔萬立 이번에 제가 자신만만했었습니다. 이번에는 꼭 될 줄 알고 나가서 7개월 동안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안 됐고, 또 여러 가지 문제도 많고 여러 가지…… 오늘 같은 날은 정말 상당히 창피스럽고 불행한 자리입니다.

제 생활신조가 페어플레이입니다. 정직, 페어플레이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여러 가지 실망도 많이 했고 또 대한민국 국민들이 뭔가 합치는 이런 힘이 부족하다, 내 나이가 70이고 그 이상 봉사하기에는…… 다 끝난 것으로 생각하고 이런 데서 더 이상……

○趙在煥 委員 됐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비밀보고서를 작성했다고 그랬습니까?

○參考人 崔萬立 비밀보고서가 아니라 저는 유치활동의 진상보고서라는 자료를 제출했고, 그것에 사실을 전부 적어야 되기 때문에……

○趙在煥 委員 누구한테 보고하려고……

○參考人 崔萬立 유치위원회 위원장한테 보고하지요.

○趙在煥 委員 유치위원회 위원장한테 보고하려고 보고서를 작성했습니까?

○參考人 崔萬立 그렇지요. 다 해서 보고한 것으로 제 임무는 다 끝났습니다.

○趙在煥 委員 묻겠습니다.

아까 全甲吉 위원이 질의를 통해서 확인한 결과 여기 나오신 다섯 분의 참고인들 중에서 金雲龍 위원께서 방해했다고 생각하느냐고 질의했을 때 한 두 분 정도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근거를 어디서 찾느냐가 대단히 중요하다,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崔萬立 부위원장님께서 IOC 위원한테 들었다는 내용이 처음 출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디서 어떤 얘기를 들으셨습니까?

○參考人 崔萬立 계속 반복이 됩니다마는 7월 2일 힐튼호텔 리셉션장에서 저는 孔 위원장과 조기성 전 대사 전상진 전 대사와 같이 일찍 갔습니다. 로게를 만나 가지고 좀 아는 사이기 때문에 생활체육 관계 때문에 한참 얘기하다가 안에 들어가 있는 동안에 IOC 위원들이 많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다가와서 귀띔을 해주길래 저는 긴가민가 기분이 좋지 않은데……

○趙在煥 委員 됐습니다.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누구한테 전달했습니까?

○參考人 崔萬立 제가 이 내용을 위원장이 옆에 있었기 때문에 위원장에게 얘기했습니다.

○趙在煥 委員 위원장한테만 했습니까?

○參考人 崔萬立 예.

○趙在煥 委員 그리고 尹康老 차장님께서도 그 얘기를 알고 계셨다고 그랬지요?

○參考人 崔萬立 저는 다른 사람한테 얘기 안 하고……

○趙在煥 委員 알고 계셨다고 그랬지요?

○參考人 尹康老 여기서 들어서 알고 있는 것입니다.

○趙在煥 委員 누구한테 얘기를 들었습니까?

○參考人 尹康老 그때 7일에……

○趙在煥 委員 누가 얘기를 전해 주던가요?

○參考人 尹康老 유치위원회 孔魯明 위원장 이하 그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한테 얘기해 준 것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니까 듣고 알게 됐습니다.

○趙在煥 委員 아까 金映宣 위원님 질의에 "4월부터 시작해서 金雲龍 위원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느낌을 받았다, 그것은 다 알려진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參考人 尹康老 저는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는데요.

○趙在煥 委員 그렇게 했습니다.

○參考人 尹康老 4월부터 金雲龍 위원님께서 IOC 내부 사정에 정통하시기 때문에 IOC나 외신에서는 전부 평창보다는 밴쿠버와 잘츠부르크의 양파전이지 평창은 힘들다는 것이 외신에……

○趙在煥 委員 아니지요.

○參考人 尹康老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이후에……

○趙在煥 委員 말씀은 잘 하시는데 뉘앙스가 조금씩 달라서 제가 이해를 잘 못 합니다.

분명히 들었어요. 아까 金敬天 위원께서 그렇게까지 됐는데 왜 대책회의를 통해서 이의 제기를 안 했느냐고 물어보니까 "그것은 수뇌부들의

일이고 나는 국제관계 담당이기 때문에 잘 모른다.” 이렇게 답변하셨다는 말이지요.

○**參考人 尹康老** 진짜 모릅니다. 일선에 움직인……

○**趙在煥 委員** 그러면 “유치활동 하기 전부터 金雲龍 위원께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체육계에 다 알려진 사실이다, 많이 알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參考人 尹康老** 회의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하다가 기억이 틀릴 수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애기한 것은…… 저는 수뇌부나 회의에 참가한 일이 없습니다.

○**趙在煥 委員** 그러면 그 애기를 국회에서 특위활동을 통해서 孔魯明 위원장이랑 오셔서 말씀하실 때 처음 듣고 ‘아, 金雲龍 위원께서 방해하셨구나!’ 하는 것을 느꼈다는 애기입니까?

○**參考人 尹康老** 정식으로 들은 것은 그것입니다. 제가 그런 소문이 난무하는 것을 듣고서 일일이 걸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孔魯明 위원장께서……

○**趙在煥 委員** 소문은 무엇을 보고…… 신문을 보고 알았나요, 그런 소문을 무엇을 보고 알았어요?

○**參考人 尹康老** 유치위원회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지요.

○**趙在煥 委員** 어디 유치위원회……

○**參考人 尹康老** 저희는 현지에 3일에 떠난 것이 아니고 6일에 떠났습니다.

○**趙在煥 委員** 유치위원회 누구한테 들으셨어요?

○**參考人 尹康老** 孔魯明 위원장님한테 들었지요. 가끔 통화도 하고 그랬습니다.

○**趙在煥 委員** 또 확인하겠습니다.

崔勝浩 총장님!

○**參考人 崔勝浩** 예.

○**趙在煥 委員** 그런 말씀을 들으셨나요?

○**參考人 崔勝浩** 崔萬立 부위원장께서 대단히 화가 나 계시다, 그런 보고를 했다, 그렇게 애기를 들었습니다.

○**趙在煥 委員** 崔萬立 부위원장님한테 직접 들으셨습니까?

○**參考人 崔勝浩** 직접은 안 들었습니다.

○**趙在煥 委員** 그러면 누구한테 들으셨습니까?

○**參考人 崔勝浩** 위원장한테서 들었습니다.

○**趙在煥 委員** 그러면 위원장님은 崔萬立 부위원장한테 들었고, 나머지는 위원장님이 공개석상에서…… 공개석상에서 애기했나요?

○**參考人 崔勝浩**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趙在煥 委員** 불러다가 애기했나요?

○**參考人 崔勝浩** 공개석상에서는 애기를 안 했습니다.

○**趙在煥 委員** 그러면 진원지는 崔萬立 부위원장님이 발설하셨네요, 그렇지 않아요?

○**參考人 崔萬立** 예.

○**趙在煥 委員** 그러면 얼른 생각하면 이것이 매타도어인지,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또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그럴 리는 없겠습니다마는, 꾸민 애기인지 그 사실 자체도 명확하지 않지 않습니까?

○**參考人 崔萬立** 그럴 수 있지요.

○**趙在煥 委員** 왜 그러냐 하면……

그럴 수 있어요? 뭐가요?

○**參考人 崔萬立** 매타도어 작전도 될 수 있고, 우선 그 사람이 애기할 때는 제가 상당히 불쾌했어요.

○**趙在煥 委員** 아니, 매타도어라고 생각하면 매타도어로 받아들이고 매타도어 같다고 말씀하셨어야지 그대로 듣고 와서 애기 들으니까 IOC 위원이……

○**參考人 崔萬立** 제 애기 좀 들으세요.

제 애기는 그 애기를 듣고 불쾌해서 푸념으로 애기했는데, 그것을 대외비로 해달라고 애기를 했습니다. 모든 문서는……

○**趙在煥 委員** 누구한테 대외비로 해달라고 그랬어요?

○**參考人 崔萬立** 孔魯明 위원장한테 했습니다.

○**趙在煥 委員** 아니, 애기를 전해 놓고 그 분이 뭔데 그것을 비밀로 애기했습니까?

○**參考人 崔萬立** 사실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애기해 줬습니다.

○**趙在煥 委員** 그러니까 사실을 확인하기도 전에 崔萬立 부위원장님께서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지신 분이고, 또 IOC 위원도 많이 알고 그러니까 어련히 알아서 정보를 수집했겠나 싶어서 위원장께서는 그 애기를 사실로 받아들인 것 아닙니까?

○**參考人 崔萬立**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趙在煥 委員** 그래서 문제가 된 것 아니겠어요?

○**參考人 崔萬立** 문제는 우선 그것을 대외비로 해달라고 제가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모든 것

을……

○趙在煥 委員 민주당에서는 대구하계올림픽에 대한 위원장을 金雲龍 위원이 맡고 계십니다. 그리고 12명으로 구성된 평창유치위원회 위원장도 맡고 계십니다.

崔勝浩 총장님! 잘 알고 계시지요?

민주당에서 유치위원회 별도 기구가 있었는데 그 위원장을 金雲龍 위원께서 맡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정부에 있는 관계자들을 불러다가 회의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했으면 이번에 평창으로 유치할 것인가를 늘 고민하신 흔적이 많이 있다 말이지요. 그렇지 않아요, 알고 계십니까?

○參考人 崔勝浩 솔직히 말씀드려서 잘 모르겠습니다.

○趙在煥 委員 잘 모르셨어요? 그렇게 있었어요. 우리 당에서 철저하게 유치를 위해서 노력하시고 그 선봉에 서신 분이 金雲龍 위원이십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얘기를 다 거슬러 올라가면 진원지는 딱 하나라는 말이지요. 崔萬立 부위원장님이 리셉션장에서 귓속말로 했든지 뭐 했든지 듣고 와서 그 말씀을 국회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다더라 하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아, 틀림없이 소극적 대처인지 아니면 적극적 방해였는지 그것을 혼자 생각으로 그것을 위원장님한테 얘기해 버리니 위원장은 아이고, 큰 정보라고 해서 이 사람 저 사람 얘기해서 이렇게 퍼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자체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이것이 매타도어인지, 교란작전인지, 또 金雲龍 위원의 인간적인 관계가 잘못됐는지 그것을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문제가 터진 것 아닙니까?

崔勝浩 총장님! 유치위원회에 대책위원회가 있었나요?

○參考人 崔勝浩 대책위원회라고 따로는 없습니다.

○趙在煥 委員 거기 가서 수시로 대책회의를 했었을 것 아닙니까?

○參考人 崔勝浩 있었습니다.

○趙在煥 委員 표 분석도 했나요?

○參考人 崔勝浩 표 분석은 고위층 몇 분이 항상 했습니다.

○趙在煥 委員 고위층 누가 했어요?

○參考人 崔勝浩 위원장, 지사, 그리고 李滄東 장관……

○趙在煥 委員 현재 사무총장님께서 실무자 아닙니까? 뒷바라지 실무자인데 실무자는 빼놓는 회의가 어디 있으며 또 尹康老 차장님께서는 참석하셨나요?

○參考人 尹康老 아침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趙在煥 委員 누구누구 참석하셨나요?

○參考人 尹康老 유치위원들 한 10여 분이 참가했습니다.

○趙在煥 委員 그러면 거기서 주로 어떤 회의를 했습니까? 미안합니다마는 중요한 부분 한 가지만……

○參考人 尹康老 매일 매일 돌아가는 행사 내용과……

○趙在煥 委員 행사……

○參考人 尹康老 오늘 어떤 일이 있다, 프리젠테이션에 리허설이 있다, 오늘 행사내용을 다시 점검하고 어제 발생한 일이……

○趙在煥 委員 주로 이벤트, 행사 내용에 대한 것만 얘기를 했군요.

○參考人 尹康老 아닙니다. 그 전일 접촉 결과, 이상 징후에 대해서 들은 얘기들을 같이 나누는……

○趙在煥 委員 유럽 쪽은 누가 담당하셨습니까?

○參考人 尹康老 유럽 담당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게 분석을 안 했고요.

○趙在煥 委員 미주 쪽도 담당한 사람이 없었나요?

○參考人 尹康老 깊숙이 전략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한 30분만 시간을 주시면 죽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미주 쪽 담당자는 없습니다.

○趙在煥 委員 그러면 아시아 쪽은요?

○參考人 尹康老 아시아 쪽도 경기단체 회장이라든지 그와 연관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趙在煥 委員 그러면 어떤 계획을 가지고 득표활동을 전개했나요?

○參考人 尹康老 위원장님, 깊숙한 얘기는 나중에 비공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趙在煥 委員 깊숙한 얘기까지 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법으로 득표활동을 전개했느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어제까지 돌아가는 얘기가……

○委員長 金學元 본인이 생각하실 때 IOC에 영향이 미친다고 생각이 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술을 삼가면서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런 범위 내에서 답변을 하세요.

○趙在煥 委員 득표활동을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를 보안에 붙일 필요가 있어요?

○參考人 尹康老 예를 들어 IOC 위원들은 1월에 쿠웨이트에서 OCA 총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NOC 위원장 겸 IOC 위원을 겸한 분들이……

○趙在煥 委員 지금 최만립 부위원장께서 투표전에 50표를 자신했다, 그러면 누가 몇 표, 누가 몇 표, 이런 식으로 표 점검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표 점검도 없이 무조건 뜬구름 잡기 식으로 50표는 자신했다, 그것이 말이 됩니까? 회의에 참석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묻는 것입니다. 득표활동을 어떻게 했고 표 분석을 어떻게 했느냐 이것이지요.

○參考人 崔萬立 趙 위원님, 제가 얘기해도 됩니까?

○趙在煥 委員 예, 그 부분만 얘기해 주시지요.

○參考人 崔萬立 철저하게 표 분석을 했습니다.

○趙在煥 委員 표 분석을 했으면 득표활동에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지도 거론될 것 아닙니까?

○參考人 崔萬立 있습니다.

○趙在煥 委員 그러면 金雲龍 위원도 대책위에 참석했습니까?

○參考人 崔萬立 안 하셨습니다.

○趙在煥 委員 가장 득표력이 있는 분인데…… 오늘 활동해 보니까 이런 표가 몇 표 나왔다, 그러면 영향력이 金雲龍 위원이 제일 낫다, 그러면 모셔다가 "한 번 더 만나십시오." 이런 세부적인 전략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參考人 崔萬立 제가 그 얘기를 맨 처음에 했습니다. 빨리 金 위원님 모셔 와라, 모셔야 된다……

○趙在煥 委員 그러니까 보고를 해야지요. 어떤 보고를 했습니까? 가장 영향력 있는 金雲龍 위원한테 득표점검을 해 보니 몇 표 정도가 모자란다든지 현재까지 34표가 있다든지, 이렇게 된 상황에서……

○參考人 崔萬立 그것은 김진선 지사와 孔 위원장과 장관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趙在煥 委員 그러면 유치위원회가 가서 활동한 것이 뭡니까?

○參考人 崔萬立 활동 왜 안 했어요? 했지요.

○趙在煥 委員 지금 얘기로는 점검해 보니까 활동을 거의……

○參考人 崔萬立 남미는 정우성 대사가 있어서 8표……

○趙在煥 委員 아까 남미담당, 유럽담당 아시아담당이 하나도 없었다면서요?

○參考人 尹康老 미주담당이 없다고 했습니다.

○趙在煥 委員 유럽담당부터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參考人 尹康老 유럽이 동부유럽, 중부유럽, 북부유럽으로 나누어져 있어서 표 분석이 다르기 때문에……

○趙在煥 委員 그러면 존경하는 金龍學 위원님은 거기 가서 하셨던 일이 뭡니까? 누가 답해 주시겠어요?

○參考人 崔萬立 우리는 접촉을 안 해서 잘 모릅니다.

○趙在煥 委員 그러면 이 분이 金雲龍 위원께서 방해공작을 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고 확신을 가지고 얘기했을까요? 최만립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셨나요?

○參考人 崔萬立 저는 얘기도 하지 않았고 또 뛰어다니기 바빠서 국회의원님들은 만나지 못했습니다.

○趙在煥 委員 아니 그러면 이것이 뭡니까? 사람 웃기는 일이지요.

○參考人 崔萬立 뭐가 웃기는 일입니까?

○趙在煥 委員 거기서 처음에 그 얘기를 들은 분은 부위원장님인데……

○委員長 金學元 최만립 부위원장님, 그냥 묻는 말에 답변만 하시면 됩니다.

○參考人 崔萬立 왜 인신공격을 합니까? 저는 진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趙在煥 委員 인신공격이 아니지요. 사실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오로지 한 분, 孔魯明 위원장한테 최만립 부위원장님께서……

○委員長 金學元 趙 위원님, 모든 위원님들이 시간을 지켜 주시니까 나중에 추가질의를 하시지요.

○趙在煥 委員 그러면 이상 마치고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다음에는 嚴虎聲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제가 사전에 말씀드리면 되도록이면 위원님들께서도 참고인의 개인적인 명예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심스럽게 질의해 주시고 또 참고인께서도 답변하실 때 묻는 말에만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어떤 판단이나 평가나 감정을 섞지

말고 차분하게 객관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지요.

○**嚴虎聲 委員** 최만립 부위원장님, 유치와 관련해서 IOC 위원들의 동향이나 정보 같은 것을 유치위원회에서 하나라도 더 많이 입수하려고 애를 썼던 것은 사실이지요?

○**參考人 崔萬立** 예, 사실입니다.

○**嚴虎聲 委員** 그런 맥락에서 최만립 부위원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레바논 IOC 위원으로부터 어느 유럽 위원이 평창은 준비가 안 되었으니까 2014년으로 가자는 얘기를 하고 돌아다닌다는 말을 듣고 金雲龍 IOC 위원에게 입을 막아달라고 부탁했으나 金雲龍 위원이 무시하였다는 내용이 유치위원회에 보고되었다, 이런 진술이 지난번 특위에서 나왔습니다. 이런 얘기가 유치위에 보고된 것은 사실입니까?

○**參考人 崔萬立** 사실과는 다릅니다.

지금 누구라고 지명하셨는데 그 사람의 명예 때문에 제가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친한파 IOC 위원이 지금 밴쿠버를 지지하고 밴쿠버를 위해서 뛰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매타도어 작전을 쓰는 것 같다, 빨리 이것을 불식시키고 그 내용을…… 아주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金雲龍 위원을 빨리 모셔다 평창을 위해 앞으로 나서서 뛰게 해라, 이런 간곡한 부탁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보고했고 또 金雲龍 위원을 빨리 모셔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7월 1일에 오신다고 했는데 결국 6월 30일에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없습니다.

○**嚴虎聲 委員** 7월 2일 저녁 IOC 리셉션에서의 얘기는 별개지요?

○**參考人 崔萬立** 그렇습니다.

○**嚴虎聲 委員** 그런데 金雲龍 IOC 위원에게 이런 내용이 전달되었습니까?

○**參考人 崔萬立** 저는 잘 모르고 장관도 계시고 위원장도 계시고 강원도 지사도 있었습니다. 그 세 분들이 긴박한 상황이니까 우리가 빨리 일치된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嚴虎聲 委員** 그러면 이런 내용을 金雲龍 IOC 위원에게 전달했다, 이것에 대해서 윤강로 차장님은 알고 있습니까?

○**參考人 尹康老** 저는 그런 내용을 직접 들을 만큼…… 저도 하루에 잠을 3시간 자면서 로비에서 주로 활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내부사정은 잘 모르겠습니다.

○**嚴虎聲 委員** 최승호 총장님은 어떠세요?

○**參考人 崔勝浩** 저도 직접은 못 들었습니다.

○**嚴虎聲 委員** 그러면 간접적으로는 들은 바 있습니까?

○**參考人 崔勝浩** 그렇습니다.

○**嚴虎聲 委員** 누구로부터 들었습니까?

○**參考人 崔勝浩** 위원장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嚴虎聲 委員** 그러면 金雲龍 위원에게 부탁을 했는데 부탁이 받아들여졌다든지 거절되었다든지, 그런 것은 들은 바 없습니까?

○**參考人 崔勝浩** 그렇습니다.

○**嚴虎聲 委員** 사무총장께 묻겠습니다.

지난 5월 15일 마드리드에서 열린 IOC 집행위원회에 한국 측 유치위원회 인사들도 참여했지요?

○**參考人 崔勝浩** 그렇습니다.

○**嚴虎聲 委員** 그때 세 분 중에서 어느 분이 가셨습니까? 총장님이 가셨습니까?

○**參考人 崔勝浩** 저는 가지 않았습니다.

○**嚴虎聲 委員** 최만립 부위원장님, 가셨습니까?

○**參考人 崔萬立** 저는 갔지만 공식대표는 아니었습니다.

○**嚴虎聲 委員** 어쨌든 가셨고, 윤강로 차장님은 가셨습니까?

○**參考人 尹康老** 예, 갔었습니다.

○**嚴虎聲 委員** 거기에서 외신기자들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평창은 2014년에 하고 밴쿠버가 2010년이다, 이때 참석하신 최만립 부위원장님과 윤강로 차장님의 경우 외신기자들 사이에서 이런 얘기가 돌고 있다는 것을 목격했거나 직접 들었던 사실이 있습니까?

○**參考人 尹康老** 저는 마드리드에서는 별로 못 들었고 프라하에서 들었습니다.

제가 25일에 도착했고 28일에 집행위원회가 시작되고 29일부터 회의 시작인데 그 전에 미국지역 외신들이 지금 밴쿠버로 기울어지고 있다, 그래서 찬스가 밴쿠버 쪽으로 되기 때문에 평창은 2014년이 아니냐 라고 해서 제가 반박을 했고 기자회견에서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10분의 1도 안 되는 IOC 위원들이 오셨는데 당신들이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하느냐고 하니까 대답을 잘 못하고 전체 흐름이 그렇다고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 흐름은 IOC 위원들이 프리젠테이션을 듣고 결정하는 것이지 절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외신들도 뒤로 물러난 바 있습니다.

○嚴虎聲 委員 그러면 마드리드에서는 이런 얘기를 들은 사실이 없다는 것입니까?

○參考人 尹康老 저는 마드리드에서 외신들이 그렇게 말했다는 것을 직접 들은 바는 없고 프라하에서 직접 며칠 전부터 들었습니다.

○嚴虎聲 委員 崔萬立 부위원장님, 5월 15일 마드리드에 가셨을 때 혹시 외신기자들이 '평창 2014년, 밴쿠버 2010년'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參考人 崔萬立 저는 기자들은 만나지 못했고 캐나다 출신의 AIPS 부회장이 있습니다. 저하고 가까운데 아이슬란드에서도 만났고 AIPS집행위원회에서도 만났는데 그 사람이 항상 저에게 장난삼아 얘기하는 것이지만 하나의 작전 차원에서 "너희는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2010년에 하고 너희는 2014년에 하자."는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은 말도 안 된다. 우리는 사정상 2010년에 해야 하니까 너희가 2014년에 해라." 이런 얘기를 했고 또 마드리드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길래 제가 "우리가 원하는 것은 2010년이다." 라고 했습니다.

○嚴虎聲 委員 어쨌든 외신기자들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은 바는 없다는 것입니까?

○參考人 崔萬立 그렇지요.

○嚴虎聲 委員 그다음에 노르웨이의 하이버그 위원이 유럽 표를 꽉 쥐고 있기 때문에 우리 측 유치위원회의 모든 채널을 동원해서 불출마 공식선언을 해 달라고 권유를 했다는데 이와 관련된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까?

○參考人 崔萬立 저는 없습니다.

○嚴虎聲 委員 총장님은 어떻습니까?

○參考人 崔勝浩 없습니다.

○嚴虎聲 委員 그다음에 尹康老 차장님은요? 하이버그 위원의 동향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參考人 尹康老 하이버그 위원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들었습니다.

○嚴虎聲 委員 그런 얘기를 했다는 말은 우리 측……

○參考人 尹康老 유럽 표를 꽉 잡고 있다는 얘기는 아니고 부위원장에 나오기 때문에 중복된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嚴虎聲 委員 불출마 공식선언을 유도해 달라는 얘기를 우리 측 유치위에 했다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參考人 尹康老 제가 하이버그 IOC위원이라도 그런 얘기를 해 달라고 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해 주기를 속으로 바랄지는 몰라도……

○嚴虎聲 委員 그러면 무엇을 들었다는 것입니까?

○參考人 尹康老 하이버그 위원이 IOC 부위원장에 나오는데 IOC는 두 개의 꽃을 한 나라에 주지 않는다고 하는 암시적인 얘기겠지요.

○嚴虎聲 委員 자기가 부위원장에 나가는데 한국 측 金雲龍 IOC위원도 부위원장에 출마를 하고 평창올림픽도 동시에 다 가져가는 것은 안 되는 것 아니냐 그러면서 암묵적으로, 묵시적으로 金雲龍 IOC위원이 부위원장 출마를 포기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표명하고 다녔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것입니까?

○參考人 尹康老 그것을 표명하고 다닌 것이라기보다도 IOC위원들 사이에 그런 분위기를 조장한 것 같습니다.

○嚴虎聲 委員 이 연장선상에서 보면 결국 金雲龍 IOC위원이 출마선언 내지 출마운동을 함에 따라 하이버그 위원을 지지하는 IOC위원들의 표가 우리 측에서 이탈했다는 결론도 도출될 수 있겠네요?

○參考人 尹康老 그것은 아까 존경하는 국회의원님 한 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하이버그 위원을 오래 전부터 알고 지냈기 때문에 직접 그랬습니다. "평창을 먼저 밀어주면 金雲龍 위원의 당선 가능성이 낮아지지 않느냐." 했더니 웃었습니다. 그런 이론도 성립되기 때문에 약간 논란의 여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嚴虎聲 委員 그다음에 金雲龍 위원이 IOC위원들에게 출마서신을 여러 차례 보냈다는 것은 거의 공지된 사실처럼 되어 있는데 혹시 유치위 측에서 출마서신의 카피를 받아놓았다든지 또는 출마서신의 자세한 내용을 들었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총장님께서 말씀해 보시지요.

○參考人 崔勝浩 출마서신 카피를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일부 IOC위원들이……

○嚴虎聲 委員 자세한 내용은 들은 바가 있다?

○參考人 崔勝浩 출마 의향을 표명하고 지지를 요청했다는 얘기는 전해온 것이 있습니다.

○嚴虎聲 委員 그 출마서신에 평창올림픽 유치를 위해서도 도와달라는 내용이 들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얘기 들은 바 없습니까?

○參考人 崔勝浩 그 점에 관해서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嚴虎聲 委員 마지막으로 崔萬立 부위원장님께 하나만 묻겠습니다.

崔萬立 부위원장님께서는 이번 일에 너무 상심한 나머지 체육계의 모든 공식 직책에서 사퇴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얘기를 들은 저도 상당히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만일에 이번 평창올림픽 유치뿐만 아니라 IOC위원이 소속 국가의 정치적인 직함, 예컨대 국회의원이라든지 이런 정치적인 직함을 동시에 보유한다는 것이 대외적인 활동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작용할까요, 부정적으로 작용할까요?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IOC위원 중에서 그 나라의 국회의원직 같은 것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분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崔萬立 부위원장님의 소견을 여쭤보겠습니다.

○參考人 崔萬立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치와 스포츠는 분리되어야 되기 때문에 스포츠는 스포츠 하나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嚴虎聲 委員 예,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學元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의 金龍學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金龍學 委員 金龍學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金學元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문제는 순수한 金雲龍 IOC위원 개인의 문제입니다. 그 분의 행위가 이번 평창올림픽 유치 활동과 관련해서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우리가 말하고 있는 방해에 해당되느냐, 이것을 규명하고자 하는 것이지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치 쟁점을 극력 피해 왔고 앞으로도 피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IOC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우리 국내문제라는 점을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자꾸 정치적인 발언이나 정치쟁점 얘기가 나오니까 가슴이 아픕니다. 동계올림픽에서 그런 일은 없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섯 분이 앉아계시는데 공통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9일 회의에 나오셨던 李滄東 장관, 孔魯明 위원장, 金振兢 도지사 그리고 李衍澤 KOC 위원장 이 네 분에 비해서 여러분들이 유치행위와 관련해서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분들이 더 많은, 더 고급의 종합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이 맞지요?

그렇습니다. 오늘 나오신 분들은 10일 회의에서 진술한 결과를 놓고 보충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나오신 분들입니다. 제가 그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李今烘 태권도연맹 사무총장이신가요?

○參考人 李今烘 예, 그렇습니다.

○金龍學 委員 이번에 유치위원이셨지요?

○參考人 李今烘 예, 그렇습니다.

○金龍學 委員 유치위원으로서 기간 중에 해외에 나가신 적 있으십니까?

○參考人 李今烘 저는 유치위원으로 해외에 나간 적은 없고 마드리드도 GAISP 회원이기 때문에 국제경기단체 사무총장 자격으로 나갔고……

○金龍學 委員 그때 한번 나가셨습니까?

○參考人 李今烘 예.

○金龍學 委員 유치위원으로 나가신 적은 없네요?

○參考人 李今烘 예.

○金龍學 委員 그리고 유치위원의 핵심멤버가 아니시니까 특별히 회의에 참석하신 적도 없지요?

○參考人 李今烘 예.

○金龍學 委員 다음은 姜錫哉 씨, 유치위원이 아니시지요?

○參考人 姜錫哉 예, 아닙니다.

○金龍學 委員 그러면 유치위원회 일을 하시는 여기 다섯 분에 비해서 제일 비중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參考人 姜錫哉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金龍學 委員 예, 됐습니다.

아까 姜錫哉 위원께서는 프리젠테이션 때 金雲龍 위원이 참 잘 하셨다고 말씀하셨지요?

○參考人 姜錫哉 잘 하셨다는 얘기가 아니고 金 위원께서 나오시니까 옆에서 이야기하는……

○金龍學 委員 프리젠테이션 때 계셨습니까?

○參考人 姜錫哉 예, 앞에 있었습니다.

○金龍學 委員 그러면 그날 회의에 참석했던 분들에게 잘 물어보세요. 그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崔萬立 부위원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북미 IOC위원의 발언과 관련해서 말씀하셨을 때 대외비로 보고서를 작성해서 위원장에게 드렸다고 하셨습니까?

○參考人 崔萬立 예.

○金龍學 委員 대외비로 작성한 보고서 내용 중에 북미 IOC위원의 발언과 관련된 것이 포함되어 있지요?

○參考人 崔萬立 예.

○金龍學 委員 제가 알기로는 이번 유치활동 과정에서 崔 부위원장님인가요? OCA 부위원장에 나오려다가 사퇴한 적이 있다는 데 맞습니까?

○參考人 崔萬立 제가요?

○金龍學 委員 어느 분이시지요?

○參考人 崔萬立 OCA 부위원장하고 저는 관계없습니다.

○金龍學 委員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李衍澤 KOC 위원장님은 OCA 부위원장에 출마하시려다가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에 장애가 된다는 느낌이 들어서 사퇴한 적이 있습니다. 尹康老 위원도 그런 경험이 있지요?

○參考人 尹康老 예, 그렇습니다.

○金龍學 委員 그것이 무엇이었지요?

○參考人 尹康老 OCA 사무총장직에 도전했다가 인도 IOC위원이 있어서……

○金龍學 委員 그렇지요?

그때 사퇴한 것은 그것이 우리 동계올림픽 유치에 도움이 안 된다, 잘못하면 적대적인 관계가 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에 사퇴하신 것 아닙니까?

○參考人 尹康老 그렇습니다.

○金龍學 委員 그러면 공통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金雲龍 IOC위원이 부위원장에 출마하는 것과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와 관련해서 이것이 서로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대부분 유치위 내에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셨다는 것은 맞지요?

○參考人 尹康老 그렇습니다.

○金龍學 委員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날까지 高建 총리께서 직접 만류하셨던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委員長 金學元 아닌 분은 따로 얘기하세요.

○參考人 李今烘 지금 전체에게 다 물었기 때문에……

○委員長 金學元 지금 李今烘 참고인께서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參考人 李今烘 예.

○參考人 姜錫哉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두 분은 아니라고 하시는데, 되도록이면 의견은 묻지 않는 것이 좋겠고 사실만 물어 주시기 바랍니다.

○金龍學 委員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金雲龍 IOC위원이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에 방해 행위를 했다고 하는 것을 두 가지 관점으로 이야기 했습니다. 하나는 부위원장에 출마하는 부분, 이것이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에 방해가 된다는 관점에서 이야기했고 또 하나는 적극적인 '2014년 발언'과 '재수론 발언' 이런 것들입니다.

또 아까 崔 부위원장의 말씀대로 'Don't vote for Pyeongchang', '평창에 찍지 마라', 이런 발언들이 어떻게 보면 적극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저는 방해 행위라고 규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위원장 출마에 관해서는 지난 회의 때 입이 아프도록 모든 사람들이 세세하게 다 밝혔어요. 특히 金振兢 도지사께서는 날짜까지 특정해 가면서 하나하나 만류했던 부분들, 마지막 高建 총리까지 해서 세세히 밝혔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한점 의혹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적극적으로 어떤 행위를 했느냐 하는 부분인데 金敬天 위원께서는 막연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난 회의 과정들 그리고 그동안 보고되었던 사실들을 종합한다면 그렇게 막연한 것이 아니라 분명한 팩트입니다. '막연한 것을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고 떠들썩하게 해서 유감'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정반대로 좀더 이 부분을 정확하게 정리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金雲龍 위원의 발언은 지난번 도지사 진술과 孔魯明 유치위원장 진술, 이런 것들로 해서 일곱, 여덟 가지가 나옵니다마는 회의록에 다 기재되어 있으니까 빼고, 또 한 가지 4월 30일 유치위원회에서 金雲龍 위원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른 나라 다 재수했다. 당연히 될 것처럼 하지

말고 평창도 재수에 대비하면 좋겠다.” 바로 4월 30일입니다. 우리가 한참 피치를 올릴 때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한마디로 유치위원들 사기가 꺾이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무슨 재미로 하겠어요? 누구보다 앞장서서 열심히 평창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표를 얻어야 될 분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은 부인하지 못하실 것입니다.

국내 언론보도에 나온 것들, 그것도 이미 잘 아실 테니까 빼고 문동후 위원에게 한 것도 문동후 위원이 서면으로 인정했습니다. 본 위원에게 한 말도, 제가 직접 들은 것이니까 거기에 관해서는 특별한 말씀이 없으실 것 같고, 다른 분들도 몇 분 계십니다. 이것은 확실한 팩트입니다.

그리고 지난 회의와 오늘 회의를 거쳐서 국내 IOC위원 관련부분들은 숨길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崔萬立 부위원장이 혼자 들으셨지만 그것을 다시 옮겨 들을 때 들은 분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이런 확실한 사실을 두고서 막연하다고 말씀하신다면 도대체 여기에서 무엇을 꺼내야 됩니까?

崔萬立 부위원장께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어떤 이유로 우리가 1차에서 되리라고 생각하셨어요?

○參考人 崔萬立 표 분석을 했는데……

○金龍學 委員 분석결과 1차에 되리라고 생각했습니까?

○參考人 崔萬立 1차에는 제가 50표로 보았고요, 아까 누차 이야기했습니다마는 金雲龍 위원께서 일찍 오셔서 캐나다의 방해공작을 조금만 불식시켜 주고 평창을 위해서 자꾸 호소하고 다녔으면 51표로 1차에 됐으리라 믿었습니다.

○金龍學 委員 좋습니다.

崔勝浩 사무총장과 尹康老 차장께 묻겠습니다.

유치기간 동안에 유치위원이라든지 해외로부터 유치활동에 관련된 각종 정보들이 유치위원회로 계속 들어오지요?

○參考人 崔勝浩 그렇습니다.

○金龍學 委員 그러면 나름대로 취합하고 보고하는 것들이 계속 이어지지 않습니까?

○參考人 崔勝浩 예.

○金龍學 委員 또 그것을 토대로 새로운 전략도 짜고 그런 것 아닙니까?

○參考人 崔勝浩 그렇습니다.

○金龍學 委員 현장에 뛰는 분한테 정보를 주기도 하니까 이렇게도 활동을 해 달라, 그렇지요?

○參考人 崔勝浩 그렇습니다.

○金龍學 委員 그 과정에서 지금 공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는 金雲龍 IOC위원께서 소극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에 관해서는 아마 대부분이 공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崔萬立 부위원장님도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해 달라고 자꾸 간청하셨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崔勝浩 사무총장님은 그 부분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參考人 崔勝浩 특히 4월부터 金雲龍 위원의 ‘부위원장 출마설’ 때문에 저희들이 대단히 곤혹스러웠습니다.

○金龍學 委員 골치 많이 썩었지요?

○參考人 崔勝浩 예.

○金龍學 委員 尹康老 위원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 金雲龍 IOC위원이 부위원장에 출마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몰랐지만 4월 30일자 Sport Intern에 보도가 되어 공식적으로 알려진 것입니다. 그것은 金雲龍 IOC위원님께서 직접 자크 로게 위원장한테 얘기한 것으로 해서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때 보면 IOC위원들에게 서신(letter)을 돌렸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거짓말이 아니고 사실인 것 같고요.

그다음 6월 10일경에 金 위원께서 IOC위원들에게 출마서신을 돌렸다는 얘기가 있는데 아십니까? 그런 얘기를 들은 적 없어요?

○參考人 尹康老 전해들은 바 있습니다.

○金龍學 委員 6월 10일, 그 부분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Sport Intern지에 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Sport Intern은 아시다시피 독일에서 발행하는 격주간 영자신문이고 IOC관련 정보를 위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지난 회의 때 金雲龍 위원이 孔魯明 위원장과 金振兢 도지사에게 구독을 권유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때 하신 말씀이 “내 아들이 대주주이다. IOC위원들에게 영향력이 크다. IOC위원들에게 배포하면 좋다.” 그래서 1년 치 100부를 2만 불에 구독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해외에 나간 것은 없고 국내에서 전량 소모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사 내용이에요. 평창에 악의적인 기사가 계속 게재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

서는 다 보셨을 텐데 이의 있습니까?

그다음에 金雲龍 위원에 관한 기사들이 또 많이 나옵니다. 그렇지요?

○參考人 崔勝浩 그렇습니다.

○金龍學 委員 또 지난번 孔魯明 위원장이 말씀하신 부분인데 유치위의 핵심 책임자만 알 수 있는 金雲龍 위원과 관련된 고급기사가 거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듣고 아시지요?

○參考人 崔勝浩 압니다.

○金龍學 委員 6월 28일자에 나온 것이 무엇이냐 하면 프리젠테이션 때 金雲龍 IOC위원이 언제 발언할 것인지가 나와 있는데 그것은 최고급 정보이고 마지막에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6월 28일자에 실린 것입니다.

그리고 Sport Intern지는 金 위원의 영향력 범위 내의 인쇄매체로 알려져 있고…… 지난 7월 1일 프라하 총회장 주위에 평창에 악의적인 기사가 게재되어 있고 金雲龍 위원의 부위원장 출마를 기정사실화하는 기사가 게재된 6월 28일자가 뿌려진 것 아시지요?

○參考人 崔勝浩 압니다.

○金龍學 委員 오전에 뿌려졌다가 IOC위원들이 제재해서 말렸는데 오후에 또 뿌리다가 우리 유치위원들에게 잡힌 것을 아시지요?

○參考人 崔勝浩 압니다.

○金龍學 委員 그때 우리 유치위원이 그 사람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사진을 들어 보이며)

여기에 얼굴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전에 다섯 분에게 공통적으로 물어 보겠습니다. 사마란치 전 IOC위원장님과 金雲龍 위원님과는 상당히 각별한 사이라는 것은 다들 인정하시지요?

李今烘 씨 어떠세요?

○參考人 李今烘 각별하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金龍學 委員 오늘 돌린 자료에도 보면 코리아타임즈에 사마란치 위원장이 金雲龍 위원을 상당히 두둔하는, 지금까지의 金雲龍 위원의 주장을 대변하는 발언을 한 것이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또 金雲龍 위원님께서는 부위원장 출마 때 사마란치 위원께서 권유했다는 말씀도 하셨어요. 상당히 가깝다는 것은 만천하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 프라하 총회장에 뿌려졌던 6월 28일자 악의적인 내용의 Sport Intern지를 뿌린 사람의 신원이…… 그 사람의 주머니에서 명함이 나왔는데 무엇이 나온 줄 아세요?

2012년 마드리드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관련되는지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판단하더라도 두 번에 걸쳐서 캐나다 하고 오스트리아에서 그것을 뿌리겠는가? 저는 제가 아무리 머리가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그 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뿌리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 사실관계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혹시 그 관계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분 있습니까? 다섯 분 중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들이 서로 어떻게 연관된 것인가를 한번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매타도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평창표결 전에는 매타도어가 가능하지요. 평창이 졌는데 무슨 매타도어가 필요합니까? 본말이 전도된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金雲龍 IOC 위원에 관해서 개인적으로 존경하고 있었고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 일로 큰 실망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문제 삼았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시는 재현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을 거듭 강조합니다. 시간이 되어서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金龍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金容鈞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容鈞 委員 崔萬立 부위원장,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전 세계 IOC 위원이 몇 명입니까?

○參考人 崔萬立 126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容鈞 委員 우리나라에는 몇 명이 있습니까?

○參考人 崔萬立 3명입니다.

○金容鈞 委員 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가 구성되어서 그 3명의 IOC 위원 모두가 열심히 참여하고 있었습니까?

○參考人 崔萬立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金容鈞 委員 세 분 중에서 누가 가장 열심히 뛰었다고 봅니까?

○參考人 崔萬立 우리 회의에 나온 분은 박용성 IOC 위원이 제일 많이 나왔고 그리고 장관이 주재하는 회의에는, 저는 한 번도 안 가 봤습니다마는 거기에는 金雲龍 위원도 나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容鈞 委員 이건희 위원은 안 나갔습니까?

○參考人 崔萬立 이 위원님은 못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容鈞 委員 산하단체를 동원해서 활동했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參考人 崔萬立 이번 유치에 엄청나게 노력했다는 것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金容鈞 委員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나라가 전 세계 126명의 IOC 위원 중에서 3명이나 IOC 위원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활동력이 강하다는 것은 인정할 수 있는 것이지요?

○參考人 崔萬立 그렇지요.

○金容鈞 委員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된 것이 金雲龍 IOC 위원이 이번 활동에 소극적이었거나 아니면 기여를…… 오히려 역기능을 했다 이런 것이 문제가 되어서 오늘 회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崔萬立 부위원장께서 북미 쪽의 IOC 위원 3명으로부터 좀 부정적인 발언을 하는 것을 들었다 이런 얘기를 들으셨다고 했는데 그 세 사람이 누구인지 기억하십니까?

○委員長 金學元 金 위원님, 그것은 우리가 IOC 위원 개인을 지적하거나 이런 문제를 좀 안 하기로 간사들끼리 협의를 했습니다.

○金容鈞 委員 기억은 하는데 이야기는 안 하기로 한 겁니까?

그래서 주로 金振兢 도지사라든지 孔魯明 유치위원장 등의 진술을 보면 金雲龍 위원은 2010년에 대해서는 그렇게 적극성을 띠지 않고 2014년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했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參考人 崔萬立 유치활동 하는 동안에 해외에서 그런 얘기를 하길래 저는 일축했습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金容鈞 委員 본인으로부터 들었습니까?

○參考人 崔萬立 저는 못 들었습니다.

○金容鈞 委員 간접적으로 다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전해 들었다 이런 얘기입니까?

○參考人 崔萬立 예, 그렇습니다.

○金容鈞 委員 崔勝浩 사무총장께 물어보겠습니다.

유치위원회의 사무총장 같으면 세 사람의 IOC 위원과 서로 긴밀한 연락을 가지고 활동을 했습니까?

○參考人 崔勝浩 아닙니다.

사무총장은 어느 나라의 경우에나 IOC 위원과 서로 연락을 할 그런 입장에 있지 않습니다.

○金容鈞 委員 우리 IOC 위원하고도 연락을 안 했습니까?

○參考人 崔勝浩 그렇습니다.

직접 연락한 적은 별로 없었습니다.

○金容鈞 委員 그런데 올림픽규정에 보면 IOC 위원은 유치활동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지요? 자국의 올림픽을 유치하는 활동이나 운동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지요?

○參考人 崔勝浩 공개적으로 나서지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金容鈞 委員 그러니까 음성적으로 움직이고 공식적인 활동은 안 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參考人 崔勝浩 그렇습니다.

○金容鈞 委員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유치를 하기 위해서 음으로 양으로 노력한 분이 세 명의 IOC 위원 중에서 누가 제일 열심히 노력했다고 봅니까?

○參考人 崔勝浩 IOC 관계 규정 등에 비추어서 제가 대답을 할 수가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金容鈞 委員 그럼 유치활동은 안 했더라도…… 유치지역의 IOC 위원은 투표권이 없지요?

○參考人 崔勝浩 없습니다.

○金容鈞 委員 투표권도 없고 유치활동을 하지 못하는데 본인들은 안 했더라도 누가 가장 적극적으로 유치활동하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밀어주었다고 생각합니까?

○參考人 崔勝浩 두 분 IOC 위원께서 상당히 노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容鈞 委員 두 분이라면 박용성, 이건희 두 분을 이야기합니까?

○參考人 崔勝浩 그렇습니다.

○金容鈞 委員 金雲龍 위원이 프라하에 나타난 날짜는 언제였습니까?

○參考人 崔勝浩 제 기억에는 6월 30일로 기억됩니다.

○金容鈞 委員 표결이 언제 있었습니까?

○參考人 崔勝浩 7월 2일입니다.

○金容鈞 委員 활동을 했으면 30일·1일인데, 그리고 바로 투표에 들어갔네요?

○參考人 崔勝浩 그렇습니다.

○金容鈞 委員 그 전에 金雲龍 위원이 미주나 기타 다른 지역을 여행하면서, 스페인이나 이런 곳을 여행하면서 유치활동을 도와주었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參考人 崔勝浩 5월 마드리드 평의회 때에는 제가 다른 국제회의가 있어서 참석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지는 못 했습니다.

○金容鈞 委員 5월 마드리드에도 많은 IOC 위원이 다 참석했습니까?

○參考人 崔勝浩 그랬습니다. 집행위원회가 있었는데 중요한 회의였습니다.

○金容鈞 委員 그럼 거기에서 金雲龍 위원이 체재한 일자는 얼마 정도 됩니까?

○參考人 崔勝浩 잘 모르겠습니다.

○金容鈞 委員 거기에서도 특별히 어떤 활동하는 내용을 본 기억은 없습니까?

○參考人 崔勝浩 없습니다.

제가 회의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제가 다른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金容鈞 委員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거기에서 괄목할 만한 활동을 한 것은 발견하지 못 했다고 생각해도 됩니까?

○參考人 崔勝浩 그렇습니다.

○金容鈞 委員 尹康老 사무차장이신가요?

○參考人 尹康老 예.

○金容鈞 委員 대한체육회에 계시고 IOC에 계시니까 金雲龍 IOC 위원님하고 잘 아실 것으로 아는데, 金雲龍 위원이 이번에 이 유치에 소극적이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參考人 尹康老 사실 어떤 의견이나 판단의 근거는 실무입장인 제 입장으로는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것은 사실 주관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송구스럽습니다.

○金容鈞 委員 여기서는 주관적인 것도 좋습니다.

○參考人 尹康老 저는 유치위원회에 지금까지 7월, 30일간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유치위원회 의견에 동조합니다.

○金容鈞 委員 위원회에서 金雲龍 위원에 대해 섭섭하게 생각하는 부분에 동조한다는 얘기입니까?

○參考人 尹康老 그렇습니다.

○金容鈞 委員 그러나 섭섭하긴 한데, 문제는 구체적으로 어떤 유치활동을 방해했다든지 적극적으로 유치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어렵게 했다는 그러한 조짐이 있었습니까?

○參考人 尹康老 저는 사실 21년 동안 국제활동을 많이 하다가 실무 일선에서 소총수 역할…… 그래서 저는 직책이 두 개입니다. 국제담당사무차장, 대외공동사무총장 두 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IOC 위원들을 접촉할 때는 공동사무총장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상당히 많이 여러 가지 일, 프리젠테이션 준비, 비드북 준비, 접촉준비, 교신·전화·팩스 이런 것을 했기 때문에 사실 내부의 그런 활동까지 신경 쓸 겨를도 없었고 거의 일선에서 뛰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크게 분석을 안 해 봤습니다. 나중에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지금 이 자리에서는 부정확한 얘기, 짐작 추측으로 말씀드리기는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金容鈞 委員 다만 짐작 추측의 차원도 있겠습니다마는 국제담당사무차장으로서 외국의 IOC 위원을 접촉한다든지 외국의 주요체육계 인사들을 접촉해서 동계올림픽을 한국에 유치하고자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 사람들이 상당히 시니컬(cynical)하게 나오면서 너희 IOC 위원도 찬성 안 하는데 왜 하려고 하느냐라든지 이런 식의 유사한 반응을 본 적이 있었습니까?

○參考人 尹康老 저는 아시다시피 金雲龍 위원님이 KOC 위원장을 맡으실 때 국제 업무를 계속 보좌해 드렸기 때문에, 예를 들면 金雲龍 위원장의 정책노선이나 개인의 호·불호에 따라서 그런 얘기를 만약에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분들은 그런 얘기를 저한테 피했을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들은 것은 金雲龍 위원님을 중심으로 유치활동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金容鈞 委員 외국 IOC 위원들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지요?

○參考人 尹康老 예.

○金容鈞 委員 대개 유치활동의 경비라고 할까 대외비일 수도 있고 공식적인 것일 수도 있는데 유치활동경비를 金雲龍 위원에게 지원한 것이 있습니까?

○參考人 尹康老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선의 외국담당입니다. 그래서 돈 관계는 일체 사인한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습니다.

○金容鈞 委員 崔勝浩 사무총장님 어떻습니까? 유치활동비, 여비라든지 파티비라든지 지원한 적 있습니까?

○參考人 崔勝浩 그런 경비는 지원한 일이 없습니다.

○金容鈞 委員 주로 누가 유치활동에 드는 비용을 제일 많이 썼습니까?

○參考人 崔勝浩 제 생각에는 위원장 그리고 강원지사가 비슷하게 집행하였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金容鈞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프라하에서 평창올림픽유치활동을 하는 동안에 프라하 시내가 거의 한국 일색의 대단한 분위기를 연출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參考人 崔勝浩 삼성의 프로모션이 상당히 눈부셨습니다.

○金容鈞 委員 삼성이라고 하면 이건희 회장이 주도하고 있는 그룹 말씀입니까?

○參考人 崔勝浩 그렇습니다.

○金容鈞 委員 그러면 그러한 대단한 열기, 대단한 분위기, 그룹차원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벌이는 그런 상황에서는…… 처음에 몇 표 나왔지요?

○參考人 崔勝浩 1차 때 51표, 2차 때 53표 나왔습니다.

○金容鈞 委員 51표를 1차 투표에서 얻었다는 것은 金雲龍 위원의 공이 없이도 가능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까?

○參考人 崔勝浩 金雲龍 위원께서도 도움은 주셨을 겁니다.

○金容鈞 委員 전혀 도움 주지 않고 방해했기 때문에 안 되었다는……

○參考人 崔勝浩 부위원장 출마로 인해서 올 수도 있었던 표가 오지 않았던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金容鈞 委員 말하자면 한국의 유치위원회 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프라하의 분위기로 봐서는 거의 과반수를 넘을 수 있는 그런 압도적인 분위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놓쳤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까?

○參考人 崔勝浩 저희들은 상당히 긍정적인 기대를 가지고 프라하에 도착했습니다.

○金容鈞 委員 그러면 현재 유치위원회에서, 물론 유치에는 실패를 했고 2010년의 동계올림픽은 물 건너갔습니다. 2014년을 향해서 가야 될 이런 시점에서 이러한 국회에서의 진상조사활동까지 이르게 된 불행한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볼 때 그 세 분을 생각할 때 여기에서 金雲龍 위원이 지금 현역 국회의원인데 金雲龍 위원이 결정적으로 이 유치활동에 잘못한 어떤 이러이러한 증거가 있다고 제시할 만한 것이 있습니까?

이 사람으로 인해서 이것이 잘못되어서 유치활동이 실패했다 이런 어떤 사실관계가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參考人 崔勝浩 저희들은 Sport Intern지의 평창을 사실상 음해하는,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유치위원회에서 굉장히 많이 고뇌를 했고 고통스러운 얘기들을 많이 나누었습니다.

○金容鈞 委員 본 위원도 그 유치위원회의 관계자들의 여러 가지 심정, 그 통탄할 어떤 경과 이런 것은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안타깝고 참 억울한 일입니다. 우리가 노력도 많이 했고 그런 과정에서 金雲龍 위원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섰더라면 되었지 않았겠느냐 이런 아쉬움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유치활동을 방해한 구체적인 어떤 증거라든지 증언이나 진술 이런 것이 좀더 없었는지 전문증거만 가지고, 소위 영어로 말하면 히어세이 에비던스(hearsay evidence)만 가지고 이 문제를 우리가 과연 본격적으로 다룰 수 있느냐 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들어가기에 앞서서 오늘 참석을 할 예정으로 있었던 문동후 참고인은 불참사유서를 제시하면서 그에 관련된 경위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위서에 관해서 일단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추가질의 위원들이 계시면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경위서를 보면 “2003년 7월 7일자 국내 언론에 보도된 金龍學 의원이 발표한 내용 중 본인과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그 경위를 밝힙니다.

2003년 6월 30일 오후 7시 반경 현지 시간, 체

코 프라하 힐튼호텔 시트루스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하던 중 金雲龍 IOC 위원께서 식당에 오셔서 인사를 드리자 '왜 왔어, 되지도 않을 텐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유치전망을 어둡게 보고 계신다고 생각되어 유치단 일행 한두분과 유치전망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상기 내용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은 사사로이 金雲龍 위원과 옛 부하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본인이 인사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것으로서 유치단의 종합적인 판단에 참고가 될까 하고 유치단 일행에게 말씀드린 것이며 결코 金雲龍 IOC 위원을 비방할 의도는 아니었음을 첨언합니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는 양당 간사들과의 협의에서 5분으로 제한을 하도록 했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咸承熙 위원 질의하십시오.

○咸承熙 委員 아까 질의하다가 못한 것 한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사무총장! 아까 金容鈞 위원께서 구체적인 증거가 뭐냐라고 물으니까 Sport Intern지에서의 평창은 어렵다는 끊임없는 음해기사를 하나의 예로 들으셨는데 사실 Sport Intern지는 우리가 우리한테 도움이 될까하고 2만 불까지 지급한 신문사 아닙니까?

○參考人 崔勝浩 그렇습니다.

○咸承熙 委員 그런데 왜 이런 데에 2만 불을 주었나요?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음해하는 잡지사한테 무엇 때문에 2만 불을 주었나요?

○參考人 崔勝浩 작년 11월에 구독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咸承熙 委員 그러니까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라 金雲龍 위원의 권유에 의해서 했단 말이지요.

○參考人 崔勝浩 예, 그렇습니다.

○咸承熙 委員 그러면 잘못 짚었군요, 우리를 음해하는 곳에 돈을 주었으니까요.

○參考人 崔勝浩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咸承熙 委員 본인이 부위원장이라는 사욕을 탐해서 소극적으로 움직였다는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이 필요 없을 것 같고, 요 전날하고 오늘한 것으로 충분히 되었는데 문제는 적극적으로 평창 찍지 말라고 하고 다녔느냐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지금 그것을 입증할만한 것은 두 가지, 말하자면 崔萬立 부위원장의 孔魯明 위원장에 대한 보고사실과 또 하나는 끝나고 나서 저녁 리셉션장에서 북미의 어떤 IOC 위원이 안 되었다, 미키 김 또는 닥터 김이 "Don't vote for PyeongChang" 이렇게 서너 명의 IOC 위원한테 말하고 다녔다, 그래서 사실은 그것이 너희들한테 큰 영향을 주었다 이런 얘기를 들었다는 것이 결정적인 것이라고 지금 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이것이 전언한 것인데 崔萬立 부위원장님, 지금 하와이에 거주하시나요? 미국 영주권 가지고 있습니까?

○參考人 崔萬立 아니요, 서울에 있고 사업체도 있고 우리 집사람이 4년 전에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지금 휴양지로 하와이 자주 가고……

○咸承熙 委員 어쨌든 영어를 꽤 능숙하게 하시지요?

○參考人 崔萬立 제가 미국에서도 죽 공부를 했고, 미국에서 대학교 교편 잡았었습니다.

○咸承熙 委員 그래서 좀더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서 내가 아까 물었습니다. 그것을 영어로 한번 이야기 해 보세요. 북미 IOC위원이 "안 되었다, 미키 김이 이렇게 떠들고 다녔다." 그것 영어 좀 한번 해 보시지요.

○參考人 崔萬立 아까 제가 했습니다.

○咸承熙 委員 아까 했어요? 왜 제가 처음 물었을 때에는 생각 안 나는 것처럼 했습니까?

○參考人 崔萬立 아까 제가 했어요.

○咸承熙 委員 뭐라고 그랬습니까?

○參考人 崔萬立 아까 했습니다. 속기록 보면 나와 있을 것입니다.

○咸承熙 委員 왜 그러면 내가 처음 물었을 때에는 직설적으로 대답을 못하고 나중에 얘기 했느냐 이 말이에요.

○參考人 崔萬立 "안 되었다." 그렇게 했습니다.

○咸承熙 委員 아니, 들은 말을 그대로 해 보라니까요, 그래야 신빙성이 가는 것 아닙니까?

○參考人 崔萬立 글쎄요, "Don't vote for……"

○咸承熙 委員 "Don't vote for……" 평창 보고 안 되었다 하는 것을 영어로 뭐라고 했느냐 이 말이에요. "too bad"라고 했습니까, "sorry"라고 했습니까?

○參考人 崔萬立 "sorry" 라고……

○咸承熙 委員 그냥 "sorry"라고 했어요?

○參考人 崔萬立 예, “sorry”라고 했습니다.

○咸承熙 委員 글쎄, 그런 것들이 좀 리얼하게 나와야 이 양반이 들은 말을 전하는구나 이렇게 되지 “안 되었다”를 한국말로 하면 본인의 의도가 거기에 개입된 말로 들린다 이 말입니다.

○參考人 崔萬立 제가 전한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 孔魯明 위원장이 전한 것입니다.

○咸承熙 委員 본인이 孔魯明 위원장한테 얘기를 해 주어서 孔魯明 위원장이 아는 것 아닙니까?

○參考人 崔萬立 그렇지요.

○咸承熙 委員 그 IOC의 말을 일차적으로 들은 것은 본인이란 말이지요.

○參考人 崔萬立 그렇지요.

○咸承熙 委員 그러니까 본인의 말이 리얼해야 되거든요.

○參考人 崔萬立 그렇지요.

○咸承熙 委員 한번 그대로 연출해 보시지요. 그래야 우리가 아, 듣기는 들었구나 하는 신뢰가 가는 것 아닙니까?

○參考人 崔萬立 그 정도 해 주시지요.

○咸承熙 委員 좋습니다. 그 정도 하지요.

그다음에 7월 1일에 개막식을 하고, 체코 대통령과 우리 대표단 50명도 거기에 참석했습니다마는 개막식 끝난 후에 스메타나홀에서 파티 했는데 그때 여기 계신 분도 다 참석했나요? 尹康老 차장은 내가 본 것 같고, 다 참석하셨지요?

그런 자리도 적극적인 우리 활동무대가 아닙니까? 어떤 사람들은 조직과 깊은 친분관계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거기에서 악수하고 내가 어디에서 왔느냐 하는 정도 가지고 되겠느냐고 폄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마는 모든 선거가 그렇듯이 꼭 조직과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감동적인 프리젠테이션을 잘 한다든지 이런 것도 큰 역할을 하지 어떻게 꼭 아는 사람만 잘 합니까? 그러니까 그 전야제 때 IOC위원이 적어도 100여 명 가까이 나왔으면 그 자리에서 많은 우리 대표단이 끊임없이 악수하고 다니면서 내가 누구다, 또 우리 평창이 이런 장점이 있다고 여러 가지 설명하는 것도 나는 꽤 기여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金雲龍 위원이 좀 적극적으로 하고 다녔습니까, 안 다녔습니까? 나는 잘 못 보았단 말이에요.

○參考人 崔萬立 저도 뵙지 못 했어요.

○咸承熙 委員 우리 崔 총장은요?

○參考人 崔勝浩 예, 뵙지 못 했습니다.

○咸承熙 委員 본인의 변명은 그런 데에서 악수했다고 되는 것이냐, 저 깊숙한 데 가서 은밀하게 해야지 이런 식이지만, 물론 은밀하게 밥 먹어 가면서 하는 것도 한 방법이겠지만 내가 보기에 그 현장에 캐나다 사람은 50명이 그대로 다 있었습니다. 우리 대표단은 불과 10명도 없었어요. 어떻게 보아야 되느냐의 시각차이지만 나는 그런 점에서 좀더 열성적이었어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안 했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평창 유치보다는 본인의 부위원장 자리를 좀더 탐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尹 사무차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점에는 동의하나요?

○參考人 尹康老 아까 위원장님께서 평가와 판단을 요구하는 용어는 좀 자제해 달라는 말씀을 상기해 드리고 싶고요, 사실 확인에 대한 것만……

○咸承熙 委員 그때 분위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말이에요.

○參考人 尹康老 글쎄요, 그때 분위기는 주관적이겠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있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咸承熙 委員 나는 파티장에서의 인사나 활동도 충분히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이 말이지요, 그것은 맞지요?

○參考人 尹康老 그렇습니다.

○咸承熙 委員 그러면 그런 데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파티가 2시간 동안 계속되었으니까 2시간 동안 열심히 악수하고 다니면 좀더 효과가 있었을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 이 말이에요. 캐나다 대표들은 분명히 그렇게 하고 다녔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요, 우리 사무총장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參考人 尹康老 그렇습니다.

○咸承熙 委員 이상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보충질의를 되도록이면 5분 내로 줄여서 간략하게 요점만 해 주시지요.

○金映宣 委員 崔勝浩 사무총장님께 묻겠습니다.

咸承熙 위원님 말과 같이 金雲龍 위원께서 본인의 부위원장 출마를 위해서는, 3월부터 출마설이 떠돌았고 4월에는 金龍學 위원님이나 다른 분들한테도 얘기를 했고, 편지를 주었고, 발언을 했고, 신문에 났고 해서 지속적으로 뉴스가 생산이

되었지요, 그렇지요? 부위원장 출마에 관해서 끊임없이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參考人 崔勝浩 뉴스로 나왔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金映宣 委員 나중에는 Sport Intern지에도 나오고 했잖아요?

○參考人 崔勝浩 예, 한 번 나왔습니다.

○金映宣 委員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종류로 또 지속적으로 말로, 풍문으로 떠돌거나 편지로 갔다는 얘기를 듣거나 신문에까지 결국에는 나지 않았습니까?

○參考人 崔勝浩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金映宣 委員 그런데 金雲龍 위원께서 평창 유치를 위해서 무엇을 했다고 하더라는 얘기는 계속 들려 왔습니까? 누구를 만났더라, 무엇을 했더라 하는 것이 유치위에 보고 되고 또 풍문으로 편지를 보냈다더라, 신문에 뭐가 났다더라 하는 것이 그만한 강도로 나왔습니까?

○參考人 崔勝浩 유치위원회에서는 그 점에 관해서 사실 상당히 안달을 하고 있었습니다.

○金映宣 委員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4월부터 목욕탕에서 평창 안 된다, 또 청와대에서 재수론을 얘기하면서 평창은 안 된다는 얘기는 끊임없이 해왔다고 지금 보고가 되어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간간이 풍문으로 들으셨지요? 평창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청와대에서도 얘기를 했고 또 목욕탕에서도 들었다고 얘기를 하고 우리 金學元 위원님도 들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평창 안 된다는 이야기는 간헐적으로 계속 들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參考人 崔勝浩 단번에 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들었습니다.

○金映宣 委員 그런데 한 번이라도 金雲龍 위원께서 아, 이것 평창에 해가 되니까 내가 부위원장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한다, 그만 두겠다 이런 얘기 한 적 있습니까?

○參考人 崔勝浩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金映宣 委員 그런데 평창올림픽이라는 것이 가만히 있으면 우리에게 오게 되어 있었는데 표를 잃어서 안 온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열심히 뛰어서 총력전을 벌여서 따 내야 되는 것입니까?

○參考人 崔勝浩 총력전을 벌여야 됩니다.

○金映宣 委員 그러면 이 평창 유치는 국가적으로 결정한 것인데 金雲龍 위원이 부위원장에 출마하기로 한 것은 누가 추대했습니까, 어디에서 결정한 데가 있습니까, 본인이 결심한 것입니까?

○參考人 崔勝浩 유치위원회에 관한 한 안 나오시는 것이 좋다는 판단하에 굉장히 말리는 방향으로 안 나와 주었으면 하는……

○金映宣 委員 부위원장 출마는 개인적으로 결정하신 것이지요?

○參考人 崔勝浩 그렇습니다.

○金映宣 委員 그리고는 체류비용이라든지 항공료는 유치위원회에서 댄 것 아닙니까, 金雲龍 위원의 비행기 값하고 체류비용은 유치위원회에서 댔지요?

○參考人 崔勝浩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급이 되었는지 지금 이 시점에서는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金映宣 委員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본인이 개인적으로 출마하는 것에 대해서는 말도 흘리고 편지도 보내고 신문에도 냈는데 평창 유치에 관해서는 뭐, 안 된다는 얘기는 계속 들려오지만 적극적으로 했다는 것은 안 들어오고, 아까 尹康老 씨의 말씀은 유치위원회와 협조나 공조조차도 없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많은 기대를 걸고 심지어는 평창 평창이라고 말이라도 좀 해달라고 崔萬立 씨가 말씀을 했는데 그것도 협조를 안 했다는 것 아니에요. 평창이라고 얘기하는 것조차 안 했으니까 이것은 적극적으로 자기 출마는 했지만 또 적극적으로 평창에 대해서 저지했다고 판단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어떻게 생각해요, 崔勝浩 사무총장님? 그래서 분개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분개의 원인이 그것 아닙니까?

○參考人 崔勝浩 그렇습니다.

○金映宣 委員 그러면 아까 평창유치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결론은 안 났지만 상당히 분개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내부적으로는 金雲龍 위원이 처음에는 평창은 가능성이 없다고 소극적으로 얘기를 하다가 5월 15일 이후에 가능성이 부쩍 높아지니까 여러 IOC위원들한테 다니면서 '평창은 안 된다, 시설이 없어서 안 된다'라고 평창의 빈약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얘기해도 안 되니까 결국 6월 28일에 Sport Intern에 내고 그것도 안 되어서 7월 1일에 두 번이나 돌리다가 붙잡힐 정도로 아주 적극적인 방해를 했다,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은 비애국적이다 이렇게 격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參考人 崔勝浩** 저희들로서는……

○**金映宣 委員** 그런 얘기가 오간 적 있지요?

○**參考人 崔勝浩** Sport Intern 자체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걱정도 많이 했고 화도 많이 냈습니다.

○**金映宣 委員** 尹康老 사무차장님, 내부적으로 그런 걱정을 했지요? 처음에 소극적으로 견제구를 던지다가 결국 막판에는 Sport Intern을 돌려가지고 적극적으로 방해했다, 이렇게 사태가 진전되었다 이런 얘기를 내부적으로 한 적이 있지요?

○**參考人 尹康老** Sport Intern에 관해서는 崔勝浩 총장과 같은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金映宣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다음에는 全甲吉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 대략 다 나왔기 때문에 보충질의는 되도록 짤막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시지요.

○**全甲吉 委員** 全甲吉 위원입니다.

尹康老 참고인께 먼저 묻겠습니다.

尹康老 참고인은 프라하로 언제 출발해서 도착했습니까?

○**參考人 尹康老** 孔魯明 위원장님을 모시고 25일 현지에 도착했습니다.

○**全甲吉 委員** 尹康老 참고인이 하는 일이 무엇이지요?

○**參考人 尹康老** 아까 말씀했지만 대외적으로는 공동사무총장으로 IOC위원들과 회의 접촉, IOC의 동향 그다음에 외신 등 분위기 파악……

○**全甲吉 委員** 개인적으로 IOC위원들을 접촉한 바는 있습니까?

○**參考人 尹康老** 있습니다.

○**全甲吉 委員** 몇 명이나 접촉했어요?

○**參考人 尹康老** 그 당시에 29일부터 집행위원회가 열리기 때문에 28일까지 도착한 IOC 집행위원들을 몇 분 만났습니다.

○**全甲吉 委員** 접촉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參考人 尹康老** 접촉해서 평창의 프리젠테이션을 보고 결정해 달라 그런 얘기를 전달했고, 프리젠테이션을 보고 하겠다는 얘기들도 몇몇 들었습니다.

○**全甲吉 委員** 예를 들어서 차를 마시면서 정담을 나눈다든가 식사를 한다든가 그런 것은 없고?

○**參考人 尹康老** 윤리규정에 식사는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全甲吉 委員** 차는?

○**參考人 尹康老** 저녁 때 바에서 술 한 잔 한 적도 있습니다.

○**全甲吉 委員** 그런 적 있습니까? 몇 명과 했습니까?

○**參考人 尹康老** 그 당시에는 2명이고 7월 2일까지는 여러 명 됩니다.

○**全甲吉 委員** 그다음에 같은 내용을 崔勝浩 참고인에게 묻겠습니다.

방금 얘기했던 것들을 통해 어느 정도나 활동했습니까?

○**參考人 崔勝浩** 저는 28일에 도착을 했습니다.

저는 사실은 처음부터 작년 11월에……

○**全甲吉 委員** 알았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죄송합니다.

崔勝浩 총장, 이번에 유치위원들이 총 유치경비로 얼마를 지출했지요?

○**參考人 崔勝浩** 지난 3년간 170억 원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全甲吉 委員** 180억을 4년간에 썼는데 그 돈은 주로 어디에 많이 지출되었습니까?

○**參考人 崔勝浩** 대부분은 경상비로 들어갔습니다.

○**全甲吉 委員** 물론 유치해야 되니까 활동하고 그러면 경상비가 필요하겠지요.

○**參考人 崔勝浩** 그렇습니다.

○**全甲吉 委員** 崔勝浩 씨의 그동안의 답변을 제가 잘 듣고 있었어요. 외교관도 하시고 대사까지 하신 분인데, 외국에서 많이 생활을 해서 아마 외국문화를 많이 접해 보신 분일 것 같은데 지금까지의 말씀이 金雲龍 위원의 방해공작과 소극적이었던 것을 본인이 직접 본 바는 없고 얘기를 전해 들었다고 했지요?

○**參考人 崔勝浩** 그렇습니다.

○**全甲吉 委員** 그다음에 尹康老 참고인도 대부분 그런 것이지요?

○**參考人 尹康老** 그렇습니다.

○**全甲吉 委員** 보고 느꼈지요?

그런데 제가 아까 1차 질의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든 문제는 양면성이 있고 부정과 긍정으로 같이 봐야 되는데 왜 들은 자체 그 하나 가지고 그렇게 강변을 하면서 그것이 사실인양 확신하고 있는지에 대해 저는 의구심이 가요. 이런 것이 자칫 잘못하면 유치를 하면서 180억에 가까운 국민의 혈세를 쓰고도 어렵다 보니까 한 사람

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수단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저는 갑니다.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왜 사실이 아닌 것들을 사실인양, 들은 것을 가지고 합니까? 들은 것은 들었다고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崔萬立 부위원장님께서는 孔魯明 위원장께 모든 것을 들은 것 같이 아까 말씀하시데요. 모든 내용들이 孔魯明 위원장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이, 거기에서 들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의 발단은 소극적인 면은 수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가 평가하기 어렵고 개인적인 견해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방해를 했다는 것은 그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방해근거는 곧바로 崔萬立 부위원장님이 IOC위원에게 들었다고 孔魯明 위원장에게 얘기해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방해공작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崔萬立 부위원장님 말씀을 듣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 아시지요?

○參考人 崔萬立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全甲吉 委員 그렇습니까?

○參考人 崔萬立 예,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저는 金雲龍 위원을 잘 아는데 그 분의 성격상 함부로 얘기하는 것은 있습니다.

○全甲吉 委員 저도 아까 적절하지 못한 표현들이 있는 것 같아요.

○參考人 崔萬立 그래서 나는 그 양반이 앞장서 가지고 방해했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나 소극적이라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全甲吉 委員 정리하겠습니다.

방해했다는 증거는 없는 것 같고 — 소극적인 것은 견해에 따라 틀린 것입니다 — 그래서 방해를 안 한 것으로 규정이 된 것 같아요. 방해했다는 것이 崔萬立 부위원장님에게서 나온 말이 분명한 것 같은데 제가 세 분께 묻고 싶은 것이 이번에 2차까지 53표를 얻었는데 거기에서 金雲龍 위원이 한 역할이 전혀 없었다고 볼 수는 없지요, 그렇지요?

金雲龍 위원의 표가 전혀 없었습니까?

○委員長 金學元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되도록이면 어떤 사실만 물어주세요. 평가라든지 이런 것은 되도록이면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해 주시고……

○全甲吉 委員 그것 하나만 여쭈어 보면 확연하게 방해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겠는데, 崔萬立 부위원장님께서 방해한 흔적은 없었다고 하니까 저는 그것으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다른 분은 보충질의가 없으신 것 같고 金敬天 위원님께서 5분 범위 내에서 보충질의를 하시고 그 보충질의가 끝나고 난 뒤에 金雲龍 위원님께 질의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증인심문은 아니지만 金雲龍 위원님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이기 때문에 金雲龍 위원님께 반대심문의 기회를 드리는 것이 형평에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보충질의를 마치고 난 뒤에 金雲龍 위원님께도 질의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金敬天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金敬天 委員 스포츠정신이 페어플레이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결국 '서툰 무당이 사람 죽인다'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디서 들었다 들었다 하는 것 가지고 마치 사실인양 지금까지 이야기했는데 결과적으로 그것이 확실한 증거는 없고 들었다 하는 이야기로 오늘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특히 아까 嚴虎聲 위원께서 崔萬立 부위원장에게 질의를 할 때 정치인이 한 명도 없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조사한 결과로는 우리나라의 金雲龍 위원을 비롯해서 모두 8명이나 되는데 그것이 어디에서 나온 근거입니까?

○參考人 崔萬立 제가 무슨 얘기 했어요? 제가 그 얘기 안 했습니다.

○金敬天 委員 그러면 어느 분이 정치인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변을 하셨나요?

안 했으면 됐습니다마는 그야말로 추측으로 이야기가 이렇게 확대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이러한 논란이 우리나라의 국익과 위상에 엄청난 손상을 가져왔다는 것을 자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李今烘 세계태권도연맹사무총장에게 묻겠습니다.

이번 프라하 총회에 참석을 했고 숙소도 같은 숙소를 쓰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雲龍 위원께서 한 역할에 대해 보신 대로 간단히 소감을 말씀해 주십시오.

○參考人 李今烘 제가 평창유치위원회 멤버로서 가기는 했지만 그 카드를 가지고는…… IOC위원들이 전부 힐튼호텔 7층, 8층에 묵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IOC위원 게스트 신분을 하나 더 만들어서 제가 총재님하고 같은 8층에 투숙을 하게 됐는데 그 8층에는 IOC위원들하고 IOC게스트 이외에는 일체 출입이 통제가 된 곳입니다. 아침 식사도 거의 그 8층에 준비되어 있어서 전체 IOC위원들이 아침 식사를 하면서, 또 그 옆에 조그만 룸들이 여러 개가 있습디다. 거기에서 중요한 얘기들이 오고 가는 것을 목격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아까 소극적이었다 안 만났다 하는 얘기는…… 밑에 내려오는 사람은 유치위원회 사람들의 이목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위에서 아침 식사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접촉하는 것을 제 자신이 같은 층에 투숙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목격했고 방해 행위나 이런 것은 절대로 없었다는 것을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金敬天 委員 사실 견해차이는 있겠지만 들었다 들었다 하는 것을 사실화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앞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정말 스포츠 외교 및 더 나아가서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 전략에도 대단히 차질을 가져오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다섯 분의 증언을 듣는 가운데서 사실 확실한 근거는 없으면서 마녀 사냥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결론은 우리 위원들께서 내릴 일이지만 앞으로 이러한 오류가 없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면 金雲龍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시간은 다른 위원님들하고 똑같이 15분 드리겠습니다.

○金雲龍 委員 질의라기보다 궁금하게 생각하고 계시는 것을 제가 좀 소상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예, 편하신 대로 하십시오.

○金雲龍 委員 그러면서 혹시 필요하면 예를 들어서 아까 유치위원회에서 여비를 주었느냐고 그럴 때 사무총장인 행정책임자가 확실하게 준 적 없다고 그러면 되는데 잘 기억이 안 난다는 둥 모른다는 둥, 또 1억 8000을 받았느냐고 했는데 그것은 대한체육회가 세계태권도연맹 30주년에 준 것인데 그런 것까지 갖다 붙이고 행정책임자가 뭘 하고 있었어요? 그런 것을 좀 소상히 밝히겠어요.

우리 특위는 평창을, 제가 민주당의 평창유치 특위위원장을 하고 대구가 제 고향이니까 유치를 하는 데 일조를 했습니다마는 이 특위도 평창유치를 지원하는 특위입니다. 그런데 지금 근거 없는 여러 가지 오해에서 오는, IOC에 대해서 모르는 얘기 가지고 IOC 내부까지 막 건드리고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내용까지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디까지나 봉사하는 사람이고 도와주는 사람이지 제가 유치 주체는 아닙니다. 물론 한국 사람으로서 꼭 해야 한다고 열심히는 했지만…… 그런데 그동안에 88올림픽, 대구 유버시아드, 용평 동계아시안게임, 무주 동계유니버시아드, 부산 아시안게임, 월드컵 공동개최를 하다 보니까 이번에 한국이 굉장히 좋은 성적을 올려서 2014년에 해 볼 수 있는 그런 발판을 세계가 놀랄 정도로 기대 이상으로 했으면서도 저에 대한 기대가 실망으로 와서 여러 가지 오해를, 또 IOC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오해도 일으키고 그래서 부덕의 소치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또 IOC 안에 내부역학이 있습니다마는 전부가 비밀투표입니다. 아까 李今烘 총장이 IOC위원들이 7층, 8층에서 아침식사라고 그랬지만 일이 없을 때는 하루 종일 거기서 움직이고 방에서 만나고, 투표활동이라는 것은 국회의원 선거처럼 슬로건 걸어 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 표를 많이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20, 30, 40이지만 60을 이겨야 되는데 그 60을 하려면 나 혼자 힘으로는 안 된다, 나 혼자 할 수 있으면 내가 위원장 하고 있지 왜 여기 있느냐' 그렇게 늘 얘기했지만 나머지는 우리가 명분, 우리의 당위성, 우리의 능력, 정부의 지원, 국민의 지원 또 평창의 능력, 건설, 안전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세계 최고의 동계올림픽을 할 수 있다, 또 북핵문제도 다 해결되어 있다 그런 것을 내세우면서 우리의 가장 좋은 접근방법은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하고 또 반대파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IOC위원 표가 영향력이 있다고 해 가지고 위원장이나 종신위원장이 마음대로 이렇게 하라고 해서 찍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방법을 써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 인적, 기술적, 정보적, 재원적 모든 자원

을 총 투입해서 1차 투표를 통과하고 안 되면 2차 투표는 제가 잘츠부르크하고 사실 딜(deal)하자고 그래서 우리 쪽으로 오도록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2012년의 자기네들 역학 때문에 밴쿠버를, 2012년에 5~6개 도시가 나오니까 그렇게 됐는데 평창이 아주 무명으로 평양인지 평창인지 몰라서 저는 코리아라고 하라고 했는데,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핵문제까지 해결해서 예선을 통과하고 그만큼 온 것은 상당히 잘 했다고 생각되는데 IOC위원 표라는 것이 누가 찍으라고 로비해서, 물론 영향은 있지만 이미 올 때 상당부분 다 결정을 해 가지고 벌써 하이베리, 아벨란제 같은 사람은 밴쿠버에서…… Sport Intern을 뿌린 것은 누가 뿌렸는지, 나는 나중에 얘기 들었지만 그때 실제 거둔 것은 하이베리가 밴쿠버에서 재정적 특혜를 받은 것이 전부 터져 나와서 IOC에서 그것을 커버하는 기자회견을 했지 않습니까? 그 서류하고 같이 있으니까 거두었다는데 거기에 평창은 가능성이 없고 밴쿠버는…… 나중에 여기서 얘기해서 내가 영어를 읽어보니까 밴쿠버도 제거할 수 없지만 잘츠부르크가 좋다, 그것은 독일 신문이니까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100부 구독한 것은 그때 평창이 너무 안 알려져 있어서 IOC위원은 못 부르고 외신기자들을 부르라고 지사한테 얘기해서 많이 불러서 이름을 알렸지 않습니까? 그것의 일환으로 신문을 IOC위원들한테 돌리라고 했는데 그것 안 한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안 오니까 대신 그것을 활용해서 하자 이렇게 한 것이지 현대가 한국일보에 광고 낸다고 편집까지 컨트롤합니까? 그리고 요새는 인터넷 때문에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을 전 세계가 다 압니다. 제가 전화 받은 것은 누가 알려줘서 아는 것이 아니고 모든 문서, 정보망 이것을 통해서 다 압니다. 그런 세상이 됐어요. 그런데 좌우간 비밀투표인데 제가 하는 것은 그런 득표활동이에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지사하고 이름은 밝힐 수 없지만 제가 확실하게 각 대륙의 거점을 다 설명해 주었고 안 될 사람은 하나마나니까 오, 엑스, 삼각치고 꼭 우리 편이 된 사람을 아주 확실한 — 그 중에 빠져나가기도 합니다 — 이름을 전부 다 문화관광부장관하고 지사한테만 알려줬어요. 유치위원회에는 왜 안 알려 주었느냐고 하는데 유치위원회에 알려주면 그것이 그 다음날 신문에 다 나고 또 카운터가 들어오고 거기만 찾아가서 소문이 나고 해서 오히려 손해거든요. 그러니까 득표전략이라는 것은 제가 경험이 많으니까 저 나름대로 이렇게 했지 그것을 누구처럼 편지 광고하고 악수하고 다니고 신문에 취재해 준다고 그랬다고, 그것 안 되거든요.

또 하나는 IOC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로비에 수십 명, 수백 명이 다니는 것으로 여러 번 주의가 있었고 유치위원회 자체도 각 방에 다니지 말라고 주의를 주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동후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늘 하는 어드바이스를 지도자로서 해 주는 것이고 지금 더 이상 얘기하면 내부역학을 다 흔들게 되기 때문에 제가 내부얘기는 그 정도 하겠습니다.

2014년에 하자고 그런 것이 아니고 도착하자마자 전 외신기자하고 다 있는 데서 평창이 이번에 꼭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가지고 그렇게 큰소리 치냐 그래서 명분을 다 얘기해 주고 프리젠테이션에도 한국이 이러이러한 이유로 세계 최고의 동계올림픽을 할 수 있다, 내가 보장한다, 18년 동안 IOC위원인데 우리 정부, 국민 지지 다 있고 북핵 문제도 다 해결하고 있다 그래서 88올림픽처럼 올림픽 이념을 내걸고 세계 최대, 최고로 할 수 있게 평창에게 기회를 한번 달라 이것을 두 번, 세 번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게도 굉장히 잘 했다고 했고 내가 회의하다 말고 뛰어 나와서 우리가 제일 잘 했다, 그것 가지고 표가 얼마나 늘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서 이런 얘기를 전부 밝히기가 구차스럽습니다.

그리고 2014년 얘기가 왜 나왔느냐, 이것은 내 얘기가 아니고 나는 지금까지 승부에서 진 적이 없습니다. 옛날 88올림픽 가져올 때도 88은 어디에서 하고 92는 어디에서 하자 이렇게 얘기가 나온 적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 분위기가 매타도어 작전으로 나오고 반대세력이 70명이나 있는데 우리 떨어뜨리고 나 약화 시키려고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것을 어깨 너머로 들었습니다.

IOC는 비밀투표고 다 개인 자격이지 누가 이래라 저래라 해서 찍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수가 형편없이 떨어진데다 한국 분위기는 마치 될 것처럼 국민들을 들뜨게 했는데 최선을 다해서 되면 좋지만 안 되면 누가 책임집니까? 지도자들이 책임을 져야지요. 그리고나서 나가떨어지면 안 되니까 바로 유치준비위원회 만들어서 다시 할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청와대에서 얘기했다고 하는데 수

십 명이 밥 먹는데 그런 얘기 할 겨를이 어디 있습니까? 다만 나 혼자 힘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은 내가 다 얘기한 것이지요. 근거 없는 인신공격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 이상 얘기할 것은 없고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저보다 전문적인 얘기를 더 많이 하시는데 92년에 일본 IOC 위원이 나가노 때 양보했다고 하는데 이가야는 92년에 바르셀로나에서 저하고 붙어서 54 대 24로 떨어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91년 영국 총회에서 나가노가 될 때는 그 사람이 집행위원 끝날 때인데 사마란치가 다른 사람하고 조종을 해가지고 못 나오게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게 했는데 그때 저한테 떨어진 것이지요.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에요. OCA 사무총장 선거하고 IOC 위원장, 부위원장 선거하고 어떻게 똑같습니까?

그리고 사마란치 위원장 얘기를 하는데 사마란치 위원장은 우리 88올림픽 해 주고 월드컵도 안 되는 것을 공동개최하게 해 주고 올림픽에 태권도 넣는 것도 도와주고 부산아시안게임 때도 대만이 1억 불 쓴다고 할 때 와 가지고 도와준 분인데 그분이 내가 얘기한 것도 아니고 코리아타임스가 질의서 보내온 것에 자기 경험으로는 두 가지가 관계가 없고 그런 비난은 안 맞는 것 같다, 그분 친구들이 다 투표한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한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얘기하면 좀 곤란하고요.

그 다음에 4명의 측근 IOC 위원이 밴쿠버 운동을 한다는데 나는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없어요. 여기 와서 별 얘기 다 들어요. 나는 그때 IOC 일 보랴, 보이지 않게 득표 활동하랴, 표를 확보하고 확인하고 안 날아가게 하고 더 확보하는데 떠들고 합니까? 아까 누가 8층 라운지에서 하루 종일 있었고 회의실에 있었다고 하는데 저는 누가 밴쿠버고 누가 어디인지 대개 압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나한테 어쩌고저쩌고 한다고 해서 내가 믿겠습니까? 나는 우리 지지자들이 60명이면 60명의 얘기를 듣지요. 그것은 오해에서 온 것 같고요.

또 평창이 2010년이고 무주가 2014년으로 합의를 봤다고 하는데 저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엊그제 중앙일보에도 나왔지만 저는 그때 이미 대한체육회 회장이 아닙니다. 아무 거나 다 나한테 갖다 대는데요, IOC에서 한국은 놀랄만한 성과를 올렸는데 겸손하고 스캔들 일으키지 말고 하나로 통합해서 준비하면 기회가 있다 이런 좋은 얘기를 위원장이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밴쿠버가 매타도어 하는데 그것 막아달라고 나한테 얘기한 사람은 없었어요.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여기에서 들었어요. 그런데 매타도어나 가십은 늘 있으니까 거기에 편승하지 말고 효과적으로 득표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아는 사람에게 늘 얘기했지요. 우리 안 찍어줄 사람한테는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그런 사람은 놔두고 돌아올 사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안 나가게 하는데 그것은 자기 계보, 자기 지지세력, 친한 세력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합니다. 정보는 제 판단, 제가 바깥의 정보는 보다 더 많이 갖고 있지만 영향력이 있어서 다 찍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이 1, 2, 3, 4차 죽 1등으로 가다가 영연방이 표를 다른데 줘서 2표 차이로 져서 8년 후에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재수를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을 들뜨게 했는데 만약 떨어지면 거기에 착실하게 대비하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후계자 양성 문제에 있어서도 제가 어떻게 사람을 양성합니까? 尹康老 사무차장 IOC 평가위원에 넣어주고 전이경이 IOC 선수분과위원회에 넣어주고 박상하 정구연맹회장 시켜주고 해도 자기들이 더 해야지 내가 어떻게 그것을 합니까? 그리고 나 혼자 여러 가지 많이 한다고 하는데 나 지금 하는 것 없습니다. 국회하고 IOC하고 세계태권도연맹 밖에 없어요. 국내 체육회에서 하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또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국무총리하고 문광부장관이 저하고 상의했지 요청한 것은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 판단으로는 사마란치 이하 전부가 반대고 표가 다 줄어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하니까 장관이 최고로 호소해 달라고 해서 그날 호소를 하고 다녔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국무총리께서 사마란치 위원장을 만나게 되어 있다고 해서 어느 것이 진짜인지 얘기 들어보라고, 나는 모든 것을 기꺼이 하겠다고 했는데 얘기를 들었더니 마이너스라고 하니까 그랬는지 가만히 계셨고요, 평가회의인가도 내가 안에서 듣는 정보하고는 다르고요.

또 끝나고 난 다음에 자꾸 이상한 다방 정보가 지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엉터리입니까? 거기에 53표 중 아시아, 아프리카

이것은 金 위원의 발판 때문에 그만큼 나왔다고 그러고 스위스의 타임즈도 아프리카, 아랍 어디서 맹렬히 하는 것 봤는지 그렇다고 그러고. USA투데이, 워싱턴포스트는 7월 3일 각 도시…… 여기 다 있어요. 보내드렸을 거예요.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평창이 약하지만 金 위원장이 모스크바 대선 이후 지지 세력을 얼마만큼 확보하느냐에 따라 반대 변수가 나올 수도 있다고 나왔어요. 워싱턴포스트, USA투데이 전부 프리젠테이션에서 제가 한국의 평화에 공헌하고 또 그것이 IOC의 이념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왜 그것을 안 봅니까?

그리고 전부 들었다, 누가 얘기 하더라, 이것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그것 가지고 일일이 대꾸해야 됩니까? 그리고 팔 걷고 다닌다고 표가 나옵니까? 득표는 여러 가지 형태로 몇 년 동안 투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Sport Intern은 아까 왜 그것을 보게 했느냐고 하는데, 본인이 안 오니까 설명을 했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내가 편집에 영향을 못 줍니다. 나중에 여기서 내가 잘못했다고 그래서 읽어봤지만 그것은 그렇게 아시고, 또 태권도협회는 왜 가만히 있느냐고 그러는데 태권도협회가 가만히는 안 있을 것이고요, 인재 육성은 답변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全甲吉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55가 저를 찍었는데 평창이 53이면 결국 그것이 그 세력 아닙니까? 그러면 나머지 71은 매타도어도 하고 저를 막 깎기도 하고 별 것 다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1억 8000만 원 얘기 나왔는데 그것은 대한체육회가 세계태권도연맹 30주년 행사에 12명의 IOC 위원들이 오는데 IOC 위원들 여비는 못 주지만 행사비로 해서 준 것이고요, 레바논 얘기한 것은 내가 들어보지도 못 했고 마드리드는 무슨 회의냐 하면 서울서 달리자고 제가 하는 회의입니다. 그것은 국제경기연맹 총회인데 거기에 동계, 하계 IOC 집행위원회가 다 옵니다. 그리고 거기서 전체회의를 주재하면서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노르웨이 하이버그가 무슨 생각을 가졌느니 하는데 그 사람이 우리 반대파인데 우리를 찍어준다는 보장이 없는데, 그러면 두 마리 토끼 다 놓칠 텐데 어떻게 그걸 얘기합니까?

또 하나 4월 16일에 무슨 편지를 내보냈는데 6월 10일에 또 내보냈다고 그러는데 6월 10일은 4월 16일에 보낸 편지에 대한 감사예요. IOC에서 자주 못 만나면 그 정도는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지반이 다 무너지지요. 그런데 중간에 걱정한다고 그래서, 내가 후보도 아닌데 나는 그런 생각은 없다고 얘기해서 전 세계에 나왔잖아요. 7월 2일 끝나고 난 다음에 7월 3일까지 못 나온다, 안 나온다, 꼭 나와라 이러고 있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일이 치러졌습니다.

지금 힐러리가 대통령으로 나와야 한다는 것을 힐러리가 떠듭니까? 여론이 그렇게 도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까지 내가 책임지기는 곤란하고요.

그리고 Sport Intern은 나하고 전혀 관계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라운드 더 링(Aroud the Rings)이 엊그저께 조사했지만 저희 집 아이하고 관계없다는 것이 미국 신문에…… 미국 신문은 정보 수집과 조사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다 IOC를 모르는 오해에서 나온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태권도부터 88올림픽, 부산아시안게임, 무주, 용평 전부해서 지금도 잘 하면 되는데 왜 그러느냐 하는 로게나, 사마란치 이야기인데 저를 견제하는 세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제 몫은 하지 않습니까? 혼자서 어떻게 60표를 다 합니까? 저는 아무 것도 아니고 아무 것도 없는데. 그래서 일일이 대꾸하기가 참 뭐합니다.

그다음에 뭐 했느냐 그러는데 매일 하는 게 우리나라의 스포츠 발전과 태권도 발전과 또 평창이면 평창, 부산이면 부산 이것입니다. 그런데 부산아시안게임 때 지사 이하 다 내려와서 장웅부터 시작해서 다 소개해 주고 거기에서 IOC 위원들하고 같이 식사하고 싱가포르 위원이고 전부 다 소개했지 않습니까? 서울에 오는 사람마다 다 소개해 주었지요. 또 솔트레이크 때도 다 똑같은 일 했지요. 그리고 작년에 미국 콜로라도 스프링 올림픽본부에서 李衍澤 그룹, 도지사 그룹, 孔魯明 그룹 왔을 때 거의 공짜로 며칠을 먹고 거기에서 몇 사람 만났습니까? 또 거기서도 수십 명이 너무 로비에 득실거린다고 해서 주의해 달라 또 멕시코로 IOC 총회에 갔는데 거기에서도 다 바깥에서 돌아다니니까 또 주의해 주어야 되지요.

그래서 한 가지 묘안을 낸 것이 마침 5월 28일이 세계태권도연맹 창립 30주년이라 거기에 IOC

위원들을 초대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편지를 써 가지고 윤리위원회에서 문의가 왔어요. 그래서 이것은 세계태권도연맹 총회와 관계된 IOC 위원만 온 것이다 해서 남미고 뭐고 지금 우리의 발판이 되는 사람이 다 왔지 않습니까?

○委員長 金學元 위원님, 조금 요약해서……

○金雲龍 委員 예, 너무 많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 했지만 아쉬웠고 또 저에 대한 기대가 있고 또 IOC에 대해 너무 모르고 또 제가 밝히지 않은 부덕의 소치로 인해 이런 오해가 생긴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많은 공고를 하고 2014년을 향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헛소문 가지고 저하고 관계없는 것까지 여기서 질의하면 제가 3일을 IOC에 대해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것을 좋은 계기로 생각하고 다만 허황된, 근거 없는 정보로 이렇게 국론을 혼란하게 만들고 자기 나라의 IOC 위원을 또 다른 IOC 위원을 비방하는 행위가 있는 유치위원회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제가 법적인 모든 대응을 해서 책임지고 우리나라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學元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에 비해 金雲龍 위원님께 발언하실 수 있는 시간을 많이 드린 것은 오늘 직접 조사 대상자이기 때문에 충분히 변소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인 만큼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모두 질의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보충적으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 사안에 대한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뭔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조사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이와 같이 참고인들에 대한 질의응답을 통해서 또 Sport Intern에 관련된 여러 가지에 대해 총체적으로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우선 崔萬立 부회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 질의를 이렇게 맨 마지막에 드리는 이유는 본 위원장이 위원회를 진행하면서 되도록이면 선입관을 갖지 않고 공평하고 객관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입니다.

7월 2일 우리가 실패하고 난 그날 IOC 리셉션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돌아다니면서 IOC 위원들도 만나고 그러다가 崔萬立 부위원장이 계시는 테이블로 갔습니다. 그렇지요?

○參考人 崔萬立 예.

○委員長 金學元 그때 崔萬立 부위원장께서 한 IOC 위원을 저한테 소개해 주면서 이 양반이 그러는데 金雲龍 위원님께서 평창에 찍지 말라 그렇게 얘기해서 말렸다 이런 내용의, 그런 취지의 말씀을 저에게 한국말로 하신 바가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參考人 崔萬立 예, 사실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그래서 제가 그 IOC 위원한테 Really? 하고 물으니까 그 분이 한국말은 잘 모르지만 어깨를 약간 으쓱이고 끝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자세한 얘기는 묻지 않았습니다. 그때 정확한 워딩을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그때 崔萬立 부위원장님이 저한테 얘기해 주신 내용을 그대로 말씀해 주시지요.

○參考人 崔萬立 정확한 기억은 없습니다마는 저도 상당히 흥분된 기분으로 들었는데 “Don′t vote for Pyeongchang” 이런 얘기를 해서 내가 “Sorry, Don′t vote for Pyeongchang” 이래서 참 이상하다, 상당히 기운도 없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 그래서 제가 사실이 아니기를 믿으면서 그 얘기를 했고 또 마지막 보고서에도 이것을 대외비로 해 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것이 유출되어서, 나를 끌어들이는 그 자체는 내가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委員長 金學元 그러면 바로 그 IOC 위원이 두 가지 사례를 얘기하는 중에, 북미의 어느 IOC 위원이라는 바로 그 위원입니까?

○參考人 崔萬立 그럴 수 있지요.

○委員長 金學元 그럴 수 있다는 얘기는 뭔가요?

○參考人 崔萬立 IOC 위원은 IOC 위원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어떤 점에서 보면 제가 그 현장에 있었던 것 같은데 다만 그 IOC 위원이 얘기하는 것을 직접 제가 현장에서 듣지 않고 崔萬立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듣고, 제가 그 IOC 위원과는 인사만 나누는 형상이 되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본인이 하늘에 맹세코 진실이라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參考人 崔萬立 예, 자신합니다.

○委員長 金學元 다음에 Sport Intern에 관해서 유치위 등에 관련된 문제에 관해서 제가 여러 가지 조사를 의뢰를 했습니다. 의뢰한 결과가 유치위원회에서 위원장인 제게로 직접 왔기 때문에 이 점에 관해서 崔勝浩 사무총장님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자료제출이라고 해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런 자료제출을, 유치위원회에서 보낸 적이 있지요?

○參考人 崔勝浩 예, 오늘 했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그런데 여기에 보면 2003년 6월 18일자 Sport Intern지는 평창이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보도하고 또한 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의 활동을 비방하는 기사 등을 중점적으로 게재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6월 18일 그때 현장에서 있었던 원본을 얘기하는 것인가요?

○參考人 崔勝浩 아닙니다, 2주 전의 신문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동 내용 중 "특히 평창의 유치 가능성을 폄하하고 유치위원회 비방 및 金雲龍 IOC 위원의 IOC 부위원장 당선 가능성을 높이 평가하는 내용이 따로 2페이지 분량의 문건으로 짜깁기 식으로 편집되어 발행일 하루 전인 6월 17일에 제3국에 전송·배포된바 동 문건의 사본을 별첨 제출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러면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參考人 崔勝浩 그렇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제가 내용을 보니까 원본인 노란 Sport Intern의 내용과는 약간 다르게, 그 중에서 부분 부분만 모아서 두 장으로 낸 것 같은데 날짜가 하루 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좀 이상하잖아요. 원본 발행이 다음 날인데 어떻게 그 전 날짜로 짜깁기 식으로 된 내용이 각 IOC 위원이나 체육관계자들한테 뿌려질 수 있나요? 그것은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參考人 崔勝浩 저희 유치위원회에서는 누군가 평창을 음해하고 훼손하기 위하여 Sport Intern과…… 공모라고 할까요, 그런 관계에 있는 세력이 해외에 뿌렸다고 판단합니다.

○委員長 金學元 그런데 여기에 있는 내용을 보니까 "한국의 과잉 열정은 평창 유치를 위태롭게 만들고 있는바 아무 때나 마구 나서기 때문에 일부 유럽 위원이 유치위원회의 무례함을 참을 수 없다고 말했고, 결코 밴쿠버나 잘츠부르크의 상대가 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전 외무부장관이었던 孔魯明 위원장마저도 외교적인 예의를 지키지 않았다, 그리고 金雲龍 박사에게마저 압력을 가하고 있다, 유치위원회는 金 박사가 부위원장에 출마하면 평창의 유치를 위협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이상한 활동을 하고 있다."는 평창에 대한 나쁜 내용만 냈어요.

그리고 "하이버그 위원이 부위원장 입후보를 포기하고 집행위원 선거에만 나가려고 했었으나 평창유치위원회가 金雲龍 박사가 출마하지 않는다는 의심스러운 보도자료를 배포함으로써 자신의 불출마 결정을 번복했다.", 그러면서 그때 얘기했던 "金 박사에게 압력을 가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으로서 金雲龍 박사는 평창이 이기거나 비참하게 지는 것과 상관없이 부위원장에 당선될 것이나 평창은 金 박사 지지자들의 지지로 인해서 20표 또는 약간 더 많은 표를 얻거나 훨씬 적은 수를 얻어 비참하게 실패할 것임" 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의 출처가, from난이 비어 있는데 원래부터 from난이 비어 있었나요?

○參考人 崔勝浩 저희들이 입수할 당시부터 비어 있었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그리고 앞에 to난에도 'o'자 하나만 나와 있고 다른 건 나와 있지 않은데 이것은 왜 그런가요?

○參考人 崔勝浩 그 문건을 제공한 출처를 보호하기 위하여 저희 유치위에서 그 부분은 가리고 사본을 넣었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그것은 원래 없던 것이 아니고 유치위에서 가리고 한 것이라는 것이지요?

거기 from난 앞에 보면 '2003-June-17, 15시 40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말하자면 연월일이 한국식으로 글자가 적혀 있는데 그동안에 유치위원회에서 외국으로부터 많은 팩스를 받아봤을 것 아닙니까? 이런 양식의 팩스 형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參考人 崔勝浩 저희들이 사실 굉장히 곤혹스러웠던 것이……

○委員長 金學元 제가 조금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그것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해서 자료를 얻은 바 있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외국의 여러 나라들로부터 온 것 같은데 이 내용이 거기서 보내 온 것이 맞습니까?

○參考人 崔勝浩 첫째, 6월 18일자 Sport Intern지 기사가 어떻게 하루 전날 평창에 불리한 내용만 짜깁기하여 외국에 배포되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팩스 송신문건으로 보입니다마는 누가 보냈는지 그 부분은 나타나 있지 않고 다만 송신날짜 연도 표기가 유럽에서는 제가 본 적이 없는 방식이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로서는 한국에서 송신되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짐작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왜 이 팩스가 한국에서 보내졌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까?

○參考人 崔勝浩 저희들이 외국의 한 20개 이상의 여러 기관으로부터 받은 문건을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2003년, 연도가 먼저 나오고 월이 나오고 날짜가 나오는 포맷의 팩스 문건은 1건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그러면 동양식으로, 중국이나 일본에서 이런 방식의 팩스가 온 것은 없습니까?

○參考人 崔勝浩 유치위에서는 일본이나 중국에서 온 문건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렇게 할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委員長 金學元 그러면 국내나 어디든지 간에 이와 유사한 형태로 팩스를 받은 일은 없습니까?

○參考人 崔勝浩 저희들이 과연 이 문건을 누가 배포했을까 라는 점을 대단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위원장께도 물론 다 보고를 드렸고, 문건들을 여러 가지 찾아보았습니다. 말씀드리기 대단히 어렵습니다마는 대한민국 국회라는 문양 밑에 '孔魯明 위원장님 귀하' 해서 수시로 보내오는 문건이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주로 '金雲龍 위원님에 대해서 긍정적인 내용의 언론기사, 인터넷기사를 참고하십시오.' 하고 보내오는 취지로 저희들이 받아보았습니다만 그러나 이 문건에도 역시 누가 보냈다는 표시는 없고, 또 발송자 측의 팩스번호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양식이, 저희들이 해외에서 입수했던 2페이지짜리 Sport Intern 17일자, 하루 전날 되었던 것과 우연의 일치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마는 같았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그러면 국회 마크가 있고, 말하자면 金雲龍 위원에게 유리한 기사, 홍보가 되는 기사들을 실은 내용의 연월일 기재방식이 IOC 위원들에게 뿌려졌다는 것과 방식이 같다는 얘기 아닙니까?

○參考人 崔勝浩 저희들은 그 문건이 누구한테 얼마나 많이 뿌려졌는지는……

○委員長 金學元 아니, 연월일 쓰는 방식이 같다는 얘기 아닙니까?

○參考人 崔勝浩 그렇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그러면 金雲龍 위원을 홍보하는 내용은 어디서 보내온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參考人 崔勝浩 사실 문건 자체에서는 누가 보냈는지 나타나지 않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그리고 그 문건 보내고 난 뒤 그 문건이 어디서 왔는지에 대해서 조사해 본 경우는 없습니까?

○參考人 崔勝浩 저희들은 이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어서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국회 마크가 되어 있는 것이 몇 차례나 왔습니까?

○參考人 崔勝浩 여러 번 왔습니다. 그러나 실제 '언론기사, 참고하십시오.'라는 취지로 온 것으로 저희들은 이해를 하고, 대개 위원장께 회람을 하고 대체로 파기했기 때문에 얼마나 왔는지는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그 뒤에 무슨 전화가 오거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參考人 崔勝浩 가끔 누가 "金雲龍 위원 비서다, 팩스를 보내니까 받아보십시오."라는 전화가 온 적은 있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그러면 그 사람이 보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까?

○參考人 崔勝浩 결코 지금 이 두 문건의 출처가 같다는 증거는 사실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합리적인 사유를 한다면 일응 출처를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조사해 볼 가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委員長 金學元 지난 7월 9일 여기서 질의·응답할 때 그때 내용을 다 들으셨지요? 그때 孔魯明 위원장께서 Sport Intern에 관해서 金振兢 지사와 金雲龍 위원과 셋이 있는 자리에서 이것을 구매해 달라고 해서 1년분 100부, 2만 불 어치를 구매했다고 진술한 사실을 들었지요?

○參考人 崔勝浩 들었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그 얘기를 7월 9일 말고 그 전에 孔魯明 위원장이나 또는 타인으로부터 들은 바가 있습니까?

○參考人 崔勝浩 사실은 3월에 2만 불 결제를

제가 했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그 돈은 어떤 자금원에서 나갔습니까?

○參考人 崔勝浩 경상경비로 해서 송금이 되었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경상경비라는 것은 이번 유치위원회 추진자금에서 나갔다는 얘기인가요?

○參考人 崔勝浩 그렇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그것이 작년 11월이라고 했지요?

○參考人 崔勝浩 아닙니다. 작년 11월에 구매문제가 제기되어서 얘기를 하다가 실무자들 선에서 사실은 상당히, '무엇 때문에 100부 하느냐' 하는 얘기들이 있어서 시간을 끌었습니다. 그래서 3월에 100부를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그래서 Sport Intern이 金雲龍 위원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에 관해서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문화외교국장이라는 것이 유치위 얘기입니까?

○參考人 崔勝浩 아닙니다. 외교통상부인 것 같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거기서 지금 의뢰사항에 대해서 답변이 왔는데 그 내용은 독일 다름슈타트(Darmstadt) 상공회의소 영업등록표나 독일 신용평가회사 D&B 조사에 의하면 유한책임회사와 회사의 지분보유자는 발행인인 칼하인스 후바 한 사람으로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법적으로는 김정훈 씨와는 무관하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다만 최근 독일어권 유수의 일간지인 스위스 최대 일간지 노이에 취리히 짜이퉁 2003년 7월 4일자, 그리고 독일 3대 일간지 디벨트 2003년 7월 5일자에는 아래와 같이 보도하고 있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앞서 말한 노이에 취리히 짜이퉁의 기사를 보면 "金 씨에 의해 재정이 지원된다는 소문들이 있는 소위 IOC 내부 소식지를 표방하는 Sport Intern이……" 이렇게 나가면서 金 씨에 의해서 재정이 지원된다는 소문이 있다는 내용의 기사가 실려 있고, 디벨트 7월 5일자를 보면 "金雲龍 씨는 정보 조정의 대가임, 독일에서 정기적으로 간행되는 스포츠 분야 소신문 Sport Intern은 金 씨에 대한 충성스런 보도로서 金 씨에게 봉사하고 있는데 Sport Intern의 재정 운용에 대해서는 많은 억측들이 있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재정문제에 관해서 그 전에 어디서 듣거나 이것 이상으로 보거나 한 바는 없습니까?

○參考人 崔勝浩 孔 위원장께서는 그때 실무자들이 "무엇 때문에 100부가 필요합니까?"라고 했을 때 "그것이 다 필요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대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그러면 작년 11월에 이것을 부탁했다고 하는데 그때 이후 다만 어느 때라도 평창에 어느 정도 유리하게 기사를 실었던 적은 있습니까?

○參考人 崔勝浩 제 기억으로는 없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도와달라고 해서 그것을 2만 불어치나 샀는데 어째서 평창에 대한 유리한 기사가 나오지 않았을까요?

○參考人 崔勝浩 저희들이 실제로 송금하고 구독을 시작한 것은 3월 하순이었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11월에 얘기를 해서 실제로 구매한 것은 금년 3월 하순이다?

○參考人 崔勝浩 그렇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尹康老 위원에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7월 9일, 진술하는 것을 들으셨지요?

○參考人 尹康老 예, 들었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그때 李滄東 장관, 高建 총리가 있는 자리에서 金雲龍 위원에게 불출마 선언을 하도록 해 줬으면, 연설하면 좋겠다고 얘기했는데 그것을 간접적이든 여러가지로 부인을 해서, 하여튼 부인한 내용이 내가 출마선언을 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불출마 선언을 하느냐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 전에, 4월에 각 IOC 위원들한테는 부위원장으로 출마한다는 편지를 보냈다는 얘기도 들리거든요. 그런 얘기를 들었거나 그 편지를 본 적이 있습니까?

○參考人 尹康老 그 편지를 본 적은 없고, 공관 보고사항에서 몇 군데 그런 것이 와서 공관 보고 내용을 본 적이 없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그런데 그것이 만약 사실이라면 이미 부위원장으로 출마한다는 의사표시를 사전에 했는데, 내가 출마선언을 하지도 않았는데 불출마선언을 내가 할 이유가 있느냐라는 것은 말에 모순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李滄東 장관은 거기서 연설할 때 좌우간 평창을 해 주면 부위원장에 나오지 않겠다는 것을 강하게 내는 취지로 연설을 해 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영어에 관해서는 尹康老 차장이 내용을 잘 알고 잘 듣기 때문에 내가 尹康老 차장한테 묻는 거예요.

그날 金雲龍 위원께서 제일 먼저 연설을 했지요?

○參考人 尹康老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마이크가 약간 하늘로 올라가서 잘 들리지 않았는데, 그때 옆에서 핸드폰도 울렸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參考人 尹康老 아마 미처 못 끄신 것 같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그거야 그럴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데 그때 그 연설내용을 뒤에서 자세히 들으셨습니까?

○參考人 尹康老 예, 들었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그 내용이 부위원장 불출마를 연상할 수 있을 정도로 강도 있게 연설하셨나요, 아니면 단순히 평창을 지지해 달라는 취지로만 연설을 했습니까?

○參考人 尹康老 제가 金 위원님의 영문연설을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요, 원래 원고를 안 보고 하시면 상대방이 상당히 저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아마 원고내용이 있으니까 읽으시는데, 잘 아시겠지만 우리말도 연설문 써드리면 별로 잘 그렇게 안 하시는데, 그래서 목소리가 아까 얘기처럼 우렁차게 이런 것은 아니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그러니까 그 내용에 평창을 지지한다는 단순한 내용만 있느냐 아니면 평창을 지지하는 것 외에, 부위원장 문제보다도 평창유치가 더 우선이다 그런 취지가 느껴질 정도의 구절이 있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參考人 尹康老 사실 아시겠지만 저도 불어로 프리젠테이션을 해야 되기 때문에 들으면서 '아, 저런 취지구나' 하고 피상적으로 들었지 내용을 분석해 가면서 듣지는 않았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성분 분석을 해 가면서 전부 체크를 했지요?

○參考人 尹康老 예.

○委員長 金學元 누가 주로 체크했습니까?

○參考人 尹康老 주로 金振兢 강원도지사께서 전부 취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그런데 尹康老 차장께서 IOC 위원들을 많이 접촉했기 때문에 그런 성분 관계의 자료를 많이 제공해 주었겠지요?

○參考人 尹康老 저도 제공해 드렸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그런데 7월 9일에 金雲龍 위원이 "유치위원회에 성분 분석한 것을 몇 차례나 달라고 했는데도 안 주었다."고 했는데 그런 사실 들은 적 있습니까?

○參考人 尹康老 金振兢 지사께서 金雲龍 위원님하고 직접 채널을 설정하셨기 때문에 그 관계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사무총장이나 부위원장께서 들으신 바 있습니까? 사무총장, 들은 바 없습니까?

○參考人 崔勝浩 죄송합니다. 질의요지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委員長 金學元 金雲龍 위원이 몇 차례에 걸쳐서 유치위원회에 그 IOC 위원들이 우리에게 우호적이냐 아니면 반대적이냐 하는 성분 분석을 달라, 그러면 내가 유치위원들의 운동에 열심히 뛸 것 아니냐 이런 취지로 여러 번 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실을 얘기 들은 바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參考人 崔勝浩 저는 지난번 9일에 회의가 열리기 전까지는 그 얘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수고하셨습니다.

○咸承熙 委員 사무총장, 금방 위원장이 질의했듯이 날짜를 서구식이 아니라 연월일로 한국식으로 표시한 Sport Intern의 한국 평창을 비방하는 요약된 보도문이 IOC 위원들 몇 명한테 어느 범위 내에서 배송이 된 것 같습니까?

○參考人 崔勝浩 저로서는 전혀 짐작할 길이 없습니다.

○咸承熙 委員 이것을 어디서 입수했나요? 현장에서 입수했습니까?

○參考人 崔勝浩 아닙니다. 저희들이 6월 19일에 입수했습니다.

○咸承熙 委員 프라하 현장에서요?

○參考人 崔勝浩 아닙니다. 서울에서……

○咸承熙 委員 서울에서 입수했으면 이것이 어떻게 유치위원회 쪽으로 왔나요? 그러면 IOC 위원한테 이것이 배포되었다는 증거는 있습니까?

○參考人 崔勝浩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咸承熙 委員 그러면 이 문서가 여기까지 현출된 경위가 뭡니까? 'IOC 위원한테 이렇게 비방의 글을 보냈다 그리고 이것은 짐작컨대 한국에서 만들어진 문서 같다'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그

근거가 뭐냐 이 말입니다. IOC 위원한테 배포했다는 증거는 없다는 말입니까?

○參考人 崔勝浩 그것을 제공한 분이 그래도 국제 스포츠계의 책임 있는 분입니다.

○咸承熙 委員 한국 사람입니까?

○參考人 崔勝浩 아닙니다. 외국인입니다.

○咸承熙 委員 IOC 위원은 아닙니까?

○參考人 崔勝浩 아닙니다.

○咸承熙 委員 그 사람 말에 의하면 이것이 상당수의 IOC 위원한테 배포되었다는 것입니까?

○參考人 崔勝浩 그런 말은 없었습니다. 다만 이런 문건이 나도니까 참고하라고……

○咸承熙 委員 IOC 위원한테 배포되었는가에 대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고 IOC 위원이 아닌 어떤 외국인으로부터 이런 것이 국제 스포츠계에 나도니까 참조하라고 해서 입수된 것이라는 말이지요?

○參考人 崔勝浩 그렇습니다.

○咸承熙 委員 그것은 됐고요, 崔萬立 부위원장님, 엊그제 金雲龍 위원이 이 연설대에서 설명하면서 崔萬立 부위원장 얘기가 나오니까 "그 양반은 옛날부터 나한테 투서를 다섯 번이나 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투서한 적 있습니까?

○參考人 崔萬立 없습니다.

그것이 투서가 아니고 건의서입니다. 5년 전이 아니라 한 10년 전에 했습니다.

○咸承熙 委員 어떤 내용의 건의서입니까? 본인을 비방하는 것입니까, 칭찬하는 것입니까?

○參考人 崔萬立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성을 갖기 위해서, 우리나라 스포츠의 장래를 위해서 제가 건의했습니다.

그 내용은 국제 스포츠무대에서 혼자서는 할 수 없다, 여러 가지 분담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그리고 후계자를 많이 양성하고 국제스포츠의 인력을 많이 양성해야 된다……

○咸承熙 委員 기명으로 한 것이지요?

○參考人 崔萬立 기명으로 했습니다.

두 번째로 그 당시는 체육회 회장을 金雲龍 위원께서 세 번 연임하셨습니다. 두 번째 할 때 규정을 바꿔 가지고 어떤 사람은 나오지 못하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그래서……

○咸承熙 委員 본인이 독주하는 것을……

○參考人 崔萬立 그렇지요. 나는 金雲龍 위원에게 한 것이 아니라 대한체육회의 규정이 잘못 되었기 때문에 소를 제기도 했고 거기에 대해서 호소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묵살이 되어 가지고…… 지금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咸承熙 委員 좋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金雲龍 위원님, 崔萬立 부위원장이 金雲龍 위원에 대해서 사적으로 나쁜 감정을 가질 이유가 있나요?

○金雲龍 委員 뭐 나쁜 감정을 가질 일이 있겠어요?

○咸承熙 委員 적어도 없는 말을 지어서 누가 이런 말을 하더라라고 할 정도의 수준입니까?

○金雲龍 委員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제가 답변해 드릴까요? 아까 李滄東 장관이 여러 가지 얘기하는 과정에서 저보고 출마 안 한다는 얘기까지 포함해서 호소를 해 달라고 했다는데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상의한 것은 나중에 사마란치한테 좀 물어보라고, 그렇지만 표가 줄어들 것 같은데 그래도 괜찮으냐, 그렇다면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그러면 호소할 수 있는 최대의 호소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날 굉장히 호소를 했습니다. USA투데이, 워싱턴포스트지에도 나와 있잖아요. 그 사실만 밝히겠고 Sport Intern은 3월 말에……

○委員長 金學元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난 9일에 李滄東 장관이 이렇게 얘기를 했었다 하는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한 것입니다.

○金雲龍 委員 그래서 제가 그날 특위 위원이지만 여기서 장관을 면박주기 싫어서 그냥 그런 일 없었다고 그랬는데 오늘 밝힙니다.

또 하나 아까 자꾸 IOC 위원들의 이름을 들먹거리는데 그러면 아주 확증으로 녹음을 한다든지 그분한테 물어봐서 편지를 받아 오든지 해서 문건을 내기 전에는 자국의 IOC 위원을 흠집 내는 것은 삼가해 줬으면 좋겠고 성분 얘기가 나왔는데 성분은 수시로 孔魯明, 金振兢 지사한테 120명 중에 60명까지는 해 볼만 하다, 나머지는 하나 마나다, 출발 직전에도 내가 요만큼밖에 확보 못했다고 그러니까 지사가 그러면 삼성하고 해서 해 보라고 그래 가지고, 지금 이런 것까지 밝히기 싫었는데 20명 적어 주었어요. 그러니까 또 20명쯤 더 적어 줘서 40명이면 80명인데 20만 해도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후에

孔魯明 위원장한테도 여러 번 하고 콜로라도 스프링스에서 열리는 GAISF 총회, 마드리드 등 기회가 많았으니까 다 알았을 것입니다.

또 하나 아까 독일에서 6월 18일에 온 신문기사를 무슨 문구의 순서, 내용까지 저하고 결부시키면 곤란합니다. 그러면 Sport Intern에 한번 보내 보세요. 어떤 회신으로 어떤 시간에 팩스가 오는가, 그렇게 하시면 되고 나한테 잘츠부르크고 뭐고 전 세계에서 전부 옵니다. 오면 제가 무조건 문화관광부하고 유치위원장한테, 예를 들어서 OCA회장이 지지해 준다고 얘기했다든가 하는 것을 참고로 다 보내 줍니다. 모든 정보가 들어오니까 자동적으로 보내 주도록 했습니다. 정보 알려 주는데 그것이 뭐 잘못 됐습니까? 별의별 정보가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좋은 것은 다 빼고 나쁜 것만 가지고 이상하게 얘기를 하는데 자국 IOC 위원을 그렇게 인격모독을 하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Sport Intern을 보게 된 이유가 그것 봐주기 위해서 본 것입니까? 평창이 평양인지 안 되니까 코리아라고 그래 가지고 알리는 과정에서 Sport Intern이 아이디어를 내서 외신기자를 초대하라고 그런 것입니다. 그 외신기자가 많이 와서 평창 알리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은 안 오니까 다른 유치 도시도 다 하는데, 모든 유치 도시가 100부 쯤 구독을 합니다. 그래서 선전을 하는데 우리 알리기 위해서 하면 어떠냐?

그런데 금년 3월 말까지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사내용까지 거뒀느니 뭐니, 내가 거뒀는지 안 거뒀는지 어떻게…… 이것 자기 나라 IOC 위원한테 이것이 무슨 짓입니까?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있어도 못하는데요.

그리고 출마의사 표시, 후보는 7월 3일 5시인데 평창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여러 사람들이 아직도 나올지 안 나올지, 나올까 말까 하는 추측기사는 늘 있습니다. 옛날에 위원장 때도 이 사람이 꼭 된다고 그랬지요. 그런데 너무 된다고 그래 가지고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정 반격이 들어와 가지고…… 그런데 그것은 늘 있는 것인데 그것까지 내가 책임져야 돼요?

○委員長 金學元 한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어떤 신문기자와 얘기하시면서 4월에 부위원장 출마한다는 서한을 보낸 적이 있다고 얘기한 사실은 없습니까?

○金雲龍 委員 4월 16일에 IOC 내부사정에 의해서 의사는 표시했지만 실제 후보는 7월 3일입니다. 그 후에 걱정한다고 그래서 제가 외신에 전부 생각 없다고 밝혔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하이버그가 부위원장이니 집행위원이니 나온다고 그러고 나는 안 나온다고 전부 공문으로 또 돌렸어요. 여기에도 그것이 있더군요. 그래서 이것을 윤리위원감이다, 남을 위해서 나오니 안 나오니 하니까 자기 찍어 달라 이랬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6월에 얘기한 것은 그동안에 성원을 보내 주셔서 감사하다는 얘기이지 지지를 요청한 것 아닙니다. 평창이 떨어졌기 때문에 7월 3일에 나올까 말까 모르는 상태에서 내부사정에 의해서 결심을 하고 나온 것이지요. 그때까지도 확실치 않습니다. 얼마나 고전했습니까? 평창이 53표, 난 55표…… 이것은 내부사정, 내부역학이라고 얘기드렸지요.

그러면 2014년에 다시 하려면 거기에 다른 나라도 꼭 한 사람씩 넣으려고 노력하는데 우리 사람이 있는 것 하고 없는 것 하고 다르지요. 태권도도 안 쫓겨나려면 있어야지요. 우리 스포츠도 지금까지 무슨 힘으로 월드컵이고 부산아시안게임이고 무주유니버시아드, 용평은 누가 계획했습니까? 저하고 지사하고 제가 조직위원장하면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스케이트장도 만들고……

그러니까 전후 사정은 다 빼고 그냥 근거 없는 들었다고 그러더라, 들었네, 다그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저를 이렇게 평창특위에서 국민 앞에서 망신 줘서 되겠습니까?

○委員長 金學元 아닙니다. 그런 취지는 전혀 아니고 Sport Intern의 소유형태라든지 Sport Intern에 대해서 더 자세한 내용을 알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전문위원을 통해 가지고 양당 간사한테도 얘기도 했고 그렇게 해서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그랬는데 유치위원회에서 위원장에게 이러이러한 회신이 왔기 때문에 저는 이 위원장한테 온 회신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것이지 어떤 의도를 갖고 이렇게 하거나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金雲龍 委員 확인을 해 주시는 것은 고맙고요, 쓸데없이 여기저기 반대파 신문들이 한 줄씩 쓰는 것은, 서로 자기들끼리도 Sport Intern하고 쥐드도이체 짜이퉁 하고 싸움하고 그런 과정에서 있는 것이니까 봤으면 듣지 말라고 그랬고 그것이 중앙일보에 나는 바람에 미국의 Around the Rings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전혀 관계없

다고 엊그제 기사에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몰라서 오해 때문에 그러신 것으로 제가 생각하고 앞으로 우리가 스캔들 안 일으키고 하나로 모아서 2014년을 향해서 하시는데 저도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金龍學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세요.

○金龍學 委員 金 위원님, 조금 답변을 잘 안 하신 것 같아서……

Sport Intern의 4월 30일자 기사에 보면 우리 金 위원께서 자크 로게 IOC 위원장에게 처음으로 이렇게 말했다 하면서 프라하에서 부위원장에 출마한다는 사실을 동료 IOC 위원들에게 편지를 보냈다는 기사가 나와 있거든요. 그 부분 맞는 것입니까?

○金雲龍 委員 IOC 역학관계 때문에……

○金龍學 委員 저는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편지를 보낸 사실이 있는지 그것만 답변하세요.

○金雲龍 委員 편지는 출마한다는 것, 아까 얘기했지요. 출마 의사를 보낸 것이지요.

○金龍學 委員 편지를 보냈지요?

○金雲龍 委員 예, 그것 안 보내면 어떻게 상대방 전력을 압니까? 이것을 역학관계라고 그러지요. 또 그 사람들 우리가 얘기 안 해도 다 압니다. 그리고 그런 것은 IOC 안에서 통상 전력 탐색 이래서 흔히 하는 것입니다. 그것 편지 보낸 것이 나쁩니까? 후보는 7월 3일 5시에 아슬아슬하게 4일 날 투표 전날도 안 나올 것이다, 못 나온다, 안 나오면 안 된다 이런 판국인데 판단은 제가 국익을 놓고 판단을 하는 것이지요. 앞으로를 생각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편지가 어쩌고 IOC 내부 가지고 왜 했느냐 이러면 곤란합니다.

○委員長 金學元 우리 특위가 조사하는 차원에서 한 것인 만큼 이해를 좀 해 주시고요.

그동안 7월 9일에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에 관련된 업무보고를 받고 그에 대한 질의 답변을 했습니다. 또 오늘 관련자를 자진출두 형식으로 소환을 해서 오늘 질의 답변을 했고 또 본인인 金雲龍 위원님의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參考人 姜錫哉 잠깐만요, 발언 좀……

○委員長 金學元 그러면 차례로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간단하게 요점 중심으로 해 주시지요.

○參考人 姜錫哉 저희가 오늘 참고인으로 와서 질의 답변만 하고 보충질의가 올 줄 알았는데 질의가 하나도 안 오고 그래서 상당히 저는 할 말도 많고 해서 여기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가 태권도세계연맹의 홍보위원을 맡고 있으면서도 그랬지만 우리나라 국기인 태권도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왔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첫째, 저는 책임론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7월 2일 결과가 난 다음에 외신이나 국내 신문이나 프라하에 갔던 기자들은 다들 잘 했다고 기적적인 얘기라고 했습니다. 돌아오자마자 이것이 책임론이 나오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책임이라는 것은 유치를 해 가지고 아주 3등을 해서 못했든가 무슨 죄가 있어야 되는데 외신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평창은 아주 어렵다는 이야기로 다 나온 것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1차 투표에 1위를 했는 데도 와서 책임이라고 얘기한다니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두 번째는, 동시에 2개의 영광을 줄 수 없다는 이야기에 대해서입니다. 그것은 어떤 논리에 의해서 나왔는지 논리적인 것에 대해서 저는 의심을 갖고 싶습니다. 특히 오늘 코리아 타임즈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유치를 하는 것 하고 부위원장 출마가 양립할 수 없다는 이야기인데 金雲龍 위원은 다르지요. IOC 위원장까지 나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나마 86년부터 IOC 위원을 하면서 다져왔던 표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委員長 金學元 잠깐요, 제가 아까도 중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참고인들을 불러 가지고 물어보는 것은 어떤 사실을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결론이라든지 평가라든지 의견이라든지 이것은 저희 위원회에서 결정할 사안이기 때문에 얘기하실 때는 사실 위주로 얘기해 주시고……

○參考人 姜錫哉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서 돌아온 기자들한테, 특히 영자지 기자들한테도 물어보았습니다. 이것이 실제로 양립할 수 없느냐, 본인도 현장에서 취재를 해서 IOC 출입기자들이나 외국 기자들에게 물어보니까 그런 이야기는 자기들도 모른다고 하더라 어디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느냐 하는 것이 주종을 이루었습니다.

그다음에 출마를 하시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7월 2일에 평창이 탈락한 것이 결정 나고 난

다음에 복도에서 저도 金 위원에게 위로차 가서 나오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태권도 발전을 위해서라도……

○金映宣 委員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參考人 姜錫哉 있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예.

○金映宣 委員 金雲龍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金雲龍 위원님께서 말씀 안 한 것 중에 유익한 사실을 얘기하시는 것은 좋은데 전반적인 사실을 다 보고하시는 것 같으면 참고인이 전체를 정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委員長 金學元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그동안 나오지 않은 중요한 꼭 하실 말씀만 요약해서 해 주세요.

○參考人 姜錫哉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가서 제가 그랬습니다. 앞으로 태권도나 한국체육을 위해서 일단은 평창이 떨어졌으니까 나오십시오. 아무 얘기를 안 하십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돌아왔습니다마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 하고, 그다음 우리 평창 서포터들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저는 그때의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자리는 책임론을 논하기보다 한 것에 대한 평가를 함으로써 좀 건설적이고……

○委員長 金學元 그런 문제는 우리 위원회에서 다 알아서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만 얘기하시면 됩니다. 이제 다 끝나셨습니까?

○參考人 姜錫哉 한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발표되고 난 다음에 평창과 코리아를 외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위에서 상당히 경계를 하고 불안감을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외부에서 볼 때는 한국에서, 평창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마침 캐나다 서포터들이 한 이삼십 명 복도에 있었는데 우리 서포터들 중에서 몇 분 동안 밴쿠버와 캐나다를 같이 연호하고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한국의 서포터들이 그곳에 가서 질서의식을 보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내가 이 사실만은 꼭 얘기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부분이라든가 빠진 부분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參考人 李今烘 지난번과 이번을 통해 나올 얘기들은 대충 다 나온 것 같습니다마는 현장에 갔던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지금 여기 계신 특위 위원님들은 대한민국의 최고 지도자들입니다.

따라서 말 한마디 한마디는 국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즘에는 인터넷을 통해 세계 각국으로 전파가 됩니다. 그만큼 여기 계신 분들은 중요한 위치에 있고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분들이기 때문에 태권도를 한 사람의 입장에서, 또 스포츠에 30년 이상 관계했던 사람으로서 매우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委員長 金學元 그다음에 崔萬立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지요.

○參考人 崔萬立 정말 괴롭습니다. 저는 金 위원을 우리 유치위원회에 끌어들이자는 주창론자 중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섭섭했고 제가 마지막까지 희망을 가진 것은 프리젠테이션 할 때 내가 그랬습니다. 약 20% 정도 찬스는 있다, 金 위원께서 대한민국을 위해 영웅의 길을 걸을 것이다, 金 위원이 나가서 "나는 부위원장 필요 없고 대한민국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평창을 위해 모든 것을 헌신하겠으니까 한 표를 다오." 이런 식으로 했으면 다 끝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못한 점을 아쉽게 생각하면서 빨리 이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學元 그다음에 崔勝浩 사무총장 말씀하시지요.

○參考人 崔勝浩 저희 유치위원회 내에서는 불출마 선언만 해 주시면 크게 도움이 되겠다는 판단하에 시종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姜錫哉 참고인께서 나오셨습니다마는 프라하에서 처음 만나셨지요?

○參考人 姜錫哉 예.

○參考人 崔勝浩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그다음에 尹康老 사무차장님 말씀하시지요.

○參考人 尹康老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그러면 이상으로 참고인들에 대한 질의와 응답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인

으로 오셨던 분들, 오랫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 정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9시24분 회의중지)

(19시29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學元 전체회의를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양당 간사들과 협의한 결과 오늘 나온 모든 진술과 관계되는 서류, 또 지난번 7월 9일에 질의응답했던 모든 결과들을 종합하여 생각하고 판단하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빠른 시일 내에 결말을 내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이 또한 양당 간사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내일 아침 8시에 의원회관 1층 우리 특위회의실에서 위원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오늘 이 문제들에 대해서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오늘 특위를 산회하겠습니다.

(19시31분 산회)

○出席委員(15人)

金敬天	金映宣	金容鈞	金龍學
金雲龍	金學元	嚴虎聲	李龍三
李源炯	李昌馥	李海鳳	全甲吉
趙在煥	崔燉雄	咸承熙	

○請暇委員(1人)

鄭範九

○委員아닌出席議員(1人)

李洛淵

○出席專門委員

수석전문위원	玄誠洙
전문위원	孫俊哲

○出席參考人(5人)

崔萬立 (2010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 부위원장)
崔勝浩 (2010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 사무총장)
尹康老 (2010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 국제담당사무차장)
李今烘 (2010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 유치위원)
姜錫哉